

시로 읽는 성보순례
성덕대왕 신종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지혜가 깨끗해짐에 따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 모든 마음의
공덕이 깨끗해진다. 〈유마경 상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윤 3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86 호 2012년 5월 2일 수요일

어린이 법회 17% 증가 프로그램 개발 시급

어린이날 맞아 살펴본 조계종 어린이 포교현황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의 양적 증가에 따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포교원과 2011년 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청소년법회 운영사찰은 304곳으로 조사됐다. 2008년 5월 조사 당시 결과인 260곳에서 17% 증가한 수치다. 조계종 미등록사찰이 2008년 조사와는 달리 2011년 조사에서 빠진 것을 포함하면 증가 수치는 더욱 올라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어린이 법회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중심도량 제도와 인사고과제도 정착이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주말 사찰을 찾는 어린이들이 늘어나 어린이 법회 운영사찰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주영 은석 초등학교 교법사는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많은데 어디에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주말 법회에 오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늘어난 아이들 만큼 요구도 늘어났다. 최 교법사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요구가 보다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최 교법사는 "주중이나 격주 토요법회와 달리 단순한 교리강좌를 넘어 영어법회나 명상 프로그램, 현장체험실습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아이들을 사찰에 잠시 보낸다는 개념에서 고정적으로 맡긴다는 개념으로 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은 "어린이 불자들을 사찰로 오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맞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법회를 사찰 사정에 맞게 여는 것이 주지 스님에게 달려있다면 아이들을 오게끔 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진행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주5일제로 참가자 요구 높아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급선무

이어 최 사무국장은 "어린이 법회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한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토요일 정기적으로 하는 곳, 양 이틀을 다 하는 곳, 심지어 공부방을 빌려 하는 곳도 있다"고 소개했다.

최 사무국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전문가 육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사무국장은 "영어법회인 달마스쿨, 명상 프로그램 등 일선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일반교육현장에서도 창의력개발 교사 등 수요가 많은 만큼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국가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사찰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일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한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무국장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가 실시 중에 있다. 종단에서는 불교스카우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봉사 프로그램과도 연계한다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승가대에 이와 관련한 과목을 개설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선 전문가 교육과 함께 이를 이끄는 지도자 교육이 지속성을 띄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인격적인 인성교육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특수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특수목적 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찰의 스님들이나 재가불자들이 어린이들의 스승이 되어주고 함께 공부하고 지도할 때 어린이 포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은 벌써 부처님오신날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이 봉축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4월 25일 안양 한마음선원 청년회원이 제등행렬에 동참할 '대공등(大空燈)'에 채색을 하고 있다. 성덕대왕 신종을 모티브로 제작된 대공등은 범종소리가 허공에 퍼져 세상의 무명을 밝히듯, 체가 없는 대공의 근본불성자리가 일체생명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 있음을 상징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세계불교, 화합을 발원하다

제3회 세계불교포럼 25~27일 홍콩서 열려

불교홍법 등 다양한 주제 토론
세계 평화 · 화합의 지혜 다짐

전 세계 40여개국서 참가한 불교지도자, 학자 등 불자 1천여 명이 세계평화와 화합을 발원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중국불교협회(회장 추안인)와 홍콩불교연합회(회장 쥐에광),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회장 왕쭈안)는 4월 26일 홍콩체육관에서 제3차 세계불교포럼 개막식을 봉행하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교적 지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불교의 정신과 가르침은 서구 중심 사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개인적 차원에서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세계불교와 한국불교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종교로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다양한 주제의 분과토론이 진행됐다. 27일까지 진행된 분과토론은 △불교홍법의 현대적인 모델 △생활속에서 불교의 응용 △불전(佛典)의 정리, 보호, 번역의 현대적인 해석 △불교교육의 전통, 현상 및 미래 발전 등 7가지 소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또한, 영담 스님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쉐청(學誠)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단장 고바야시 류쇼 스님 등이 '황금유대에 관해'라는 주제로 TV토론을 갖고 한중일 3국간의 우호선린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이번 포럼을 기념하기 위해 '부처님 두정골 사리 이운 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현지 생중계로 진행돼 세계불교포럼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보여줬다. 신중일 기자



40여개국에서 불교지도자, 학자, 스님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6일 홍콩에서 제3차 세계불교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개막법회 모습 사진제공=금강불교신문

886호 CONTENTS

종단 2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 세미나
조계종 사찰법 및 시행령 시행

종합 3
2556 부처님오신날
전국 봉축행사 일정
묘각사, 프랑스학교 템플스테이

시방세계 5
조계사 봉축 선포식 '와락'



〈새연재 · 월 1회〉

기룬 님을 찾아가는 만행 12
만해 한용운 특별기획전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7대 종교가 펼치는 상생의 장

KCRP, 이웃종교 화합주간 개최…5일 개막식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2012년 이웃종교 화합 주간'을 펼친다. KCRP는 4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5개월간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KCRP는 "이웃종교 화합주간은 UN이 정한 'World Interfaith Harmony Week(매년 2월 첫째주)'에 UN 회원국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다. 화합과 상생에 대한 종교인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이웃종교 화합 심포지엄은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UN이 정한 'World Interfaith Harmony Week'와 한국의 이웃종교 화합주간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5월 5일 개막식 행사에는 한국 7대 종단 수장들의 개막 선언과 함께 어린이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축하공연과 체험학습이 열린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웃종교 스탬프 투어'는 역사 · 문화적 가치가 높은 종교 시설 7곳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5일부터 11일까지 각 시설을 방문하여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도장을 받을 수 있다.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웃종교 스테이'는 7월 6일~9월 2일까지 이웃종교의 성지 및 수도원 등에서 가족과 함께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7월 이후부터 펼쳐지는 지역 종교인 화합행사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충북 등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10월 6일 잠실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02)736-225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1C 文化遺産 매니지먼트 시대로...

서진문화유산은...

-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국보 · 보물 등 다양한 보존처리 경험과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산 · 학 연구시스템 구축(국립공주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산 · 학 협력 협약체결 등)
- 국내 최초 문화재보존 컨설턴트,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개념 도입
- HIP(Heritage Interactive Panorama) 국내 최초 기획 · 제작
- 박물관 전시 기획 · 설계
- 국 · 내외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형성

HIP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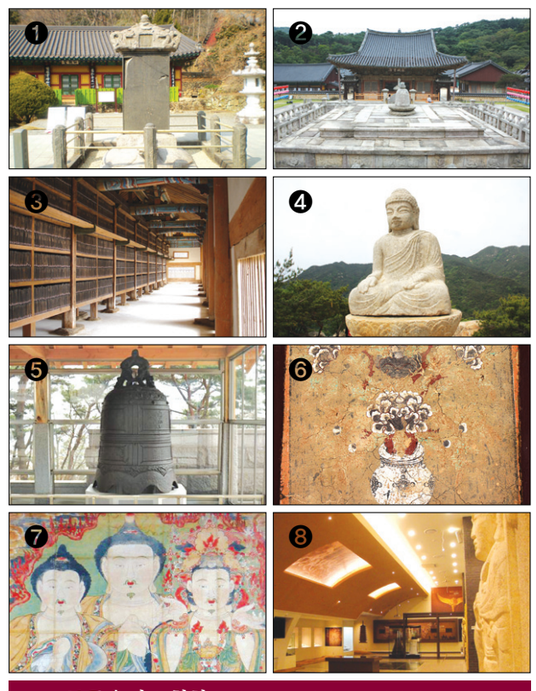
- 아름다운 사찰 및 문화재 360° 표현
- 불자들의 온라인 기도방(3D 참배)
- 신세대를 위한 온라인 포교 및 교육
- 홈스테이 활성 방안 제시
- 스마트폰 '앱' – 사찰 홍보 효과 증대
- 손쉬운 조작 – 접근성 용이
- 영구 기록보존
- 유료컨텐츠를 통한 수익창출

주요사업영역

- 문화유산 보존 – 석조, 목조, 종이, 섬유, 금속,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벽화, 근대문화재, 3D스캔 및 비파괴진단, 모형제작 및 복제, 흰개미 방제, 훈증소독, 방연처리 등
- 보존환경 관리 – 예방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보존방안 제시
- 보존 컨설팅 – 보존에 관한 자문, 설계
- CRM 용역
- HIP 기획 · 제작
- 박물관 전시 · 기획
-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저변 확대 – 강의, 연수교육
- 문화상품 기획 · 개발
- 기타(출판 및 디자인 관리 제작)

주요사업실적

[국보 제47호]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보존처리공사 ❶
[국보 제132호] 징비록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사업
[국보 제285호] 울산 반구대암각화 학술(3D)조사 용역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기단 및 금강계단 보존처리 사업 ❷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대장경판 DB를 위한 표준화작업 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충방부사업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벽화 보존처리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공사
[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❹
[보물 제925호]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
[보물 제1242호] 합천 해인사 길상탑 보존처리
[시도유형문화재 제3호 외] 중국철제범종 보존처리 및 보호각 보수공사 ❺
[시도유형문화재 제139호] 수다사 명부전 벽화 보존처리 공사 ❻
[시도유형문화재 제165호] 봉선사괘불 보수사업 ❼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 보수정비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토층전사 및 복원)
신경주역사 신축공사중 유물복제 및 유구이전 ❽
세계유산등재추진 공룡화석(발자국) 레프리카 제작공사
연평도 전시자료 수습 및 보존처리, HIP제작, 기타...



보존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 본사 : 경북 경주시 서부동 4-5 경주오피스텔 6010 ● 지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D동 610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 전화 : 054) 771-9747, 02)2083-1520 ● 팩스 : 054) 771-9748, 02)2083-1521

서진문화유산(주) Seojin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Co.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



성덕대왕 신종

유 안 진

너무 깊고 너무 아픈 사연을 모야
부처님께 빌었어라
한 번 치면 서라벌이 평안했고
두 번 치면 천리까지 평안했고
세 번 타종하면 삼천리까지라
거기까지 신라 땅 되었어라
금수강산으로 수 놓였어라
어지신 임금님의 옥임이 되었어라
만백성들 어버이로 섬기었어라
끝없이 태어날 아기들을 위하여
끝없이 낳아 키울 어미들을 위하여
한 어미가 제 아기를 공양 바쳐 빌었어라
껴안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쳐 빌었어라

에밀레~ 에밀레레~ 종소리 울렸어라.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유안진 시인은… 1965년〈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달하〉, 〈다보탑을 줍다〉, 〈거짓말로 참말하기〉 등

"새로운 반세기 이끌 종헌 필요"

법안 스님,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 세미나서

민주, 생명, 환경, 인권 등과 같이 시대의 요구와 사부대중 종단 운영 참여 확대 등의 내용과 과제가 종단 종헌에 담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4월 25일 열린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세미나' 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새로운 반세기를 이끌 종헌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법안 스님은 종헌이 가지는 지위에 대해 짚었다. 스님은 "종헌은 종지 종통에 입각해 종단의 동화적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 규범이자 근본 규범"이라며 "1994년 개혁종단도 종도의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 운영 요구를 종헌에 반영함으로써 출범했다. 종헌이 종단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종헌은 1962년 3월 22일 제정돼 25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왔지만 실재화가 미흡하다고 법안스님은 지적했다. 스님은 향후 종헌에 담아야 할 과제로 △종명, 종지 문제에 대한 논의 △종단 운영에 있어서 사부대중 참여 확대 △종도들의 참종권 확대 △정치 중심의 종단 운영 폐해 극복 △종단 사회적 역할 △본사주지 선출에서의 교구 대중 참여 확대 등을 꼽았다.

종단 운영에 사부대중 참여 확대에 대해 법안스님은 "비구승으로 특정하고 있는 종헌 기관 등 주요 종정 기관의 구성원 자

종단 운영, 사부대중 참여 '화두'
영담 스님 교구제도 개선 제기

격 조건 완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성별의 문제가 아닌 승려의 능력과 자질로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의 길을 확대하는 게 종헌 정신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정치 중심의 종단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지방 불교를 강화하고, 현재의 삼권 분리 체제의 유효성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구 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 권력을 지방



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조계종 교구제도와 사찰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현재 교구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영담스님은 현재 교구본사제가 △관할 구역 불분명 △유명 무실한 교구종회 △총무, 기획, 교무 등 7직의 부재 △잦은 종무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저하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구 중심의 사찰 행정이 이뤄져야 하고, 중앙종무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게 영담스님의 주장이다.

권한 이임 시 중앙 기관의 행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스님은 "정부든 기업이든 강해지는 비결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총무원의 경우 대정부 분야와 국제 · 통일, 복지 분야 등 굵직한 업무만 상시 업무로 한다면 행정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사업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조계종 종명이 가지는 역사적 위치의 고찰을 통해 통합종단의 출범 의미를 찾았다. 김 교수는 통합종단의 의미로 △조계종 종명 채택을 통한 한국불교역사를 대표하는 종단 위상 확보 △청정 비구 승단 유지 등을 꼽았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조계종의 활동과 전망' 을 주제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정스님과 대중 소통 이끌 터"

종정예경실장 효광 스님, 예경실 역할 밝혀

진제스님 종정상은 '입전수수'
간화선 세계화에 마지막 원력

"예경(禮敬)의 어원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대서원이 있는 데 그 중 첫 서원이 '예경제불원(禮敬諸佛原)' 입니다. 예경실은 첫 번째로 종정스님을, 두 번째로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 것입니다. 그것이 예경실의 역할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공식적 의전을 책임지는 종정예경실장 효광 스님〈사진〉은 4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경실의 역할을 종정 스님과 대중은 받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말머리를 풀었다.

효광 스님은 "어떤 일을 꾸미고 만드는 것보다 종정스님과 대중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묵묵히 해 나겠다"며 "종단과 종정스님이 지시한 사안에 대해 잘 받들겠다. 무엇보다 '예경제불원' 의 서원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몇 번에 걸쳐 강조했다.

효광 스님은 진제스님의 종정상으로 '입전수수(入鄽垂手)' 를 들었다. 심우도의 마지막인 입전수수는 깨달은 선지식이



중생을 위해 나간다는 의미로 조사의 72가풍 중 마지막 가풍이다.

진제 스님의 향후 원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종정 추대 전부터 세계적 신학자 폴니터 교수와의 대화와 이어진 방미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때마다 진제스님은 간화선의 세계화를 강조해왔다. 효광스님 역시 종정스님의 마지막 원력은 '간화선 세계화 · 대중화' 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정 재임기간 동안 '국제 무차선 법회' 를 봉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효광 스님은 "종정 스님께서 간화선 세계화의 원력을 드러내신 것은 세상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자비심의 발로"라고 설명했다.

무차선 법회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80노구라 전면에 나서 법회를 준비하시는 것은 무리"라며 "총무원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종단 사찰 관리 법적 기준 마련

조계종, 17일부터 사찰법 및 시행령 시행

조계종 종단 내 사찰 등록 · 관리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들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2일 '사찰법 및 사찰법 시행령' 을 제정 공포하고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종단 사찰들은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 에 의해 그 기준과 창건주 승계 등만 관리돼 왔으나, 이번 사찰법 제정으로 사찰의 정의, 구분, 기능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조문화됐다. 장기간 주지 부재 시 교구본사 주지나 총무원장이 주지를 임명할 수 있게 해 사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사찰법과 사찰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예비 등록제 △지역 관할 교구본사로 사찰 등록 △창건주 승계 원칙 및 절차 △중창주제도 도입 △산내암자?포교소 관리 방안 마련 △미등록사설사암 징계제도 명문화 △공찰 공동화 방지책 마련 등이다.

특히 문제가 많았던 사설사암의 창권주 권리와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큰 의의다. 사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계종 승려 전체에서 은사, 도제, 사형사제 등으로 한정해 승계 원칙을 마련했다. 창권주 권리 상실에 대해서도 명문화 해 창건주가 탈종했을 때 당해 사찰을 공찰로 귀속시킬 수 있게 했다.

그간 처벌 조항이 미비했던 미등록사설사암 권리 제한도 강화된다. 사찰법 제31, 32조에는 '미등록 사설사암의 소유자, 창권주 권리자, 실질 운영자는 권리 제한과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하고 사찰 일체의 재산을 사찰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들과의 관계 정립은 총무원이 풀어야할 숙제다. 특히 선학원의 경우 법인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있지 않아 300개소의 사찰이 미등록 사설사암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원이나 산내 암자가 독립적 지위를 부여한 부분은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박종학 총무부 사찰교무팀장은 "법 제정이 애초 의도한 것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많다. 총무원 정책 방향과 맞게끔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9월 중앙종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봉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주지 진산식 행

귀의 삼보하옵고,

봄 기운이 가득한 날,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에서는 주지 수불스님의 진산식이 있습니다. 부디 법단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격려와 축하로 깨어있는 도량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불기 2556년 5월 좋은 날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장 범산 합장

■ 일 시 _ 불기2556(2012)년 **5월 7일**(월) 오전 10시

■ 장 소 _ **범어사 대웅전 앞**

※ 화환은 일체 정중히 사절합니다. 단, 불우이웃돕기 쌀 보시는 받습니다.
자비의 쌀 나누기(계좌: 부산은행 241-01-002070-1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 행사 문의 : 범어사종무소 (☎ 051-508-3122)



조계문(보물 1461호)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5월 전국은 연등 물결이 '넘실'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 전국 봉축행사 다채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봉축 행사 일정들이 속속 집계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오는 5월 7일 '시청 앞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축 일정에 돌입한다. 15일부터 29일까지는 청계천에서 전통등전시회가 열리며, 봉은사에서도 18일부터 28일까지 전통등전시가 진행된다.

연등회 연등축제는 19, 20일 양일간 열린다. 동국대와 종로 일대에서 봉행되는 이번 연등회는 19일에는 연등법회와 연등행렬이, 20일에는 불교문화마당과 연등놀이로 꾸며진다.

전국 사찰들은 대부분 13~20일 사이 점등식을 열고 공연, 기념법회 등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토진)는 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효어르신축제와 14일에는 관불의식을 봉행한다. 전북포교사단은 12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북어린이 큰잔치'를 열고 가족간 화합을 도모한다.

호남교구본사협의회는 8, 15, 22일 세 차례에 걸쳐 광주KT정보센터에서 '2012 빛고을 선교율법회'를 봉행하며, 대구불교총연합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는 '형형색색 달구벌놀이'를 연다. 불도(佛都) 부산도 4일 부산역 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갖고 20일에는 구덕운동장에서 제등행렬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봉축 행사에 들어간다.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사회 곳곳에 두루 비출 수 있도록 온 불자가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불기 2556년 전국 봉축 일정

지 역			일 시	내 용	장 소
서울	중앙	봉축위원회	5월 18~28일	전통등전시	봉은사
			5월 19일	연등행렬 및 어울림마당	동국대, 종로일대
			5월 20일	전통문화마당	
			5월 20일	외국인등만들기대회	
			5월 20일	연등놀이	
			5월 28일	봉축법요식	전국사찰
		조계사	5월 7일	효어르신축제	조계사
			5월 14일	동자승삭발식	조계사
			5월 14일	관불의식	조계사
			5월 18일	나눔장터	우정국
	강남	사암연합회	5월 10일	강남불자대회	봉은사
경기	수원	용주사	5월 20일	점등식	화성시청
		수원시불교연합회	5월 13일	점등식	화성행궁광장
			5월 13일	제등행렬	수원시내
	남양주	봉선사	5월 21일	점등식	남양주시청
	용인	용인시불교연합회	5월 8일	점등식	용인통일공원
			5월 19일	제등행렬	용인종합운동장
	인천	인천불교회관	5월 28일	점등식, 제등행렬	인천시청 앞 광장
강원	속초	신흥사	5월 4일	점등식	구 속초소방서 앞 광장
			5월 19일	제등행렬	속초시내
			5월 12일	신흥사배 축구대회	속초시종합운동장
			5월 8일	동자승수계식	신흥사 극락보전
	양양	낙산사	4월 30일	점등식	양양사거리
			5월 2일	선물나누기행사	양양시내 초등학교
	평창	월정사	5월 21일	점등식	평창 진부 고수부지
충청	대전	대전불교사암연합회	5월 15일	점등식	서대전시민공원
			5월 15~18일	봉축전시회	서대전시민공원
			5월 19일	연등축제	대전 일대
	충주	충주사암연합회	5월 12일	봉축법회, 봉축음악회	충주 호암체육관
	천안	천안불교사암연합회	5월 19일	점등식, 제등행렬	천안중학교
전북	전주	전북포교사단	5월 12일	전북어린이 큰잔치	전주 덕진공원
		전북봉축위원회	5월 15일	팔만대장경 공연	소리문화의전당
			5월 19일	연등축제	전주시청
			5월 23일	35사단 연등제	35사단 영내 세병호
	익산	익산봉축위원회	5월 20일	연등축제	익산 중앙체육공원
전남	순천	순천불교사암연합회	5월 6일	연꽃문화제	동천수변공원
	광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5월 9일	봉축탑 점등식	광주시청
			5월 20~24일	전통등 전시회	광주천
			5월 20일	봉축법요식, 제등행렬	광주공원
		조계종승보회	5월 25일	봉축법요식, 제등행렬	무각사
		호남교구본사협의회	5월 8, 15, 22일	2012빛고을선교율법회	KT정보센터
경북	대구	대구불교총연합회	5월 17~19일	형형색색달구벌놀이	두류공원 야구장
			5월 5일	점등식	국채보상공원
			5월 17일	관등놀이	두류공원 야구장
			5월 19일	연등회	두류공원 야구장
경남	부산	부산불교연합회	5월 4일	점등식	부산역광장
			5월 20일	제등행렬	구덕운동장
제주	제주	관음사	5월 6일	제주 점등식	
		약천사	5월 12일	서귀포 점등식	
			5월 20일	서귀포 제등행렬	서귀포시 일대

北 조불련 봉축행사 참가 불발

"현 정세서 실현 불가능" 19일 회신

남북공동발원문만 채택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초청하겠다는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은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남측에서 개최되는 봉축행사에 북측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 대표단 초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추본은 3월 29, 30일 양일간 조불련과 실무회의와 4월 9일 팩스 전문을 통해 봉축행사 참가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조불련은 4월 19일 팩스 회신을 통해 "봉축행사 남측 방문과 금강산 신계사 봉축 법회는 현 정세 하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 다만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 공동발원문은 공동 채택하기로 했다.

조불련이 불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남북불교간 직접 교류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남북불교계 간 직접 교류사업이 전면 무산된 것은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볼 때 예상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이 23일 사실상 대남 공격을 예고함에 따라 한반도 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추본은 "이번 봉축행사 초청을 통해 남북불교도가 하나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고 민족 화해와 남북 관계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도 남북불교교류 활성화와 민족 평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멘토와 함께 답사 여행

동행 문화탐방프로젝트 진행

주5일제를 맞아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문화탐방 프로젝트'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아름다운동행은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공연장에서 '우리나라 · 세계문화유산 탐방 & 나의유산만들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창덕궁과 종묘 등으로 첫번째 답사를 나섰다.

동행은 "소외 계층 학생 200명을 모집해 1년 동안 문화유산 탐방을 진행한다. 삼성에서 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의사 변호사 대학생 등 멘토 60명이 학생들을 지도해주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주 5일제 수업을 맞아 소외계층 학생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앞으로 동행은 수원 화성, 경주 석굴암, 합천 해인사, 안동 하회마을 등의 문화유적지를 매달 탐방한다.

정혜숙 기자



4월 26일 서울 프랑스학교에서 열린 묘각사의 '찾아가는 템플스테이'. 참가학생들은 연등 만들기를 체험하며 한국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템플스테이가 찾아갑니다

관음종 묘각사, 서울 프랑스학교 초청 템플스테이

서울 강남 서래마을에 위치한 서울 프랑스 학교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관음종 낙산 묘각사(주지 홍파)는 4월 26일 서울 프랑스 학교 초청으로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를 열고 연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묘각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프랑스 학생 37명과 교사 4명이 동참했으며, 참가자들은 연꽃과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의미와 팔각연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지 홍파 스님은 "묘각사의 템플스테이 노하우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학교장 발레 씨는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기쁘고 학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체험에 참가한 재클린(여 · 9)은 "연꽃잎을 하나하나씩 붙여가는 작업은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했으며, 다베스(남 · 9)도 "스님과 봉사자 선생님들이 친절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도법사 여여 스님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 민주주의에서 불교 역할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5월 2일 첫 종책토론회

민주주의 변화와 전망 다뤄

한국 민주주의의 전계 양상과 이에 따른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은 오는 5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한국민주주의의 정치사적 변화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올해 첫 종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가 '2012년,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고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발제는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민주주의의 정치사적 변화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스님이 각각 지정토론을 맡았다.

특히 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총선과 대선, SNS의 확산으로 인한 대중민주주의의 확대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변화 모습에 따른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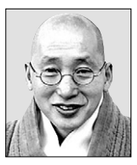
불교사회연구소는 그간 '불교와 대통령 이승만', '템플스테이 발전방안', '종단 불교문화콘텐츠사업 활성화방안' 등을 주제로 종책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불교사회연구소는 "향후 종단발전을 위한 종책 개발은 물론 대사회의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일 주 문



이철수 초청 목판화 전시회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이사장 정산 스님은 오는 5월 10일까지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이철수 목판화가 초청 전시회를 개최한다.



강정마을 생명평화법회

광주전남전법단회장 대요 스님은 4월 25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강정마을 불자회와 함께 생명평화법회를 봉행했다.



수륙대재 및 경로잔치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5월 31일 세원사 회주 천우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제5회 낙동강 방생 수륙대재 및 경로잔치를 연다. (053) 616-8080



개국 기념 수계대법회

이채원 BBS 불교방송 사장은 5월 12일 불교방송 개국 22주년을 맞아 설정 스님을 모시고 기념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혜광사 환경개선기금 보시

류홍우 보덕학회 이사장은 4월 25일 동국대 불교대학에 비구니 수행관 혜광사 환경개선기금 3000만원을 보시했다.

"대북사업 새로운 20년 준비해야"

창립 20주년 맞은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20여 전 대북지원을 하겠다며 결성된 불교단체가 있다. 바로 (사)조국통일평화불교협회(이하 평불협)이다. 평불협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평불협 창립 20돌 기념법회'를 가졌다. 새로운 20년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사진 · 동국대 정각원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대북지원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통일을 외면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잃는 거다. 통일이 민족적 사명이기도 하지만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우리 불교는 대북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법타 스님의 이 한마디는 현 정부에게 가하는 따끔한 질책이다. MB정부 들어서 대북지원은 인색해졌고 결국 남한의 안전도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북지원은 방향을 잃었고 북한은 기아에 허덕이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고 탈북자 문제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낳고 있다. 스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한 달에 밀가루 60톤을 보냈죠. 그러면 그 양으로 7천 7백 명이 국수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북 지원 사업이 축소 돼 그만큼의 양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대북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미국 유학을 하면서다. 당시, 미국 현지에는 대북지원 관련 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세미나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불자는 법타 스님 혼자뿐이었다. 그러던 중 스님은 1989년 제 3차 세계청년학생축제 기간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라는 것을 알았죠. 세미나, 강연 등 이론정립을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도적 동포애를 가지고 그들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죠. 결국 밥이 통일이요 평화요 삶의 희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북한 현지에 국수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후 스님은 8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대북지원과 남북불교교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스님은 불교도 대북지원을 통해 꾸준히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그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을 모두 축소시켜 버렸죠.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대북지원 사업이 다시 활성화 돼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가올 20년은 새로운 통일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교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혜숙 기자

"영결식 여비 모아 기금 전달"

통도사 동행에 7천 만원 기탁

통도사(주지 원산)가 4월 24일 조계종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7천 만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사진 오른쪽),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사진 왼쪽)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전달식은 성수 대종사 영결식 후 스님들의 여비를 모아 마련된 기금이라 더욱 의미 깊은 기부가 됐다. 자승 스님은 "영결식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번 기금 전달은 불교계 장례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산 스님은 "스님께서 꽃 피는 시절에 고통 없이 열반했다. 새로운 종정 스님도 오시고 날씨가 좋아서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금 전달에 뜻을 모았다"며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기탁금은 논산군법당 건립 5000만원 및 완화 의료전문병원인 울산 자제병원에 각각 2000만원 씩 전달된다.

정혜숙 기자



위안부 할머니 제주도 여행 나서

동행, 나눔의 집 어르신 추억 선물 제공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어르신들이 제주도 여행을 선물로 받았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여행 봄나들이를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3 · 1절을 맞아 나눔의집을 위로 방문했을 때 날이 따뜻해지면 제주도로 나들이를 가자고 약속했다. 이를 지키고자 여행을 지원해드렸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여행은 가파도와 마라도 탐방을 시작으로 할머니들의 추억만들기가 진행됐다. 할머니들은 둘째 날의 기예단 쇼도 즐겁게 관람했다.

정혜숙 기자

"더 좋은 아빠 되고 싶어요"

영통복지관 가족 프로그램 진행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은 4월 21일 'The~좋은 아빠 교실'을 진행했다. 이는 수원 영통 지역에서 '좋은 아빠'를 희망하는 신청자와 그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아빠랑나랑요리대회 ▷아빠와 함께하는 역할극 ▷아빠탐구 퀴즈대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영통복지관은 5월 19일에도 좋은 아빠가 되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해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혜숙 기자

제15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제15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원로부문에 김종규 삼성박물관장〈사진〉이 선정됐다.

국내최초의 출판인쇄전문 삼성출판박물관을 설립한 김 관장은 2004년 서울세계박물관대회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으로 한국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신중일 기자

제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



제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에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사진〉이 선정됐다. 시상단체인 호암재단은 이 이사장 선정 이유로 "자신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제주 지역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의료시설 등을 건립해 30년동안 생산적 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2급 중증장애인인 이 이사장은 1987년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설립해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을 개원해왔으며, 현재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장과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골퍼 꿈나무가 산사 간 까닭은?

문화사업단, 신륵사서 양용은 선수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여주 신륵사에서 양용은 프로골퍼와 골프 꿈나무 10여 명이 함께 하는 '멘토와의 행복한 만남'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양 선수와 골프 꿈나무들은 1박2일간 예불, 명상, 108배, 스님과의 차담 등 사찰에서의 일상을 체험했으며, 아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PGA 스트레칭과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긍정적인 사고 등 경기 노하우를 전수했다.

양 선수는 "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여러 고민을 가진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해 10월 템플스테이 홍보대사로 임명된 양 선수는 내년 봄 시즌을 마치고 한국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의 기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PGA 챔피언 양용은 선수와 신륵사 해응 스님, 참가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화티켓 헌혈증과 바꿔 기부

콜럼버스 영화관 생명나눔에 3960장 전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지난 4월 23일 콜럼버스 영화관 하남점(점장 임재홍)으로부터 소아암 백혈병 환우 지원을 위한 헌혈증 3960장을 전달받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전달된 헌혈증은 콜럼버스 영화관이 일반인들에게 무료 관람티켓을 제공하고 기부받은 것이다. 콜럼버스 영화관 하남점은 지난 2004년 2000매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3억 2460매를 지원했다.

생명나눔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원해 준 헌혈증은 13억원 상당(장당 3만9000원)으로 뜻깊은 곳에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된 헌혈증은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난치성소아암백혈병환우에게 무상으로 지원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콜럼버스 하남점 임재홍 점장으로부터 헌혈증을 건네받고 있는 현지 스님

活山堂 性壽大宗師 元老會議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4월 15일 涅槃하신 曹溪宗 元老議員이신 活山堂 性壽大宗師의 元老會議葬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 · 조전 등으로 조위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56(2012)年 4月 19日

活山堂 性壽大宗師 49齊 日程

49재	장 소	일 시	연락처
초재	통도사관음암	2012년 4월 21일(윤 3. 1) 10시	055)382-7356
2재	성 도 암	2012년 4월 28일(윤 3. 8) 10시	051)809-0073
3재	황대선원	2012년 5월 5일(윤 3.15) 10시	055)963-9551
4재	법수선원	2012년 5월 12일(윤 3.22) 10시	02)445-9911
5재	법수선원	2012년 5월 19일(윤 3.29) 10시	
6재	해동선원	2012년 5월 26일(4. 6) 10시	055)973-9554
49재	통 도 사	2012년 6월 2일(4.13) 10시	055)382-7182

曹溪宗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靈鷲叢林 通度寺 活山堂 性壽大宗師 門徒一同



'와락' 행사 첫 순서로 진행된 율동레크리에이션에서 참가자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다. 4월 23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맞이에는 500여명이 함께 어울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신도단체에서 10개 팀을 구성해 공연과 열띤 응원전을 전개했다.



조계사 어머니합창단이 가발과 분장을 하고 에어로빅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명나는 봉축 시작! 조계사 신도 어깨춤 들썩~

조계사, 4월 23일 봉축 선포 … '서로끌어안기 와락' 개최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시골 장터에서나 나올 법한 노랫가락이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서 울려 퍼진다. 모인 불자들은 온몸을 흔들며 신나게 춤을 춘다.

부처님오신날을 40여일 앞둔 4월 23일,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신명나는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는 이날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선포식과 함께봉축맞이 축제 '서로끌어안기 와락'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계사 신도들의 장기자랑과 먹을거리 장터, 캐리커처 그리기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조계사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노래소리에 견지동 거리를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행사에 동참했다. 조계사 신도를 비롯한 500여 대중들로 조계사 앞마당은 종일 북적였다.

행사는 조계사와 자매결연 지자체인 전남 함평군에서 보내온 나비 1000 여 마리를 방생하는 법회로 시작됐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함평 나비축제 성공과 2012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의미였다. 방생된 나비는 2012함평나비축제의 주인공 나비인 남방제비나비를 비롯한 4종의 토종나비였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과 안병호 함평군수 등 참가대중은 나비를 날리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지난해 조계사 국화전으로 함평 국화가 널리 알려져 감사하다. 이번 나비축제도 조계사와 함께 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함평군도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조계사 회화나무합창단 총무 평등화 오애숙(68) 씨는 "사중에서 수백의 나비들이 일제히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부처님이 오실 때 내린 꽃비와 같아 보여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 씨는 "60세가 넘은 합창단 어르신들이 조계사 연등공방에서 연등 제작에 동참하는 등 조계사 대중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계사 신도들의 봉축준비를 소개했다.

나비 날리기 행사로 다소 어지러워진 장내가 정리되자 이상종 연등축제 기술 감독의 재치 있는 사회와 함께 신도 장기자랑이 시작됐다.

"자, 지금부터 서로 끌어안기 '와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와락! 안아주세요. 아...처음 보신분이라 조금 그런가요? 어때요~ 조계사 식구들인데! 꽉! 안아주세요! 꽈악!"

부처님오신날까지 봉축주간 설정
동자승 삭발식, 자비바자회 등 마련
22일부터 매주 일요일 무료 진료
종로노인복지관에 1억5천만원 전달

행사 첫 번째 순서는 조계사 전법본부 소속인 청년회의 봉축 율동 레크리에이션이었다. 참가대중은 청년회 청년들의 지도 아래 봉축 주제가인 '연등을 든다'에 맞춰 흥겹게 율동을 배웠다. 이어 진행된 장기자랑에는 조계사 신도회 소속 신도들이 10개 팀을 구성해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뽐냈다. 이들은 찬불가를 비롯해 대중가요, 개그콘서트 패러디 공연, 댄스공연 등을 선보였다.

안재형 조계사 행사기획팀 주임은 "이번 행사는 조계사 신도단체가 전법본부, 소임본부, 교육법회본부, 지역신행본부 등 4개로 나뉜 이후 첫 행사"라며 "신도단체가 커지며 신도분들이 사중에서 일을 하면서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행사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늦게 까지 진행된 이날 장기자랑에서는 '밀양아리랑', '아리랑'과 찬불가 '우리도부처님같이'에 맞춰 댄스를 선보인 지장봉행팀이 1위를 차지했다.

지장봉행팀 총무 지수 박수경(46) 씨는 "주지 스님이 항상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자'고 말씀하셔서 '우리도부처님같이'에 맞춰 춤을 준비했다"며 "엄숙하기만 한 지장재일법회를 진행하다가 모처럼 밝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가 됐다"고 밝게 웃었다.

한편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특설무대 옆에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장기자랑 외에도 '전남 우수 관광 상품 축제 한마당'도 함께 열렸다. 조계사와 전남 공예조합, 강진군이 함께 전남 관광 상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연 농산물 직거래장터였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에는 15개 업체가 40여 농산품을 판매했다. 직거래장터에서 차 시음회와 야생차만들기 코너는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행사장 한켠에서는 이동수, 김용민, 정태권, 하재옥, 이용호, 최민 씨 등 언론매체 시사 만화가들이 참여해 불자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내 얼굴에 담긴 부처님의 미소'도 진행됐다.

한편 조계사는 이날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기간을 봉축주간으로 설정하고 동자승 삭발식, 자비바자회, 봉축30일기도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가운데)과 참석 내외빈들이 함평 나비를 방생하며 봉축을 선포하고 있다.

조계사는 2012년 봉축 주제인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에 맞춰 4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서울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에 기금 1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22일부터 매주 일요일에는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정지천 · 이하 한불연)와 함께 조계사 100주년기념관에서 한의원을 열고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모집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최고수로 가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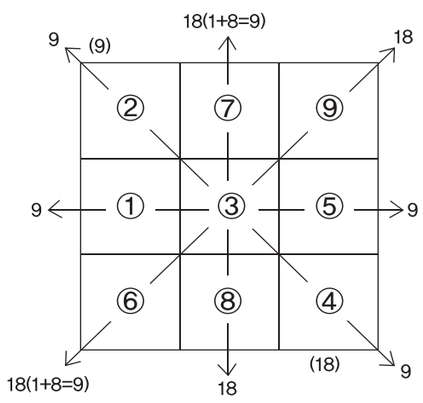
집중 5일 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연화사 불교대학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창시자

저자전화
010-7415-0803

만세력 없이도 일생을 꿰뚫어 보는 비술



[구단구궁 원리도]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대전광역시 소재 연 화 사

강 의 일정표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 중심 (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신문, 인터넷, TV, 유 · 무선 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불교전법도량 연 화 사 불교대학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382번지 교무접수처 ☎ 042)477-0703 / 011-9911-1277

“인성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한다”

불교계, 상담 · 명상 · 사경 등 프로그램 다양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2월 초 정부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학교에서는 학생 ·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강연, 인성교육 등 다양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에 불교계도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나를 찾는 선’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방학기간 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호흡명상, 사경, 오감명상, 참회발언, 마음수련 등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됐지만, 불교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비불자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해 ‘나를 찾는 선’ 지도자 과정에 참가한 김명옥(서울 용산중) 교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 학생들한테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현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명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처음에 다들 낯설어 했지만 점차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라미타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과 함께 ‘나를 찾는 선’을 일선 학교에서 실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포교원은 지난 3월 8일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청소년심성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신규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선정된다.

포교연구실 정헌열 상임연구원은 “6월 중순 경으로 신규프로그램이 확정될 것”이라며 “확정된 프로그램은 중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심성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파라미타는 전통문화유산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문화재지킴이 ▷중국청소년 교류 및 장보고 문화탐방 ▷문화재모니터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와 사상을 익혀 자신의 인성을 되돌아보게끔 한다.

파라미타 ‘나를 찾는 선’ 과정 인기
중등학교 정규과정에 활용 추진
진한 감동과 가족애 느끼는 것 중요

한마음과학원(원장 대행)의 ‘한나무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내면의 알아차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음’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마음관찰 ▷올라오는 마음 멈추게 하기 ▷올라온 마음 긍정으로 바꾸기 ▷다시 내 마음 바라보기 등의 단계로 구성돼, 입시경쟁에 놓인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준다.


학생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명상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줘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복지재단)은 서울 시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를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 및 문화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올리브명상 상담센터(대표 성부현)는 ‘마음이 밝아지는 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지 체험학습을 통해 알려준다. 명상,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타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길러준다.

당시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동대부고 박진형(가명 · 18) 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이 재밌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비롯한 친구, 가족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학주 동대부여중 교법사는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 공통점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불교계에 시행되는 인성프로그램들이 진한 감동과 가족애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를 통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조한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은 “▷혜거스님 집중명상 ▷용타스님의 동사섭 ▷인경 스님의 오감명상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등 불교계에는 이미 불자들 사이에서는 입증됐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 프로그램들이 사찰 뿐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조명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108배’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

포교원, 26일 모바일 포교콘텐츠 공모전 시상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모바일 포교콘텐츠 공모전에서 전규찬, 김효용 씨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앱 ‘108배 생활도우미’, 박찬기 씨가 개발한 ‘키즈붓다 모바일 웹’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108배 생활도우미’는 발원문과 목탁소리, 수행일지 작성 등의 기능을 갖춰 불자들의 108배 수행을 돕는 모바일 앱이다.

‘키즈붓다’는 어린이용 모바일 웹으로 ▷불교가 궁금해요 ▷배움마당 ▷나눔마당 ▷멀티미디어 마당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키즈붓다에 포함된 ‘스님지키기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불교의 십악십선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폰을 이용해 활용할 수 있는 포교콘텐츠라고 생각한다”며 “내 마음 속 걸작을 만든다는 각오로 함께 동참해 줘 고맙다”고 말했다.

우수상 수상자 박찬기 씨는 “불교가 최신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이디어상에는 ‘엄지법당’(성기백등 4명), ‘부다 락’(김연욱), ‘스님지키기 게임’(박찬기)을 선정됐다. 대상인 포교원장상은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했다. 우수상에는 상금 150만원과 상장, 아이디어상에는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수여됐다.

포교원은 이번 수상작을 무료 배포하며 올 하반기 모바일과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실에서 2012모바일 포교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교계 지도자 ‘공무원 멘토’ 나선다

일면 · 정호 · 묘청 스님 불교계 멘토 담당

불교계 스님들이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의 멘토로 나선다.

경기도청은 4월 16일 공직자 멘토를 선정, 경기도청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공무원 멘토링은 존경받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고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 및 일반 공무원들의 자신감 회복을 돕고 가치관 확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종교지도자 멘토풀(mentor pool) 에는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정호 스님(용주사 주지), 묘청 스님이 선정됐으며 개신교 김영진 목사, 김정일 목사, 김미라 목사, 천주교 이영배 신부, 한만옥 신부 등 15명도 포함됐다.

종교지도자들은 도청사 내에 마련된 멘토방에서 1:1로 상담하며, 전화와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24회 어린이 · 청소년 연꽃노래잔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 제24회 전국 어린이 · 청소년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부분을 청소년까지 확대 실시해 독창 20명, 중창 12팀, 합창 2팀 등 총 16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속초 신흥사 소년소녀합창단과 꼬마풍경 윤지현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행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불교문화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여성결혼이민자 자립능력 키울 것”

지혜로운여성,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나서

지혜로운여성(이사장 김애주)이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적극 나선다. 지혜로운여성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언어 · 경제 · 자녀문제 해소를 위해 6~11월까지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프로젝트 주요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교육 및 지역사회 파견 · 강사활동’ ‘가족애착놀이 활동 교사용 지침서 제작’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강사 양성 교육 이후, 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 ‘가족애착놀이 활동 교사용 지침서’를 3개 언어로 제작해 강사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2년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선정 공모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취업지원 사업이다.

김현임 지혜로운여성 과장은 “프로젝트는 여성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맞춤 직종을 개발해 지역사회 내 서비스일자리를 연계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 참가여성들과 다문화봉사단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경험 나누면 세상이 바뀐다

조계종 복지재단, 청소년 의지나눔 5기 입학식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4월 23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5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서울시내 중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모집한 소외계층 중학생과 동국 108리더스 봉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의지나눔 참가자들은 ‘표현은 행복의 시작’을 주제로 한 김보성 강사(재미쌈해피데이 연구소 실장)의 웃음스트레칭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 폭력 추방 선언문’ 낭독을 통해 학교 폭력 근절의 동참 의지를 다졌다.

종선 스님은 “보다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만남을 통해 경험과 마음을 나누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군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봉사자 개인의 경험을 자원으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다양한 직업군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5기 학생들은 바리스타, 요리사, 가드너 등 전문직 봉사자와의 만남, 직업특강, 문화나눔, 캠프를 통해 꿈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할 예정이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김연아나무 마가목



숙취해소

❖ 백세팔팔 : 국내특허 10-07071300(마가목 차음료)
상표출원번호 : 40-2012-0015906
❖ 청 명 천 : 국제특허 PCT/KR2004/003474(숙취해소)
국내특허 10-0663952(숙취해소)
❖ 갓바위 생식 : 식사 대용식
❖ 오채 단이슬 : 국내특허 10-0663948(야채 미용음료)
❖ 오과 단이슬 : 국내특허 10-0663947(과일 미용음료)

회 원 모 집
자/비/실/천 갓바위자비회
www.g-jabi.or.kr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476번지
☎053)311-2675 (대구사무실)

불자를 위한 불자의 기업
주식회사 자운 www.jawoonfood.co.kr
전국총판 / 대리점 모집 TEL 053)311-2676~7

탄허 · 한암 스님 모두 겸수와 원융 강조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서 한암 스님과의 관계 조명

한국불교 근대사의 태두 탄허(呑虛, 1913~1983) 스님에게 스승 한암(漢岩, 1876~1951) 스님은 '지음' (知音)이었다.

6세 때 사서삼경 전 과정을 마칠 정도로 뛰어났던 탄허 스님은 스무 살 되던 해인 1932년 당대의 선지식으로 이름을 휘날리던 한암 스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천리 길이 멀다않고 3년간 20여 통을 주고받았다. 1934년 10월, 마침내 탄허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해 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자의 길을 선택했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와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개최한 기념세미나에서는 탄허 스님과 한암 스님을 비교하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는 시도가 있었다.

한암 선(禪), 탄허 교(敎)에 치중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한암(漢岩)과 탄허(呑虛)의 동이(同異)점 고찰' 에서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다른 점, 곧 특성이라고 한다면 한암은 선(禪)에, 탄허는 교학(敎學)에 치중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한암은 금강산 신계사 강원에 있다가 보조지눌의 〈수심결〉에서 느낀 바가 있어 경허를 찾아가 선승의 길을 걸었고, 그의 제자 탄허는 반대로 선원인 상원사에 입산해 훗날 교학의 길을 걷게 됐다"고 소개했다.

둘 다 선교겸수(禪敎兼修) 강조

윤 대표는 표면적 양상과는 다르게 두 스님 모두 겸수(兼修)와 원융사상에 기반한 융합을 강조,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먼저 두 스님은 모두 유학자 출신으로 입산한 점이 같다"며 "두 스님은 모두 선(禪)의 입장에서 선교겸수(禪敎兼修), 선교융합(禪敎融合)을 시도, 실천했다. 당송시대 총림에서 장경각과 그 관리자인 장주(藏主)를 둬 수행납자들에게 경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탄허는 보조지눌의 수행법과 사상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큰데 이는 한암의 선사상과 일맥상통하다. 그들의 선사상, 수행은 간화선, 특히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에 의거한 간화선으로 경전적, 교학적 바탕은 〈화엄경〉과 이통현의 〈화엄론〉에 의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 정신이어야

윤 대표는 탄허 스님의 업적을 평가하고 스님의 인재양성 정신을 이어야 한다며 발제를 끝맺었다.

먼저 윤 대표는 "탄허는 전통강원의 교과목인 사미과, 사집과(서장, 도서,절요, 선요), 사교과(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등을 비롯해 대교과인 화엄경과 주석서인 청량징관의 화엄경소초, 이통현의 화엄론까지 완역간행했으며, 선어록인 육조단경과 보조법어도


윤창화 민족사 대표(사진 왼쪽서 두번째)가 세미나에서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을 비교 발제하고 있다.

번역 · 간행했다"며 "이는 근현대 불교사에서 개인이 행한 역경불사로는 최대의 업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탄허는 오대산 월정사와 삼척 영은사 등에 수도원을 개설해 교육에도 적지 않은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교육 · 역경에 매진했던 것은 인재 양성을 통해 불교, 더 나아가 한국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

인재양성 정신 이면에 민족정신이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이날 탄허 스님의 이런 인재양성 정신 이면에는 일제하의 시대인식과 독립운동가였던 부친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탄허의 시대인식과 종교관 고찰' 을 통해 "탄허의 시대인식은 일제 하 독립운동가였던 부친의 민족의식이 영향을 미쳤다"며 "그 결과 그의 종교관이 개인, 사찰, 종단 차원에서 사회, 국가, 민족, 동양, 인류 등으로 확대돼 갔으며 오대산수도원, 영은사수도원을 통한 인재양성, 역경 등으로 발현됐다고 주장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2주제인 '呑虛宅成의 생애와 사상 - 한국불교사적 지위와 한국불학사적 위상' 에서 "탄허는 한국불교사에서 불도유 삼교를 통섭한 진정한 교육자일뿐만 아니라 한국불학사에서 화엄선의 계승자"라며 "스님의 원융회통 정신은 전통 계승이라는 측면과 함께 다문화 시대와 다종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탄허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순교의 심정으로 六비구들 할복"

월탄 스님,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 기념 특강서 회고

'승려 8대원칙' 이 정화의 원동력
교역직 스님부터 학인까지 '경청'

"1960년에 4.19혁명이 발생함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이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화운동 역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라불교 중흥을 위해 순교를 선택한 이차돈처럼 우리도 한국불교를 위해 대법원에서 할복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사진〉의 목소리가 일순 격양됐다. '육(六)비구 할복 사건' 의 유일한 생존자인만큼 스님은 당시 사건은 왜색불교 청산과 청정비구 회복이라는 시대과제를 위한 순교였음을, 그만큼 절박했음을 강조했다.

월탄 스님은 4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통합종단 50주년 기념 특강' 강사로 나서 정화운동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후학들에게 회고했다.

이날 특강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와 동국대, 중앙승가대, 수덕사, 법주사 학인스님들이 참석해 월탄스님의 강의를 경청했다.

월탄 스님은 정화결사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일제에 대항하고자 만해 한용운 스님이 송광사에 '조선 임제종 임시 사무실' 을 만들었다. 이게 정화결사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일제의 사찰령 반포로 한국불교는 위기를 맞았고,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유시' 로 청청승가로의 회귀에 물꼬가 터졌다는 것이다. 월탄 스님은 "당시 대처승들은 18개 사찰을 독신 비구들에게 내주기로 했지만 실천하지는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계기가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 유시"라고 말했다.

이후 1954년 전국비구승대회부터 십여 년간 이어진 정화운동은 1969년 대법원이 비구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마무리된다. 월탄 스님은 이 같은 불교 정화의 원동력은 △독신 △삭발염의 △수도 △20세 이상 △불주초육 △불범사바라이 △비불구자 △3년 이상 수도생활자 등 불교정화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승려자격 8대 원칙' 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탄 스님의 강의는 6월까지 권역별로 열린다. 4월 28일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불국사 등 영남지역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6월에는 직지사에서 봉녕사, 동학사, 운문사 등 사미니 학인 대상으로, 송광사에서는 호남지역 학인스님들을 위해 강의가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4월 25일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夫餘 王興寺址 舍利莊嚴具 · 사진)' 를 보물로 지정 예고 했다.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는 부여 왕흥사지의 목탑지 심초석 남쪽 중앙 끝단에 마련된 장방형 사리공 내에서 발견됐으며, 가장 바깥에 청동제의 원통형 사리합을 두고 그 안에 은으로 만든 사리호, 그리고 보다 작은 금제 사리병을 중첩하여 안치한 3종의 봉안방식을 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사리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같은 날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 '서산 개심사 제석 범천도 및 팔금강 사위보살도(瑞山 開心寺 帝釋 梵天圖 및 八金剛 四位菩薩圖)'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를 보물지정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소식

연등회 문화재 지정 후 첫 학술세미나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연등회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해 5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연등회의 지정 의의와 발전 방향' 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는 홍윤식 불교민속학회 회장의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의의' 기조발제와 관계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서불대 · 밝은사람들硏, 불교상담워크숍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과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5월 11~12일 '성질 급한 Type A CEO를 위한 달마훈련' 이란 주제로 서불대 지혜원에서 불교상담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김보경 경북대 명예교수가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 과 상담심리학에 입각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시연한다.

(02)890-2854

노덕현 기자

한국정토학회, '관음사상' 학술대회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는 5월 12일 낙산사 유스호스텔 무설전에서 '관음사상과 신앙의 재조명' 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관음사상과 신앙연구' , 전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 현고 스님의 '낙산사 중창불사에 관한 연구' ,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중 동해 관음도량 낙산과 보타산' 등이 발표된다.

(02)581-3138 노덕현 기자

원각불교사상硏, '계율' 학술대회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5월 12일 천태종 관문사에서 '계율의 성립과 변천'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백도수 동국대 교수의 '초기교단의 계율과 성립배경' , 신성현 동국대 교수의 '대승보살계의 성립과 전개' , 권동우 박사의 '삼국유사 - 불교연기설화의 신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등이 발표된다. (02)3460-5200

노덕현 기자

韓國佛教中興祖 鏡虛禪師門下
釋迦如來正法眼藏 七十六世
萬翁道一大禪師 傳法弟子 建幢式

석가여래로부터 한국불교중흥조 경허선사의 법맥을 이은 만옹당 도일대선사의 전법을 전수받을 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번 전법을 전수받는 대덕큰스님들은 석가여래정법안장 제77세 한국불교중흥조제5조로 인가 받으셔서 만옹도일문도회 문형제가 되어 법통을 보존하고 법을 전수하는 큰스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6년 6월 9일(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접수 후 개별 통보
◈ 자 격 조 건 |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 / 법납 20년 이상 비구, 비구니
◈ 접수준비물 | 신청서 1매. 수계첩. 증명사진 1매. 건당비.
◈ 신청 우선순위로 법제자 서열등록
◈ 접수마감일 | 2012년 5월 23일 오후 5시
◈ 건당하실 스님들께 내리는 다섯가지 法物
(1) 25조 가사 (傳統 上品25條 祖衣 傳衣) (2) 발우 (此如來應量器 三輪淸淨具 傳鉢)
(3) 법권 (鏡虛禪師法脈 韓國佛教中興祖第5祖로 認可) (4) 계보 (釋迦如來正法眼藏 祖師原流七十七代 系保)
(5) 전법계 (歷代相傳之 咐囑法 偈誦)

* 당일 만옹도일문도회 문형제들께서도 증명사로 동참바랍니다.
문 의 처 / 053)325-5288 팩 스 / 053)325-4848
문도회장 / 010-3900-3050 총 무 / 011-586-4648

석가여래정법안장 제77세 한국불교중흥조 제5조
만옹당도일 법통보존회 문도회장 혜강능인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5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전국 각지 봉축행사 열기 벌써 후끈

전주 · 대구 · 부산 등지에서 점등법회 · 유등제 · 합창제 다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벌써부터 전국이 봉축행사가 이어지는 등 축제분위기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윤순)는 4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제3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봉축기념으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윤순 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로지 부처님의 정법을 음성으로 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성 포교에 대한 사부대중의 관심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 · 경북지역에는 청도 유등제, 한국불교대 대관음사의 동자승 삭발식과 수계법회 등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하늘과 물에는 꽃비! 땅에는 신명 · 흥 · 환희심!'을 슬로건으로 내건 청도 유등제는 4월 20~23일 청도군 화양읍 유등연지에서 열렸다. 청도유등제 봉행위원장 정광 스님은 "등불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축제로 화현된 범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1만여 개의 장엄 등이 유등연지 주변을 밝혔다. 또한 청도팔경 중 하나인 유천어화를 접목한 '유호장대 어화놀이'가 밤하늘과 연못 위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 스님)도 4월 20일 동자승 삭발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 좋은 어린이집 · 유치원에 재학하는 어린이 10명이 주인공이 돼 우학 스님을 모시고 삭발식과 계를 받았다. 동자승들은 앞으로 한국불교대학의 대내외적 봉축행사에 참석해 행사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21일 전주종합운동장에서 봉축기원등 점등법회를 봉행됐다. 이번 법회는 각 종단의 대표 스님들을 비롯한 포교신도 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해 세계평화와 민족화합을 기원했다.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뚜렷한 주관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웃과 더불어 보편적인 상생의 삶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처님이다"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명의 존귀함을 사무치게 깨달아 모든 이웃들을 자기 생명처럼 존중하는 동체대비의 실천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지역은 이번 점등법회를 시작으로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한 달간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4월 20일 참좋은 어린이집 · 유치원에 재학하는 1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삭발식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동자승들은 봉축기간 동안 한국불교대학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종)와 순천불자연합회(회장 최경태)는 4월 23일 순천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 상종 스님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으며, 점등식을 비롯한 제등행렬이 진행됐다. 순천불교사암연합회는 봉축 점등식에 이어 5월 6일 연꽃문화제와 유등축제를 개최한다.

이밖에 양양 낙산사(회주 정념)는 4월 30일 양양사거리에서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을 주제로 점등식과 봉축행사를 봉행했다. 또 낙산사는 5월 2일 양양지역 초등학교를 돌며 어린이날 선물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4일 양양군 실내체육관에서는 1500여 어르신이 참가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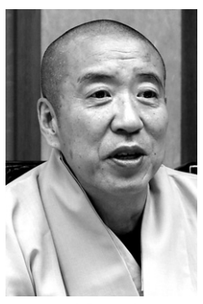
큰스님들이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

호남교구본사협의회 '2012 선교율 대법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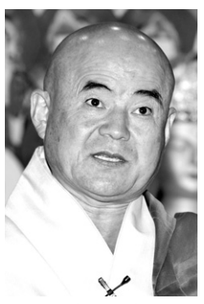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선교율(禪敎律)을 대표하는 선지식이 빛고을 광주에서 강연을 연다.

호남지역교구본사협의회(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송광사, 선운사)는 5월 8~2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광주 KT정보센터에서 '2012빛고을 선교율 대법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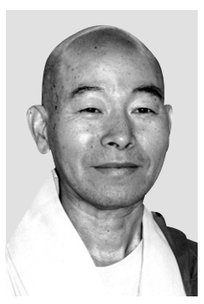
선교율이란 불교를 배우는 3가지의 대표적 방법인 선(禪)-불교수행 방법인 참선, 교(敎)-부처님 가르침, (律)-불교의 계율을 의미한다.



현응 스님



혜국 스님



지현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敎-현응 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행복(5월 8일)' ▷禪-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의 '수행과 행복하고 열린 삶(5월 15일)' ▷律-지현 스님(송광사 율주)의 '계율에서 배우는 인생의 행복(5월 22일)' 등 한국의 대표적 선지식들이 강사로 나선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서는 현응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어떻게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

혜국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 수행법인 참선으로 통해 얻어지는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와 스님들의 수행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현 스님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위기는 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재가자들에게 현대적 의미의 계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연은 참석자와 강사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수행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불교 공부의 기본인 3가지를 전문적으로 수행중인 큰스님들의 말씀을 통해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마음과 가치관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맹목적인 기복신앙을 벗어나 부처님 법답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062)226-01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절에서 차 마셔요"

만남의 장소 '절다방' 개원

나주지역 시민들을 위한 '卍다방'이 생겼다. 나주 남평에 위치한 죽림사(주지 법용)는 4월 21일 경내에 '왕생루 준공과 아미타후불탱화 점안식'을 갖고 나주시민들이 언제나 편안히 차를 마실 수 있는 '卍다방'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한 왕생루, 일명 '절다방'은 탁자와 다구 등을 비치해, 누구든지 쉽게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행사는 백양사 수좌 지선 스님, 법용 스님을 비롯해 사찰신도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공, 법요식, 문화공연으로 진행됐다.

법용 스님은 인사말에서 "절에는 사람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다. 절다방을 통해 앞으로 지역민들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관한 왕생루는 99㎡넓이(약 30평)의 팔작지붕 2층 목조건물로, 1622년에 조성된 세존괘불탱화를 축소해 봉안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소식

송림사 설법전 복원 낙성식 가져

조계종 칠곡 송림사(주지 혜성스님)에서는 4월 21일 설법전 낙성식 및 문화행사를 봉행했다. 이날 지역 기관 단체장과 사부대중 3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4년전 소실된 설법전을 복원해 낙성식을 가졌다.

주지 혜성 스님은 "설법적 복원으로 우리 불교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울 수 있었다. 지역관계 기관과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신라고찰 송림사에 부처님의 피로 다시 우뚝 솟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문화 행사로 송림사 합창단의 찬불가 발표회와 김달수 사진작가 개인전, 사물놀이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흥겨운 한마당 축제로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해운사 낙성식 및 타종식 개최

해군작전사령부 군법당 해운사는 4월 25일 '해룡종각 낙성식 및 범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지극한 진리는 형상이 없어서 그 근원을 엿볼 수 없고, 큰 소리는 천지를 진동해 들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며 "그 진실한 뜻을 보게 하기위해 종각을 세우고 종을 치니 장병들이 '일승(一乘)의 원음(圓音)'을 깨닫기 바란다"고 설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석암장학회, 2500만원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석암장학회(회장 정련)는 4월 21일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제75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동국대 불교학과 도이 스님을 비롯해 재학생 14명에게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석암장학회는 1971년 11월 28일 故 석암 스님이 근면한 소년소녀가장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됐다.

석암장학회는 현재까지 1141명에게 58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거창군쉼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거창군삶의쉼터(관장 도영)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개선교육 '우리는 친구'를 실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우리는 친구'는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영 스님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통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간의 벽을 허무는 사업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선운사 보살계 수계 법회 봉행

선운사(주지 법만)가 4월 22일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선운사 한주 법현 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을 비롯한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십중대계와 48계를 설하고 사부대중들의 실천을 다짐받았다. 행사에 참가한 사부대중들은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하며 계의 실천을 서원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오늘 받은 보살계를 계기로 모든 번뇌와 마장이 물러가고 생사해탈할 수 있는 참다운 불자로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순(46) 씨는 "10년 넘게 절에 다니면서도 처음 보살계를 수지하게 됐다" 며 "불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특별강사 : KBS/MBC출연/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대 상 : 종교지도자/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매주 토요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철야기도 도량

봉 무심사 제5회 낙동강 방생 수륙대재 및 경로잔치(공연) 행

귀의 삼보하옵고
수륙대재란? 물이나 육지에 있는 고혼과 아귀에게 법식을 공양하는 법회로 모든 공덕중에 으뜸이 된다고 경에 말씀하였습니다. 부디 큰 행사에 많이 동참하시어 무주고혼 영가천도에 무량 공덕지으셔서 가정 편안하고 세세생생 안락하시길 기원합니다.

◐ 법 사 : 세원사 회주 천우 큰스님
◐ 일 시 : 2012년 5월 13일 10시30분 ◐ 장 소 : 무심사
◐ 집 전 : 무형문화재 영산회 전수자 스님 여러분
1부 수륙대재 / 2부 경로잔치 (오후 2시 이후)
* 영가 1위당 동참금 3,000원 (방생어류 무심사에서 준비함)

봉축법회 안내
일 시 : 2012년 5월 28일 10시 30분
장 소 : 무심사 극락보전
(연등 접수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702058-51-003978 무심사
◑전화 055)532-0408. 053)616-8080

무심사 사부대중 합장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3〉승가교육(도제양성)

교과목 현대화… 전통교육 특화 접목해야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한 이래 오늘날까지 포교 · 역경 · 도제양성을 3대지표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눈 밝은 선지식을 양성하기 위한 승가교육은 5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7가지 핵심과제 가운데 승가교육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이는 '인천의 사표'를 길러내는 승가교육도 마찬가지다. 시대에 맞는 수행자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전법교화도 중생구제의 원력도 실현될 수 없다.

1962년 제2차 중앙종회에서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승가교육 종책은 현대적 변화를 꾀했지만 실상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고착돼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제33대 집행부에서 추진한 교육 종책의 변화는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치문, 사집, 사교, 대교로 나눠진 강원 교과는 학년제 바뀌었고,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불교와 동서철학, 영어, 컴퓨터, 인문 교양 등 교과목의 변화도 있었다. 모든 교재들 한글 교재로 전환됐다.

조계종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승가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했다. 스님은 "교육 정책은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봐야 한다"며 "그간 공감은 했는데 결단과 실행을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통과 현대를 기계적으로 엮으려 했던 것은 문제였다고 법인스님은 지적했다. 전통은 전통대로 살려 특화하고, 현대적 기본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육부장 퇴휴 스님은 "이미 100년 전에도 박한영 스님을 중심으로 전통 강원에서의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논쟁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며 "현 교육원 차원에서 기본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승려의 재교육을 확대한 것은 큰 성과"라고 진단했다.

'기본교육 일원화' 성과이자 공감

분명, 최근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교육기관의 교재와 교육 과정을 통일해 종도들이 일원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데 있다. 법인 스님은 "교과목의 현대화가 승가의 전통을 잃게 하지는 않는다"라며 "현대사회에서 승가는 전법과 수행, 대사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교육의 현대화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휴 스님은 "기본교육의 일원화는 미래 종단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성격을 가진다"고 의견을 함께하며, 중앙차원의 일원화 된 기본교육기관 신설을 제안했다. 스님이 제시한 중앙기본교육기관은 2년은 지방 본사에서 수학하고, 2년은 종단이 운영하는 중앙기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체제다. 퇴휴 스님은 "이 같은 중앙기본교육기관은 조계종도로서의 종단관의 확립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 별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인으로 묶어야 하고, 자본금 대비 수익률도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 스님


퇴휴 스님


지관 스님

기본교육 일원화 교육기관 있어야
지방승가대(강원)조정 · 통합 숙제
출가예비학교 운영 등 대책 시급

퇴휴 스님은 "승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인 만큼 종단 차원에서 전향적인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중앙승가대학교를 통합승가대학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승가대학의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함량 미달이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승가대학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인 스님은 "2014년까지 유예기간을 뒀고,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선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전문 인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급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한 문제다. 교육원은 국제 포교 인력 양성을 위해 용인 화운사에 국제불교학교를 설립했으며, 동국대 불교융합학과와 함께 한문 고전의 현대적 해석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기존의 장학승 제도를 확대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공부한 전문 인력에 대한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퇴휴 스님은 "전문 인력 양성은 지원과 활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는 인재 양성되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종립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면 다행이지만, 이는 소수다. 강원의 강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우는 미비한 수준"이라며 "적절한 인력 배치와 활용이 종단적 숙제"라고 강조했다.

일본으로 유학해 계율을 전공한 조계종 교수아사리 지관 스님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지관 스님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배제할 수 없지만, 종단 인력 배치에도 한계점은 분명하다"며 "종단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나 연구소 설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가 종책 다양화 방안 의견 분분

승가교육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바로 '출가자 감소'다. 현재 출가자의 수는 감소되고 있고, 연령대는 고령화되고 있다. 출가 종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원은 2010년 출가 사이트를 개설해 출가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섰고, 올해에는 출가자 예비학교를 개최해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단기 출가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60대 이후 고령자 출가에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출가제도 공청회를 열어 출가자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한다.

법인 스님은 "출가자 수도 중요하지만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20대 출가자에 한해 동국대 진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퇴휴 스님은 출가자 감소의 원인이 그동안 승가가 위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수적 감소보다는 고령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30대에 출가해도 종단에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안팎으로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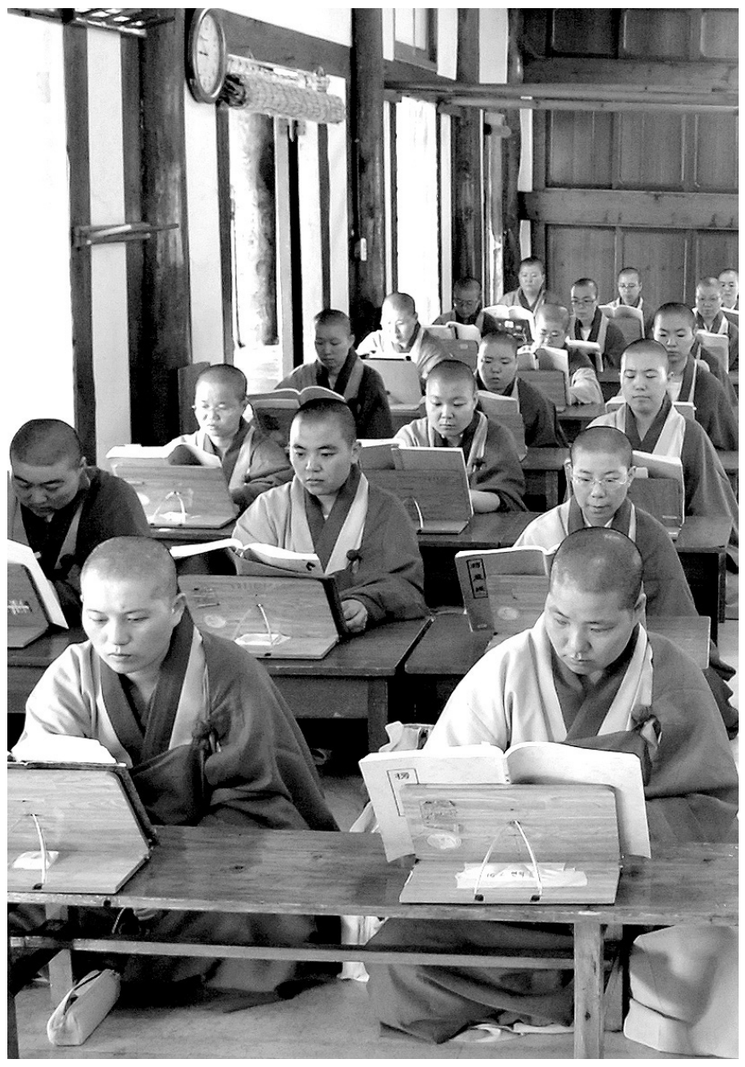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휴 스님은 사찰에서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종립 중고등학교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현재에도 사찰에서 맡아 키우는 아이들의 수는 상당하다. 이들을 한 데 모아 교육시키고, 불교적 습의를 가르친다면 10대 출가자 수는 분명 증가할 것"이라며 "동국대나 중앙승가대학교 등의 부속 종립 학교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승가교육 종책 실무자 · 전문가들은 승가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시대의 언어로 중생을 제도할 스승을 배출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법인 스님과 퇴휴 스님은 "시대를 선도할 선지식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관 스님은 "사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 스승의 배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승가교육은 분명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제도'와 '전법도생'이라는 그 기치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운문사 강원 학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위〉과 중앙승가대 전경〈아래〉. 전통을 특화하고 교육은 현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주요 승가교육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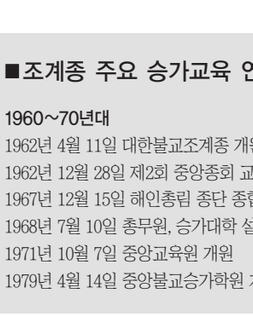
1960~70년대
1962년 4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개원식
1962년 12월 28일 제2회 중앙종회 교육법 원법 제정
1967년 12월 15일 해인총림 종단 종합수도원 입안
1968년 7월 10일 총무원, 승가대학 설립 간담회 개최
1971년 10월 7일 중앙교육원 개원
1979년 4월 14일 중앙불교승가학원 개강

1980년대
1980년 1월 10일 중앙불교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으로 개칭
1985년 9월 23일 제1회 승가고시 실시
1985년 11월 중앙승가대학, 개운학사 준공
1989년 7월 11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설립 허가

1990년대
1990년 2월 27일 중앙승가대학교 각종학교 인가
1991년 3월 승가학원, 4년제 대학학력 인정
1991년 8월 36일 제1기 행자교육원 개원
1995년 1월 13일 교육원 개원
1995년 1월 25일 제1차 교육원 회의
1995년 9월 15일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기공식
1996년 11월 20일 제1차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 회의
1996년 12월 11일 중앙승가대학교 정규대학 승격
1998년 2월 10일 교육원 승가위계확립을 위한 담화문
1999년 8월 9일 제1차 행자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000년대
2000년 7월 18일 제1차 고시위원회 회의
2000년 10월 24일 교육원, 강원 교과과정 개선안 확정
2001년 3월 13일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준공식
2001년 3월 22일 제1회 5급 승가고시 시행
2001년 3월 27일 제1회 외국인스님 불전의식 교육
2001년 4월 2일 제1회 4급 승가고시 시행
2001년 4월 12일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
2001년 10월 29일 제1회 3급 승가고시 산림
2002년 10월 21일 제1회 외국인 승려 기초선원 교과안거 시행
2003년 3월 3일 서울불교전문강당 개원
2004년 7월 1일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 구성
2005년 5월 4일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 제도개선 공청회
2005년 12월 9일 제1회 전국강원 학인논문 공모전 발표
2006년 9월 11일 사이버 불교대학 오픈
2010년 4월 5일 제1차 승가교육진흥위원회 회의
2010년 6월 28일 연수 강좌 주제 확대 시행
2010년 9월 28일 출가 사이트 오픈
2010년 11월 4일 제1회 2급 승가고시 시행
2011년 3월 4일 종단 교수아사리 위촉
2011년 3월 17일 제1회 외국인 행자교육원 운영
2011년 3월 25일 국제불교학교 개교
2011년 4월 27일 교육불사 후원의 밤 개최
2011년 9월 30일 직할교구 주지스님 연수교육
2011년 10월 28일 교직자 대상 교수법 연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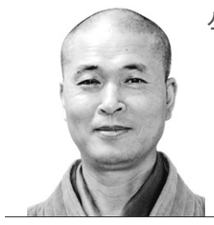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2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 374-2번지
※ 책을 구입하신 분께는 가시오가피 1박스(1만원)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吳 熙 奎
· 백암 철학원 원장
· 전남 도민신문 이주일의운세 담당자
· 월간 직업뉴스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호남인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웨딩센스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작은소리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예향 생활철학 이야기 연재
· 전남 매일신문 오늘의 운세 담당자
계간 "행복채널" 발행인
2005 미스코리아 광주, 전남 선발대회 심사의원
2005 엘리트모델 광주, 전남북 선발대회 심사의원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내림이야기
주벽이야기
의처증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우리음식 궁합이야기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운명의 대부분은 욕심의 반대쪽으로 흰다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KY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gital Echo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Yuko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무엇이 순수한 영혼인가

학승이 물었다. "대중이 운집했습니다. 무슨 일에 대한 것을 함께 담론하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늘은 나무를 끌고 와서 승당을 세워볼까한다."

학승이 물었다. "그것은 결국 학인을 교화하는 일과 관련된 일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주사위도 놀이도 모르고 장행(長行)도 알지 못한다네."

問 大衆雲集合談何事 師云 今日拽木頭豎僧堂 云莫只者箇便是接學人也無 師云 老僧不解雙陸 不解長行

쌍육과 장행이 당시의 놀음판이나 게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 1200년 전의 일이라 불분명하다. 여기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쌍육을 주사위로 풀어보았다.

선원(禪院)에서도 규율을 풀고 편안하게 쉬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있다. 바로 설날 같은 때이다. 이때에는 선원마다 다르지만 어떤 선원은 그냥 하루를 조용히 쉬기도 하고, 혹은 차담을 먹으면서 담론하기도 하고, 어떤 선원은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한다.

조주 선사가 있는 절에서도 명절 같은 날을 맞게 되었던 모양이다. 대중이 모이고 큰스님을 불렀다. 큰스님이 오시자, 어떤 학인이 무엇에 대하여 함께 담론하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오늘은 나무를 끌어와 승당 짓는 일을 담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학인이 "그것은 결국 교화사업과 관련된 일 아닙니까? 스님, 오늘은 편히 쉬면서 놀이나 담론을 즐기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말하자, "나는 그런 놀이에는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몰라"라고 잘라서 말한 것이다.

사람을 규율로 너무 가두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일 년에 한번 정도는 휴식을 허락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도 110세 이상의 노화상 조주 스님은 한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오늘날 걸식을 업으로 하는 수행자는 조주 화상의 이 정신을 깊이 본받아야 한다. 골프, 호화 승용차, 화려한 외국 여행 등은 모두 수행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언젠가 고통으로 되갚을 날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인체의 진실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춘하추동이야."

학승이 물었다. "그 말씀은 학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는 나에게 인체의 진실을 물었잖아."

問 如何是眞實人體 師云 春夏秋冬 云與麼即學人難會師 你問我眞實人體

인체(人體) 그 자체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몸의 진실은 무엇인가? 춘하추동과 같다. 태어날 때는 봄이고, 성장기는 여름이며, 중년기는 가을이며, 노년기는 겨울과 같다. 계절이 어김없이 다가오듯 인생 또한 어김없이 질병, 늙음, 죽음이 다가온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 죽으면 원래 없는 곳으로 되돌아간다. 죽은 뒤에도 나는 없다. 나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몸은 지수화풍 4대가 인연을 따라 만들어진 임시적 존재이다. 순수한 영혼이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잠시 빌려 입은 영혼의 옷이다. 시간이 되면 옷을 벗고 떠난다.

순수한 영혼은 무엇인가? 부처가 잠자고 있는 영혼이다. 우주의 근원이다. 부처의 심성이 있어서 순수하다고 말한다. 어찌해서 부처가 잠자게 되었는가? 만물은 부처의 분신이다. 만물은 깨어날 필요 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중생은 영혼이 있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다. 만물은 깨어나야 자기를 안다. 중생은 잠에서 깨어나 자기를 알 수 있다.

이 허망한 육신이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큰 스님 법문에 이 몸은 제분기(製糞機)라 했다. 순수하게 이 몸이 하는 일은 평생 똥을 만들어내는 일 뿐이라는 말이다. 참 뜻 깊은 법문이다. 그 제분기에 명품을 걸쳐놓고 근사한 모자를 쓴다고 냄새가 안 나겠는가? 온갖 격식을 갖춘다고 고귀해질 것인가? 모두 헛된 만족이고 자기도취이다. 진실이 잠자는 영혼이 추구하는 세계는 헛된 세계이다. 욕망의 세계는 추구하는 만큼 고통이 따른다.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중생의 잠에서 깨어나면 즉시 붓다의 세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12〉

팔정도-④정업(正業)

일체의 잘못된 행동 벗어난 신체적 행위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팔정도의 네 번째 항목인 정업(正業)이다. 정업은 총괄적으로 바른 신체적 행위를 뜻한다. 즉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나쁜 행동을 자제하고, 선(善)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간혹 불자들조차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업은 '직업'에 관한 수행덕목이 아니다. 행위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카르마(karma)가 한문으로 '업(業)'으로 번역됐고, 직업(職業)의 '업'과 정업의 '업'이 같은 한자(漢字)이다보니 정업 안에 직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혼동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엄밀히 말해 직업 또한 인간의 신체적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직업에 관한 부분을 정업에서 떼어내 정업의 다음 항목인 정명(正命)에서 설명했다. 고대 사회도 직업은 중생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어떠한 인간의 행위보다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러한 팔정도의 흐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업에서 말하는 바른 행위는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생(殺生)과 남의 것을 훔치는 투도(偸盜), 음란한 행위의 사음(邪淫), 이렇게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단지 이러한 악업을 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애호하고, 재물과 부처님의 교법 등을 아끼지 않고 베풀고, 건전한 남녀관계를 지키는 것이 정업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설한 내용이고, 출가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내용이 추가된다. 출가자에게 불살생에 관해서는 작은 미물이라 해도 죽여서는 안 되고, 불투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훔쳐서도 안 되지만, 비록 자기 것이 도둑맞았다 해도 성내거나 다시 찾으려 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불사음에 관해서도 출가자들에게는 일체의 남녀 간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지금도 남방불교의 출가자들은 이성과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계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이 정업도 팔정도의 세 번째 덕목인 정어(正語)와 마찬가지로 정사유(正思惟)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즉 정어와 정업은 정사유의 결과물인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악업을 십악(十惡)으로 묶었는데, 살아 있는 것을 해치는 것[殺生]·남의 것을 훔치는 것[偸盜]·음란한 행위[邪淫]·거짓말[妄語]·헛되이 꾸미는 말[綺語]·악담[惡口]·이간질 하는 말[兩舌]·성내는 마음[貪心]·화내는 마음[瞋心]·어리석은 마음[[癡心]]의 열 가지이다. 이 중 앞의 세 가지는 몸으로 짓는 악행이고, 그 다음 네 가지는 말로 짓는 악행이며, 마지막 세 가지는 생각으로 짓는 악행에 속한다. 이것을 신구의 삼업(三業)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불제자들에게 이 열 가지 악업을 열 가지 선행으로 바꿀 것을 설법했다.

팔정도의 정사유, 정어, 정업은 각각 의업(意業), 구업(口業), 신업(身業)과 대응을 이룬다. 따라서 정사유는 생각으로 짓는 바른 행위이므로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이는 탐진치 삼독(三毒)에서 벗어난 것을 뜻한다. 즉 번뇌의 왕이라고도 칭하는 삼독에서 벗어나야만 결과적으로 정어와 정업을 이룰 수 있다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가르침인 것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탐하거나, 남에게 원한을 품게 되면 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혹은 원한을 갚으려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과 이간질을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처럼 입으로 짓는 악행과 몸으로 짓는 악행의 뿌리가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사유가 들어서면, 자연히 정어와 정업도 그 결과로서 성취될 수 있다. 즉 정사유라는 참 지혜로써 일체의 잘못된 행동을 끊어야만 청정한 신업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⑰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율장 마하왁가(大品)〉

사슴동산에서 수레바퀴를 굴리시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까지, 부처님께 귀의한 제자들은 60명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60명의 제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뒤, 저 유명한 「전법(傳法) 선언」을 하시었다.

나는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읽을 때마다, 쿵쾅쿵쾅 가슴이 뛰어오름을 어쩌지 못한다. 이 「전법선언」만은 그 중의 한 구절만이 아니라, 온전히 한번 더 읽어보고 싶다. 소리높여 외치고 싶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 그대들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웰라의 세나니마을로 가야겠다."(일아스님 편역,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72-73쪽)

중생들은 '불바라기'이다. 부처님을 향해서만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이 중생들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엄하신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지 않는가. 나를 바라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신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전법선언」은 팔만대장경의 정수(精髓)이다. 팔만대장경은 이 「전법선언」 안으로 다 수렴되고 만다. 우리가 어떤 경전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독법(讀法)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경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법선언"을 겹쳐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전법선언」이 떠올라야 한다는 말이다.

아, 그렇게 중생들에게 법을 전해 주려면 뭘 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직 너무나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답니다. 대개 이렇게 반문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 「전법선언」을 기록하고 있는 율장 마하왁가에서는 당시의 60명 제자들이 모두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 「전법선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셨다고 전한다.

그렇지만 나의 심증(心證), 나의 해석학적 상상력은 좀더 다르게 생각해 보라 말한다. 비록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훈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보다는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율장 마하왁가에 따르면, 그 당시 제자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사성제와 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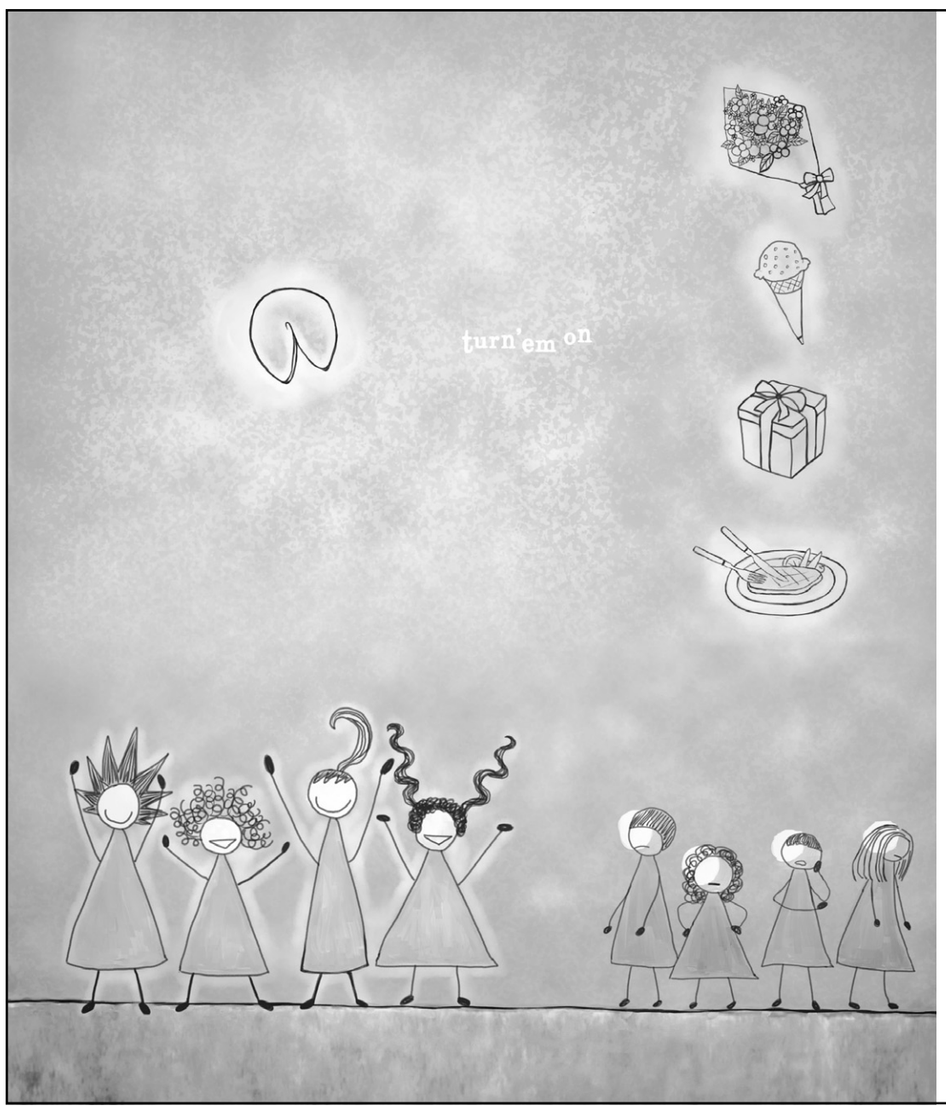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정도의 가르침을 들었을 뿐이었다.

지금 우리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불교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성제와 팔정도와 같은 기본교리는 물론이고,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익혔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하신 부처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것일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막히는 데가 나오고,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때 책을 찾아보자. 또 스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하자. 그러면 좀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더욱 잘 전할 수 있게 되리라.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만 보는 제자들보다는 당신을 등지고 서서, 중생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제자들을 더 이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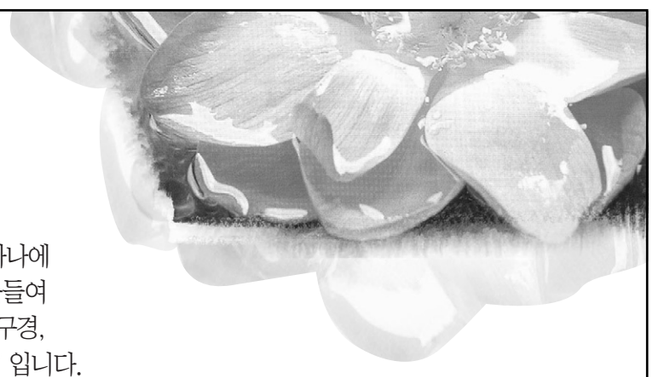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산지 사찰은 샘, 평지 사찰은 우물 조성

우물

우물(井)은 오목한 구멍이란 뜻을 가진 움(穴)에 물(水)이 합성된 말이다. 오목하게 판 구멍에서 나온 물이란 뜻의 '움물'이 변해 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몇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물은 땅 속 일정한 깊이에 있는 물을 얻기 위해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시설이다. 지표면까지 수맥이 노출되어 물줄기가 솟아나는 샘과는 달리 우물은 지표면 하부에 형성된 지하수맥의 물을 끌어올리는 물구멍인 것이다. 과거에는 우물을 파려면 우선 물이 있을법한 곳을 찾아내는 혜안이 있어야 했으며, 사람의 힘으로 땅을 파내려가서 물을 확인한 다음 벽체를 돌로 쌓아 안정시키는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땅을 파내고 벽면에 돌을 촘촘히 붙이는 작업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욱이 상부에 만든 우물틀은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진 석조예술작품인데, 이것을 보면 우물은 우리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창의적 예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우물의 형태는 원형, 사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 다채로우며, 구조는 우물틀을 높게 쌓는 높이쌓기방식과 지면과 거의 동일하게 만드는 낮게쌓기방식이 있다. 우물벽은 돌로 자연석을 이용해서 쌓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물바닥은 원지반을 그대로 두기도 하지만 자갈을 깔아놓은 것도 있다. 우물의 물을 긷는 도구로는 보통 두레박을 사용하는데, 우물 깊이가 깊지 않은 경우에는 두레박에 줄을 달아 사람이 끌어올리게 되나, 우물이 깊거나 편하게 물을 긷기 위해 도르레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농경전서』에는 길고와 녹로라는 물긷는 장치가 소개되어 있다. 길고는 수평저울와 같은 역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두레박의 반대편에 돌을 매달아 물긷기를 용이하도록 만든 기구이며, 녹로는 고패(깃대 따위의 높은 곳에 기나 물건을 달아 올리고 내리기 위한 줄을 걸치는 작은 바퀴나 고리)라고도 하며 길고와 원리가 같으나 보다 진보된 기구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우물의 물을 긷는 그림이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쓰던 길고와 같은 형식의 기구를 통해서 물을 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우물을 만드는 일을 중요하게 취급하였으며, 자리를 잡고 우물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도 정성을 들였다. 민가의 경우에는 우물을 만든 자리가 부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곳이 많았는데, 부엌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좋은 물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이용하였다. 특히 우물의 수질을 제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우물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정하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우물가에 나무를 심는 것도 피했는데, 그것은 나뭇가지에 날짐승이 앉아 물을 더럽히거나 벌레가 물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사찰의 경우를 살펴보면 깊은 산속에 지어진 사찰에서는 석간수를 얻을 수 있는 장치로 샘을 조성한 곳이 많고, 평지에 지어진 평지형 사찰에는 우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속에서는 굳이 우물을 파지 않더라도 좋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평지형 사찰에서는 땅속에 있는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불교전래 초기 도심에 지어진 사찰들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나말여초 사찰이 산지로 옮겨지어지면서부터는 석간수가 고이는 샘을 만들어 물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신라의 옛 수도 경주에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신라시대의 우물들이 여러 개 발견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찰에 만든 우물로는 분황사의 우물인 삼룡변어정(三龍變魚井)과 남간사지의 우물이 대표적이다. 분황사의 삼룡변어정은 우물틀을 화강석으로 높게 만든 높이쌓기형식을 가진 우물인데, 특이한 것은 우물틀 뿐만 아니라 지대석까지도 한 덩어리의 돌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물의 형태를 보면, 우물틀 외부는 팔각형으로 만들고 내부는 원형으로 만들어 매우 독특한 디자인수법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팔정도와 원융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 이 우물의 덮개부분은 없어지고 없으나 만들 당시에는 돌로 만든 덮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물틀 독특한 디자인은 석조예술작품
삼룡변어정 팔정도·원융진리 상징
남간사지 석정은 낮게 쌓기 방식
절이 산지로 가며 석간수이용 우물줄어


경복궁 향원지의 수원으로 쓰이는 열상진원은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남간사지(南澗寺址)에 남아있는 석정(石井)은 남간사에서 사용하였다고 전해지는 우물이다. 남간사는 헌덕왕대 이전에 창건된 사찰인데, 우물 역시 창건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간사가 폐사된 이후 이 우물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남아있는 부재들을 통해서 이 우물의 형식을 살펴보면, 남간사 우물은 분황사 우물과는 달리 지면에서 높지 않게 우물틀을 만든 낮게쌓기방식의 우물로 하부 지대석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 변의 길이가 1.47m 되는 정사각형이고 그 위로 원형의 우물틀을 올렸는데 하부의 지대석과 상부의 우물틀이 통돌로 만들어졌다. 우물틀은 2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윗 단이 아랫단보다 좁게 만든 것으로 언뜻 보면 이중으로 된 테를 두른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만들 당시에는 우물틀 위에 팔각형으로 된 두 개의 돌판을 조합하여 덮개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물 옆에 놓인 덮개돌에 해당되는 부재를 보면, 덮개돌은 가운데 부분에 지름 약 25cm 정도의 구멍을 내어 그곳으로 물을 길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지금은 우물틀 위에 새로 만든 화강석 통을 얹어놓고 상부의 우물덮개는 설치하지 않아서 원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물주변으로는 장대석을 깔았던 흔적이 남아있어 주변도 제대로 마무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환경오염원이 다양화되면서 물 부족현상이 생기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비단 외국의 얘기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에 해당되며, 먹을 수 있는 물이 점차 줄어드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수돗물도 먹기가 꺼려져서 물을 사먹은 것이 벌써 오래전의 일인 것을 보면 향후 물에 대한 문제는 더욱 좋지 않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물을 살펴보면 물이 말라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 많고, 수질이 나빠져서 물을 쓸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찰이 산지로 자리를 옮긴 이후 석간수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찰에서 우물을 파는 일이 적어졌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행주형(行舟形) 혹은 부선형(浮船形)에 해당되는 절터에서는 우물을 파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남아 전해지는 우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찰에 남아있는 우물은 매우 중요하게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것을 옮겨버리거나 메워버릴 경우 그 사찰의 역사성이나 진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분황사에 남아있는 삼룡변어정은 한덩어리로 된 화강석을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전체적인 조각수법이 뛰어나다.


남간사지 석정은 2단으로 된 우물틀위에 팔각형 덮개돌을 덮었던 우물이다.


서울 백련사의 우물은 철제로 만든 덮개를 사용하고 있어 보기에 좋지 않다.


창덕궁 주합루 전면부에 새로 복원된 두개의 우물



7년전 한국 불교계를 흔들었던 화제의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나는 염불삼매 속에서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현지궁현지사 | 387쪽 25,000원 | 초판 6쇄 글·광명만덕, 자재만현
현지궁현지사 | 385쪽 25,000원 | 사판 6쇄 글·자재만현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서 펴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삶과 죽음의 실체를 명쾌히 제시한 큰스님의 사자후!

큰스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스승의 수행일지가 공개된다.

등대을 잃어버린 한국 불교계에 오아시스가 되어줄 화제작!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가까운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http://www.hyunjisa.or.kr 최고의 청정수행도량 현 지 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 대전 분원 042)525-5325

① 만해 기념관, '설중매, 만해 한용운 특별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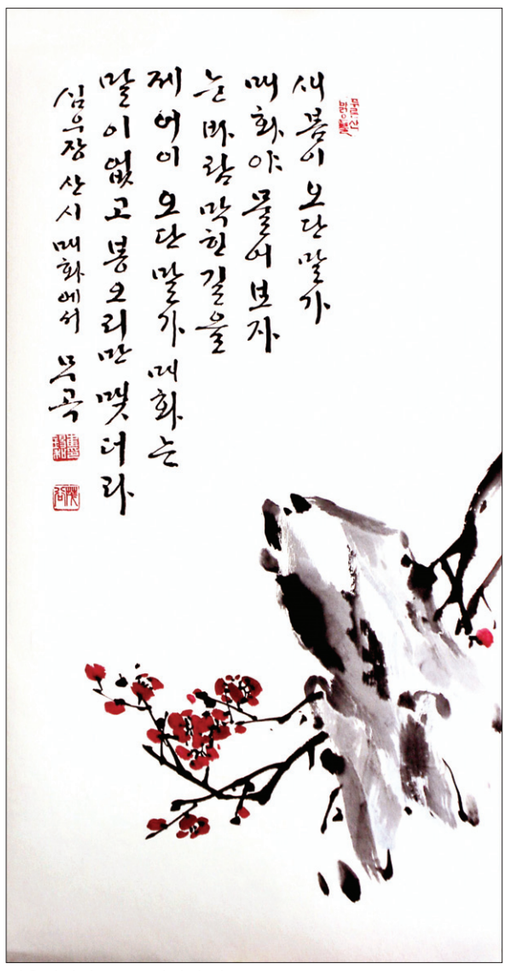


만행을 떠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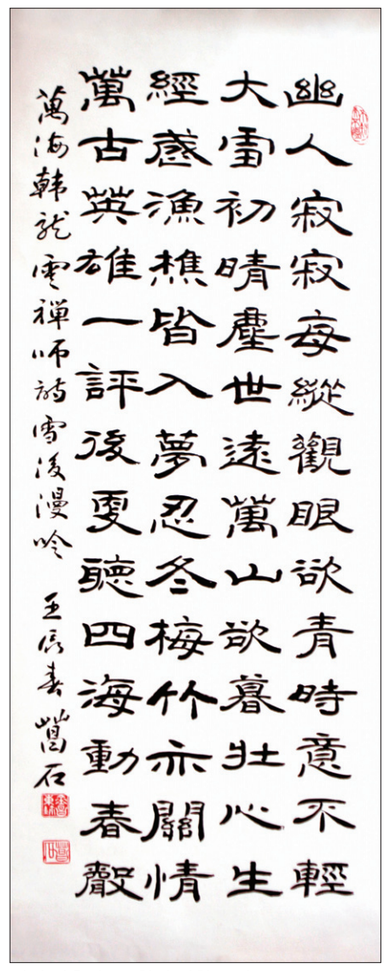
길을 떠납니다. '기룬 님'을 찾아 가는 만행(萬行)입니다. '기룬 님'은 나의 님, 당신의 님, 우리 모두의 님 입니다. 이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님 입니다. 일찍이 만해(萬海) 선사께서 "기룬 것은 다 님이다"라고 말한 바로 그 님을 찾아 천 갈래 만 굽이 길을 갑니다.

만행이라고 하여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떠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방황일 뿐입니다. 만행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선명한 행로를 밟아야 합니다.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님의 손길' '님의 숨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만행입니다.

중생의 고뇌가 끝이 없어 여래의 서원이 무량하고, 중생이 병고에 시달리므로 보살도 아픈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뇌에 차 있어 님도 고뇌의 불덩이를 이고 서 있을 것입니다. 님은 우리의 삶 어느 한 곳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는 이곳이 님의 땅입니다. 그곳은 바로 팔만사천 법문의 현장이기에 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과 희망이 행자(行者)가 만행을 떠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심우장산시 / 무곡 최석화 작



한시 설후만금 / 창석 김창동 작

머리 돌려 삼생(三生)의 일 물으렸더니(回頭欲問三生事)
한 가을 유마(維摩)네 집 반은 꽃 졌네.(一秋維摩半落花)

'관락매유감(觀落梅有感, 매화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이라는 시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만해 스님은 선원 가득 핀 매화를 유마 거사의 뜰에 핀 꽃, 그러니까 '불이(不二)의 가르침'으로 보았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꽃이 반은 져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다가 삼생의 일을 묻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때라니, 성불의 님도, 독립의 님도 아득히 멀기만 했든가 봅니다. 아니면, 지친 영혼을 일깨우는 찬물 같은 역설(逆說)이겠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님은 언제나 먼 곳에 있고, 나는 언제나 초라합니다. 내가 나의 초라함을 보는 순간부터 님은 그리워지고, 그렇게 '기룬 님'은 유마네 집 반은 져버린 꽃으로 다가오는 것이려니….

전시실은 넓지 않으나 한 편 한 편 서화를 감상하는 시간은 알뜰합니다. 그림 속의 글을 찬찬히 읽고, 글씨 속의 문자향을 깊이 되새깁니다. 귀가 먹먹하도록 만해 스님의 법문이 들려옵니다. 그리하여, 이 전시회는 독립된 민족 그러나 분단의 조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릇 망매지갈(望梅止渴) 하는 것도 또한 양생(養生)의 한 방법이긴 할 것인 바, 이 논설(論說)은 진실로 매화나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목마름의 불꽃이 전신을 이렇게 태우는 바에는, 부득불이 한 그루 매화나무의 그림자로 만석(萬石)의 맑은 샘 구실을 시킬 수밖에 없다. ('조선불교유신론' 서문 중에서)

쌓인 눈 찬 바람에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것이 매화라면 거친 세상 괴로운 지경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 용자(勇者)니라. 꽃으로서 매화가 된다면 서리와 눈을 원망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 용자가 된다면 행운의 기회를 기다릴 것이 없느니라. 무서운 겨울의 뒤에서 오는 새봄은 향기로운 매화에게 첫 키스를 주느니라. (논설 '용자가 되라' 중에서)

"아직 배울 것 많으니 할 일도 많아"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은 중학생 때부터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사춘기 때 읽은 만해 스님의 글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은 것인지, 평생 만해 스님 연구와 유품을 모으고 정리하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오랜 바람이었던 〈만해매화첩〉도 제작했습니다. 문인화의 대가 무곡(戊谷) 최석화(崔錫和) 선생이 26편의 매화관련 글을 쓰고 매화도를 그려 넣은 화첩은 '상 하' 두 권으로 엮었는데, 기회가 되면 영인본으로도 제작해 보급하고 싶다는 것이 전보삼 관장의 소망입니다.

"만해 스님의 품은 우주의 넓이입니다. 우리가 스님에게 배울 것이 아직 무궁무진 하니 저의 할 일도 많습니다. 보다 다양한 기획전으로 그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제공=만해기념관

이 봄, 님은 매화 향기로 오셨습니다

봄비 그리고 남한산성

자분자분 비가 내립니다. 한껏 피었던 꽃잎들이 지는 동안, 연둣빛 잎들이 자라는 소리가 두런두런 숲을 흔듭니다. 산성마을로 올라가는 굽잇길에 이렇게 봄비가 내린 날이야 무수하겠지만, 오늘 행자의 몸을 적시는 비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인연(因緣)이어서 한 나절 내리는 비도 어디서 맞느냐에 따라 감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5월의 남한산성은 그야말로 꽃대궐입니다. 개나리 진달래의 원색에 벚꽃과 목련의 화사함이 마을을 극락으로 장엄하고 있습니다. 성곽과 문화유산들이 정비되고 길이 넓어지며 산성마을은 유래 없이 정갈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정하는 '세계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입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그러하듯, 산성마을을 지나간 시간도 영광과 저항으로 직조(織造)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백제 온조왕의 비원과 푸른 기상이 부풀었던 곳, 신라 문무왕의 통일 의지가 견고한 성으로 쌓아졌던 곳,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거센 광풍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곳입니다. 성불(成佛)보다 구국(救國)이 우선이었던 시절, 목탁과 염주 대신 곡괭이를 들은 스님들이 성을 쌓았습니다. 남한산성은 사명대사와 벽암 각성 스님의 자비와 지혜가 스민 곳입니다. 1919년에는 만세 소리가 성곽을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저항의 인자(因子)는 시간을 초월해 전승되는 겁니다.

병자호란의 굴욕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탓인지, 자칫 남한산성을 치욕과 비운의 공간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목숨을 던져 국운을 지킨 곳이고, 지키고자 저항한 곳이고, 지켜서 영광스런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시 논설 속 매화 담은 서화 26점 전시
만해의 생애 통해 자신 돌아보는 계기
5월 31일까지, '만해매화첩'도 제작

만해기념관의 황매 향기

남한산성에 만해(萬海) 스님이 있습니다. 성불의 님, 독립의 님, 평화의 님을 향해 침묵의 웅변으로 살았던 선각자의 체취가 있습니다. 고찰을 찾아가는 고즈넉한 마음으로 만해기념관을 찾아 갑니다. 5월 한 달 만해기념관은 매화향기의 극락입니다. 마당 가득 핀 황매는 봄꽃들을 숨죽이게 하는데, 전시관 안에도 온통 매화입니다.

'설중매, 만해 한용운 특별기획전'

만해 스님이 남긴 시와 논설에 매화가 주제나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모두 26편. 그 구절들이 서화(書畵)로 구현되어 만해 스님의 정신을 새롭게 느끼도록 하는 전시입니다. 1998년 개관한 만해기념관은 수시로 기획전을 열어 왔지만, 이토록 신선한 향기로 만해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모두 54점의 서화가 선보입니다. 제1부 '만해와 매화'에서는 만해 스님의 글을 제재로 한 문인화와 서예 작품들이, 제2부 '선비와 매화'에서는 조선 중 후기에 그려진 매화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념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내내 작품들을 바꿔가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매화는 한글로 쓴 시와 논설, 한시와 선시 등에 다양한 향기로 피어 있습니다. 한 겨울의 고난 속에서도 만리향을 피워내는 매화는 만해 스님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석전 박한영 스님은 만해 스님이 지나가면 "어이, 저기 설중매가 지나가네"라고 말하곤 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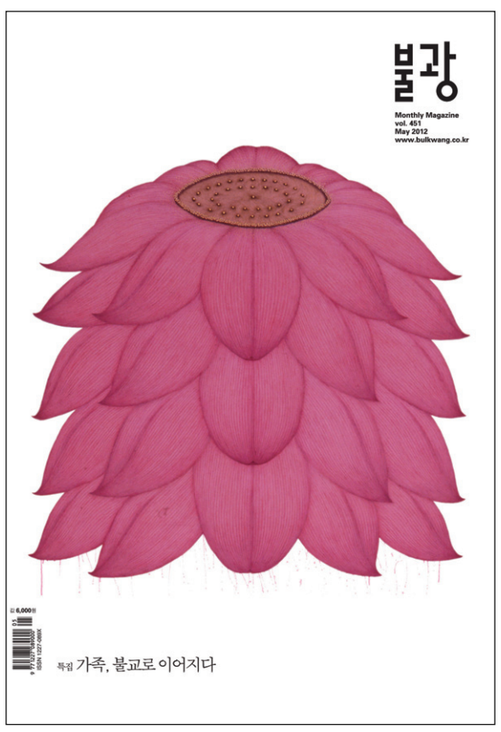
전시실을 가득 채운 매화도에서는 마당에 핀 황매만큼이나 진한 향이 느껴집니다. 활달한 필법으로 구현된 시편들에서도 서권기가 넘치니, 만해 스님의 우렁찬 웅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만해 스님의 생애는 아직도 진하디 진한 향기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음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

내 자신 초라함 보는 순간 님 그리워져
활달한 필법 시편에선 서권기 넘쳐
만해 스님의 품은 우주의 넓이

우주의 크나큰 조화로 하여(宇宙百年大活計)
선원(禪院) 가득 예전대로 매화가 벌어(寒梅依舊滿禪家)

가정의 달에 생각해보는
'불교와 가족'

이름만 들어도 불자와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 관응 스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 스님의 딸들도 출가하여 구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생각해보는 '불교와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불광」 5월호에서는 이 주제를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
6남매 모두가 출가해 수행하고 있는 중앙승가대 본각 스님네 이야기는
읽는 이에게 뭔가 모를 감동을 안겨줍니다. 한 살 터울 자하 · 야허 스님은
같이 출가해 도반이 되었습니다. 몽고에서 온 다시카 스님과 체렝바트 씨 형제와
유인길 · 이옥선 부부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가족의 행복이 바로 극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2. 5. (통권 451호) 표지

특집 | 가족, 불교로 이어지다
화보
형제에서 도반으로 | 자하 · 야허 스님
함께 가는 길
한국에서 느끼는 세계일화 | 다시카 스님 · 체렝바트 씨 형제
가족이 함께 꿈꾸는 또 다른 세계 | 유인길 · 이옥선 부부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본각 스님 인터뷰
가족에서 도반으로 이어진 60여 년의 세월
가족과 불교
행복은 가족의 소통에서 온다

5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듣는
'내가 만난 불교' 길에서 만난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혜민 스님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
'인연 따라 마음 따라' 찾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지권 작가의 지구촌 불교 성지
미얀마 마하시 선원의 탁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례"

이외에도 ●진광 스님의 '강원일기' –빛으로 오시고 바람으로 오신 부처님 ●월암 스님의 『유마경』산책–침묵으로 불이(不二)의 경계를 설하다 ●법인 스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엿보이는 '병 주고 약 주기' –사유하지 않는 죄 ●정우 스님의 '살아 있는 명법문' –참마음 일으켜 우리도 부처님처럼 ●김정호 교수의 '행복심리학' –나의 직업은 나에게 무엇인가? 등 명쾌하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칼럼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간「불광」 구독 문의 Tel.(02)420-3200 www.bulkwang.co.kr
1년 정기 구독료: 60,000원 1권: 6,000원(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월간 「불광」 어플리케이션 출시 _ 월간 「불광」을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오인'을 통해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각종 기기에서 월간 「불광」을 보실 수 있으며, 아이패드 전용 '매거진 플러스'를 통해 본문과 함께 각종 사진과 동영상을 추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7)

신심이 보리수 잎처럼 무성해지네

시간의 덫을 벗어난 인도인의 행복

버스는 어김없이 아침 6시에 보드가야(Bodhgaya)로 출발한다. 보드가야의 옛 이름은 부다가야(Buddhagaya)이다. 서둘러 가는 까닭은 보드가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이다. 보드가야에도 아쇼까왕의 유적이 있다. 아쇼까왕은 수자타가 살았던 마을에 수자타스투파를 조성했고,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장소에 사원과 석주를 세웠던 것이다. 보드가야가 다른 곳보다 더 의미가 깊은 것은 아쇼까왕의 첫 순례지이기 때문이다. 아쇼까왕은 재위 8년에 깔링가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 부처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던바 재위 10년에 첫 순례지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보드가야를 향해 떠났던 것이다.

버스는 사르나트 시가지를 벗어나는가 싶더니 이내 멈춰버린다. 인도 여행하다 보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답사일정에 큰 차질을 줄 것 같다. 사고가 났는지 자동차들이 4km이상 줄을 서 있다. 이 정도면 네다섯 시간 정도는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교통당국에 항의가 빗발칠 것 같은데 인도는 정반대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길가로 나와 담배를 피우거나 노닥거린다. 시간의 덫을 벗어나버린 모습이다. 그렇다. 길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따분할 것이고 담소할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즐거울 것이다. 차츰 답사일행도 적응을 한다. 누구라도 마이크를 잡고 무료한 시간을 법담으로 날린다. 대요스님이 먼저 분위기를 돋운다.

3년 묵언수행을 마치고 한겨울에 서울 화계사로 숭산스님을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목욕탕에 들렀다가 목욕한 뒤 옷을 입으려고 할 때였다. 옆에 서 있던 25세쯤 되는 청년이 다가왔다. 청년이 물었다.

"스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발가벗은 상태였다. 청년은 대요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탈의한 상태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에게는 절실했던 모양이었다.

"어제는 손이 깨끗했는데 오늘은 왜 더럽습니까?"

"그럼, 나도 한 마디 묻겠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십시오."

"어제 깨끗한 손은 어디서 왔으며, 오늘 더러운 손은 어디서 왔느냐?"

청년이 즉시 대답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져와봐라."

청년은 대답을 못했다. 충격을 받고는 대요스님이 옷을 다 입고 목욕탕을 나설 때까지도 그대로 서 있었다. 스님이 발가벗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려주자 그제야 움직였다.

부처님처럼 네란자라강 건너 수자타 마을로

답사일행이 우여곡절 끝에 보드가야에 도착하여 하룻밤 묵고 찾은 곳은 부처님이 6년 고행했던 유영굴이다. 버스가 갈 수 없는 곳이므로 승합차에 분승하여 유영굴(留影窟)이 있는 전정각산(前正覺山)으로 달린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정진했던 산이라 하여 붙인 이름인데 코끼리 머리 형상이므로 상두산(象頭山)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둔게스와리(Dungeshwari)라고 부른다. 유영굴 산자락 밑에서 승합차가 멈추자 가마꾼들이 달려와 '둔게스와리, 둔게스와리!' 라고 외치며 호객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고행한 성소를 답사하면서 어떻게 가마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일행은 가마꾼들을 뒤로 하고 산길을 오른다. 전정각산은 동굴이 많은 바위산으로 산자락은 시다림 즉 공동묘지였고 묘지 부근에는 불가촉천민들이 살아왔다고 전한다. 그런데 전정각산과 보드가야 사이로 흐르는 네란자라강 주변은 토지가 비옥하여 잘사는 수자타마을 등이 있었으므로 수행자들이 탁발하기가 좋았다고 한다. 부처님이 고행하는 동안 시봉했던 다섯 비구 등이 이곳에서 수행했던 까닭도 주거공간인 동굴이 있고, 목욕할 수 있는 강이 있고,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가깝기 때문이었을 터이다.

현재 유영굴은 티베트 스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티베트 고승들의 사진이 사원 벽에 붙어 있다. 일행은 바로 유영굴로 들어가 참배한다. 유영굴 바로 옆 작은 동굴에는 부처님 고행상이 봉안돼 있다. 잘 알다시피 부처님이 선택한 고행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호흡을 멈춤으로 해서 몸 안에서 불벼락이 치는 등 극단의 고통을 겪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식으로 인한 고행이었다. 하루에 보리 한 알에서 쌀 한 알로, 다시 삼씨 한 알로 줄이어 배와 등뼈가 찰싹 달라붙었고 피부는 검은 빛깔로 변해버렸다. 굴 안에 봉안된 고행상은 당시의 부처님 모습을 재현한 것이리라.



아쇼까왕이 부처님의 정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보드가야 대탑과 보리수. 아쇼까왕의 첫 순례지인 이곳 대탑 앞에는 2천년 시간을 건너 전 세계 각국 불자들의 순례 행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아쇼까 석주는 대탑 왼쪽에 있다.



네란자라강을 건너는 인도인들. 부처님도 이 강에서 목욕한 뒤 수자타의 마을로 걸어가셨을 것이다.

부처님 정각 기린 마하보디 사원
세계 각국 순례자 '형형색색' 장엄
한글 반야심경 독송하니 법열 젖어
고행처 유영굴서 '중도' 의미 되새겨

그러나 부처님은 고행만으로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사해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고행을 미련없이 버린다. 굴을 나와 네란자라강으로 간다. 목욕한 뒤 수자타가 공양하는 우유죽을 먹고 힘을 낸다. 그리하여 농부에게 길상초를 얻은 뒤 찾아간 곳이 보리수다. 왜 하필이면 보리수를 찾아가 그 그늘에 길상초를 펴고 앉았을까? 부처님 고행상 앞에서 문득 솟구치는 나의 의문이다. 인도에는 반얀나무나 잠부나무, 전단나무나 림나무 같은 나무가 많은데 왜 보리수를 선택하여 가셨을까 하는 의문인 것이다.

굴 밖으로 나오니 아직도 티베트 스님들이 경전을 외고 있다.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특징은 오체투지이거나 경전독송이다. 일행은 홍차에 우유가 섞인 달달한 짜이를 한 잔씩 마시며 유영굴을 내려선다. 부처님이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고 네란자라강을 건너 수자타마을을 들렀다가 보리수로 가셨듯 일행도 그 길을 걸어서 가보기로 한다. 마침 갈수기여서 강을 건너기에 안성맞춤이란다.

강을 건너기 전에 움막 같은 집들을 지나 작은 학교가 나온다. 20세 안팎의 청년이 선생인 모양이다. 코흘리개 아이들이 마당에 세운 칠판 앞에서 공부하고 있다. 오목한 능선을 넘는 길이 네란자라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뒤돌아보니 산봉우리 형상이 거대한 코끼리 머리 모습이다. 인도를 다녀온 옛 구법승들이 왜 상두산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강을 건넌다. 네란자라강 역시 파트나 부근에서 강가강과 합류한다고 한다. 발바닥에 닿는 강물 속의 모래가 부드럽다. 강은 대지가 두른 인도여인의 사리 같다. 부처님은 이 강에서 목욕한 뒤 대지에 입 맞추듯 한 걸음 한 걸음 수자타가 사는 마을로 걸어가셨을 터이다. 수자타는 대목장 주인이자 장군의 딸로서 신분은 크샤트리아였다. 그러고 보니 아쇼까왕도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아쇼까왕은 부처님께 우유죽을 공양한 수자타를 기리기 위해 스투파를 조성했던 것이다. 답사일행은 네란자라강을 건넌 뒤 곧장 수자타 스투파 쪽으로 간다. 도중에 수자타사원을 지나쳤는데 사원은 볼품이 없었다. 수자타상이 있었지만 조악하여 고개를 돌리고 말았던 것이다.

부처님 정각지서 담마순례 시작한 아쇼까왕

스투파를 참배하고 나오니 버스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버스는 이제 일행을 태우고 마하보디 사원으로 이동한다. 마하보디 사원은 아쇼까왕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장소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사원이다. 현재의 모습은 굽타왕조 때 중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스는 마하보디사원이 자리한 언덕 밑에서 멈춘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 아난존자에게 네 곳을 기억하라고 했다. 룸비니와 보드가야, 사르나트와 쿠시나가라 등 이른바 4대성지다. 이윽고 일행은 동향(東向)의 마하보디 사원 입구에 와 있다. 마하보디 대탑이 예전에는 노란 빛깔이었는데 시멘트로 보수했는지 회색빛깔이다. 탑돌이 하는 각국의 순례자들로 대탑 둘레는 형형색색의 물결이다. 일행은 사원으로 들어가 한글반야심경을 독송한다. 일행 중에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인다.

보리수는 대탑 뒤편에 있고, 아쇼까 석주는 왼편에 있다. 일행은 아쇼까왕 석주를 먼저 참배한다. 그런데 석주에 각문이 없다. 알고 보니 일행 앞에 있는 석주는 원래의 것이 아니란다. 보드가야 외각의 박로르(Bakror) 마을 부근에서 발견된 두 토막 중에서 큰 것이라고 한다. 원래의 석주라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곳이라는 각문과, 여기서부터 담마순례를 시작한다는 각문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다.

일행은 기대를 접고 보리수 아래로 가 좌선에 든다. 보리수는 언제 보아도 잎들이 무성하다. 새들이 가지마다 앉아서 우짖고 있다. 일행 모두가 보리수의 기운을 받아 좌선삼매에 들었는지 미동도 않는다. 우짖는 새들의 소리가 좌선을 흩트리지 못한다. 인도수행자들이 보리수를 사랑하는 까닭은 24시간 맑은 기운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나무와 달리 보리수는 24시간 산소만 내뿜는다는 것이다. 신심이 보리수 나뭇잎처럼 무성해짐을 느낀다. 부처님이 왜 4대 성지를 기억하라고 했는지 깨달아진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부처님께 우유죽을 공양한 수자타를 기리기 위해 아쇼까왕이 세운 수자타 스투파

www.minjoksa.org

경허선사가 살아 있다면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버트 서먼 교수의 내한 인터뷰 중에서)



"만공이 스승 경허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술이 있으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합니다만,
스님은 왜 그렇게 술을 드시는 겁니까?"
경허는 만공의 말꼬리를 끊으며 말했다.
"허 참, 자네는 아주 도가 높네 그려. 나 같으면 술을 먹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밀씨를 구해서 잘 키워 술을 빚어서 마시고
또 마시겠네. 또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파씨를 구해다가
잘 가꾸어서 파전을 먹고 또 먹겠네." "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경허」

글 · 일지 | 352쪽 | 13,000원 | 소프트양장(150×208mm)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간·화·선·수·행



간화선 수행의 교과서, 무문관
무문관 참구

장휘옥, 김사업 제창 | 416쪽 | 22,000원 | 양장, 175×230mm

10년 전,
두 사람은 수행을 위해
잘나가던 동국대학교 강단을 떠나
외딴 섬 오곡도로 들어갔다.
……
번쩍, 몽둥이가 날아오고
물컵에 담긴 물이 꽁꽁 얼 정도로 추운
선방에서
화두를 뚫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⑤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기법정교 보존완벽한 비로사 벽화

중국 하북(河北)성의 성도인 석가장(石家庄)에는 오래된 불교사원인 비로사(毘盧寺)가 있다. 비로사는 예로부터 많은 고대 벽화를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며, 당(唐)나라 때 건설돼 12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이다. 이곳에 보존된 벽화들은 대부분 14세기 초에 조성된 작품들로써 중국의 고대벽화 중 귀중한 작품으로 인정된다.

200㎡의 면적을 차지하는 비로사의 벽화는 내용도 풍부하고 벽화기법도 정교하고 뛰어나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벽화의 하나로 평가된다.

비로사에 가기 위해 호텔에서 싸준 도시락으로 아침밥을 준비하고 이른 새벽에 호텔을 출발해, 고속도로를 3시간여 달린 끝에 아침 9시를 넘겨 비로사에 도착했다. 비로사에 들어서기 위해 일주문을 통과하는데 이곳도 역시 조박초 회장의 휘호로 비로사라는 편액이 만들어져 있다.

2004년 5월 21일 세상을 떠난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은 20년동안 중국불교협회 회장에 재임하면서 중국불교 중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문화혁명이후 사실상 사장(死藏)되고 금지되었던 불교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 회장은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조 회장은 "불제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며 추도식을 일체 금했고, 자신의 시신을 해부 연구용으로 병원에 기증하는 등 대승보살로서의 자비행을 보여 중국 불자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일주문을 지나자 석가전(釋迦殿)이 우리 일행을 맞아줬다. 비로사에는 스님들이 상주하지 않고, 관리인들이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분주하게 여럿이 열쇠 꾸러미를 가져와 전각의 문을 열어줬다.

비로사와 룡흥사, 무강 연화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번 일정에는 한국 고판화학회와 깊은 교류 관계가 있는 보송년 북경 중앙미술학원 명예교수가 팔십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동참해 열심히 현장 답사를 지도했다. 지금까지 보 교수는 중국 민간연화 학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번 학술답사를 통해 중국 민간미술사가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설명하는 해박한 해설은 일행을 중국 고미술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 수 있게 했다.

석가전에는 수미산을 배경으로 석가모니불을 주존불로 모시고 있으며, 토불(土佛)로 명나라 때 조성된 작품이다. 협시불로는 가섭과 아난존자가 모셔져 있으며 근래에 조성된 작품이라고 한다. 석가전 뒷면에는 토불로 관음, 문수, 보현보살상이 보타락가산을 배경으로 조성돼 있으며, 석가전 전체 벽면에는 세 가지 주제로 벽화가 그려져 있고, 벽화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건물이 기둥을 없앤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생에서 열반까지 석씨원류의 이야기가 표현돼 있으며, 두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本生譚, 불타의 전생이야기)이 그려져 있다. 세 번째는 불교와 중국 전통의 유교, 도교, 민간신앙이 서로 접목된 형식을 취했다. 특히 이 벽화는 인물의 복식이나 건축물은 명나라 때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양식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표현한 석씨원류 부분은 태자의 모습이 인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중국화 된 모습이어서, 명나라 때 제작된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源流應化事蹟, 부처님일대기와 조사들의 이야기 중 한 장면을 1도 1문식 삽화로 만든 책) 삽화본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같은 석가전의 부처님 일대기 벽화를 통해 고판본의 삽화와 불화는 상호 연관돼 왔다는 점도 확인됐다. 실제 답사를 통해 불화에서 없어진 초본을 판화 삽화본에서 찾을 수 있었고, 반대로 판화에서 없어진 부분을 불화에서 찾을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돈황(敦煌)의 막고굴(莫高窟) 벽화와 북경 법해사 벽화, 산서성 영락궁 벽화와 어깨를 겨루는 비로사의 벽화는 중국 벽화예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로사 벽화는 지방의 민간 화가들에 의해 조성돼, 중국의 고대사회의 생활과 풍속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비로사 벽화의 아름다움은 비로전 벽화에서 더욱 알차게 나타나 있다. 비로전은 지상으로부터 1m 높이의 계단 위에 세워져 있었고 용마루 양끝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으며, 처마는 날아갈듯 하다.

비로전 벽화에 대해 박도화 동국대 교수는 "벽화는 상중하 세열로 나눠 각각 극락, 인간, 지옥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한과 보살, 충신을 비롯한 508명의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이 비로전의 벽화는 수륙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되는 수륙화"라며 "내용은 중국의 불교, 유교, 도교, 민간 제신을 비롯한 충신, 열녀 등 508명의 인물 하나하나에 이야기와 전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로전의 벽화 중 북쪽은 불교가 중심이고 동쪽과 서쪽은 도교의 인물을, 남쪽은 일반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도교인물로는 옥황대제, 현문상제, 오방오제, 관우상 등 다양한 주제로 벽화가 모사됐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관우상은 삼국지 등장인물과 함께 청색을 위주로 역분첩금(瀝粉帖金, 돌가루를 액체로 만들어 조금씩 그림위에 선을 만들고 그 위에 금박을 입히는 것)기법으로 조성됐다.

주홍색과 녹색 위주의 색감으로 조성된 벽화는 삼단으로 구성된 벽화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중간 중간에 뭉게구름이 피어나듯이 모사됐다. 인물들 모두 섬세한 필치로 표현됐으며, 무엇보다 하단 신상들의 사실적 표현은 가히 압권이다. 이는 한국 감로탱의 표현과 자못 흡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비로전의 벽화는 중국 고대 벽화의 전통기법을 이어받아 선의 흐름이 시원하고 색채가 산뜻하며 인물형상이 생생하다. 사용한 안료도 석채 위주로 조성이 되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아름다운 색감을 유지하고 있다.

아름다운 비로사 벽화를 보고 나니 문화대혁명 기간에 많은 문화재와 사찰이 파괴돼, 중국불자들의 신심을 이끌어낼 만한 성지가 별로 없다는 선입관은 자연스럽게 깨졌다. 도리어 한국불교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국 사찰 순례를 부지런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석가장의 최고의 대찰인 룡흥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 · 박도화 · 정찬민

석가전 벽면에서는 석씨원류와 본생담 · 유불선 그림 만날 수 있어

부처님 일대기 벽화와 고판화 삽화 상호 관계 밀접

508명 인물그린 비로전 수륙화 섬세한 필치 · 색감 조화 압권

석채 안료가 긴 세월 유지 14세기 초 생활사 연구에도 도움



유불선 습합을 보여주는 비로전 벽화의 관우상. 역분첩금(瀝粉帖金)이라는 독특한 표현기법이 사용됐다.



비로사 비로전 벽화에 그려진 인로왕보살. 508명의 인물이 섬세한 필치로 표현된 도상들이 가히 압권이다.



중국 고승들이 그려진 비로사 비로전 벽화

한국고판화학회 회원들이 비로전 벽화를 현장 답사하고 있다.

옴마니반메훔 윤장대 & 연꽃 마니차

이제 입춘일부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돌려 주십시요!

사업재수운, 금전재물운을 불러들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총명하게 돌려줍니다

• • •

팔만대장경전을 넣어둔 책장을 의미하는 윤장대, 또는 법륜대라고도 하는 이 법구는 한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쌓이고, 업장소멸이 되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머무는 장소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호운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이 윤장대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영업장소, 기수련원, 가정의 거실, 학생공부방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윤장대는 1.5V소형건전지 내장하여 돌리고, 연꽃 마니차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태양열로도 돌며,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출입왕래재수가 원할해져서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됩니다.
[사찰에 신도 개인인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윤장대 사이즈 | 높이 17×둘레 12cm / 가격 | 98,000원
마니차 사이즈 | 높이 15×둘레 10cm / 가격 | 68,000원(사찰스님20%할인)
제조원 | 티벳 / 수입처 | 룽다원

입금계좌 농협 302-4233-7099-41
전화 010-4233-7099

세계 최초 출현
금강저 108 염주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만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하였는데, 금번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 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돋우게 하여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 업장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백팔금강저
가격 240,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전화 : 010-4233-7099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 흘린 뜻 아는가”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㉙ 수법제자 만공 스님

‘만법귀일 일귀하처’ 초견성한 사미
“불속에서 연꽃이 피었구나”
경허 스님 점검후 ‘무’자 화두 참구
대오각성 ‘만공’ 법호와 전법게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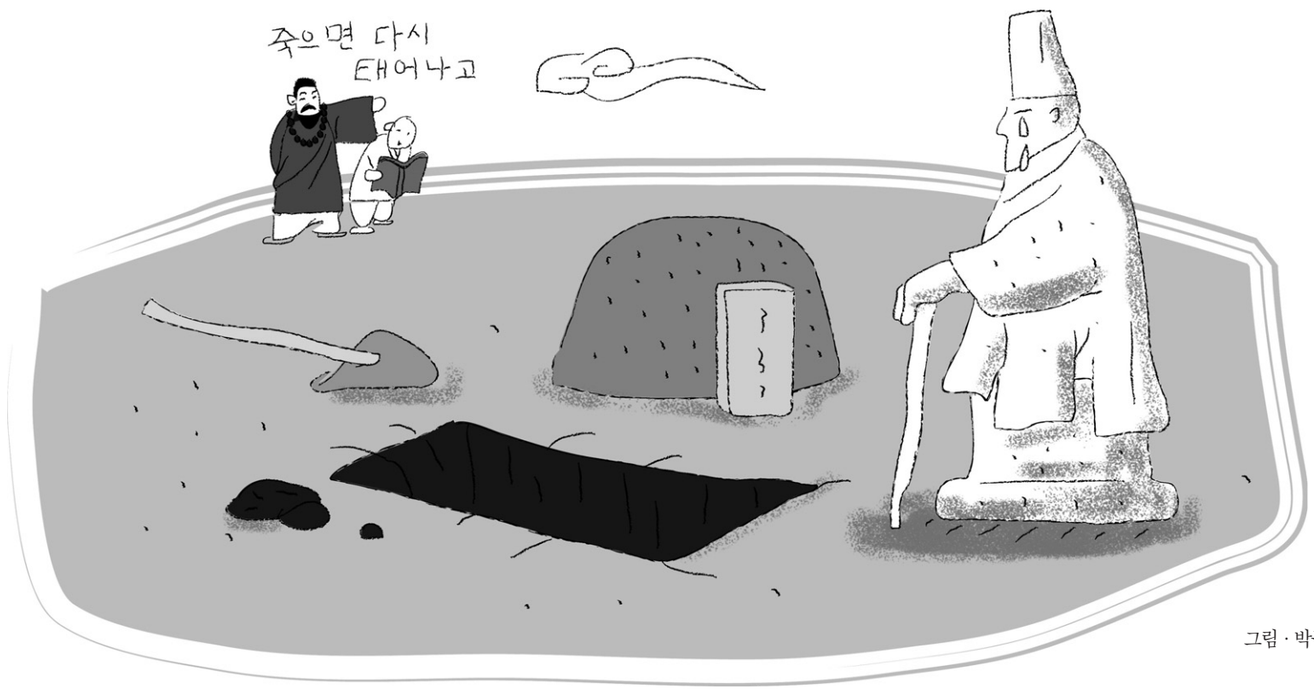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14세에 경허 스님과 맺은 법연으로 수법제자가 된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과 얽힌 일화를 가장 많이 남기고 있다. 오늘날 경허 스님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만공 스님의 역할이 크다.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문, 시문, 오도송, 게문, 결사문 등을 분류해 문집을 만들었다.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의 법제자가 된 것은 18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공 스님은 1884년 천장암에서 태허 스님을 은사로, 경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월면이란 법명을 받았다. 당대 선지식으로 널리 알려진 경허 스님은 운수행각을 위해 천장암을 떠날 때가 많아 배우고 익힐 기회를 얻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천장암에서 10년 동안을 부목과 공양주와 같은 궂은일을 하며 보낸 사미승 월면은 23세가 되던 1893년 음력 동짓달 초하룻날 밤에 우연한 기회로 화두에 들게 된다.

월면은 천장암을 찾은 한 앳된 청년과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됐다. 얇은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쳐들어 절로 이불깃을 여미게 하는 밤이었다.

“월면 수좌 주무십니까?”

깊은 밤 청년이 월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막 잠에 빠져들려 했던 월면이 청년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웠다.

“스님, 아직 안 주무시면 뭐 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나한테 뭘 물으시려 한다구요?”

“예, 스님께서는 출가하신지 오래되셨으니까 알고 계실 듯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萬法歸一 一歸何處)’라는 뜻을 알고 싶어 그럽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그러나 월면은 그 말이 생소했다. 깨달음을 얻겠다고 출가해 10년을 가까이 절밥을 먹고 있었으나 그 말조차 처음 듣는 것이었다. 월면은 밤을 새우며 만법귀일 일귀하처에 대해 생각했다. 그날 밤을 꼬박 새운 월면은 결국 천장암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조주 화두에서 비롯된 이 공안은 월면이 타파해야 할 화두가 됐다. 날이 밝기 전 천장암을 떠나기로 한 월면은 법당을 향해 합장 배례로 인사를 대신했다. 천장암을 나온 월면은 가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절문을 나서는 것도, 아버지 같이 따르던 태허 스님을 떠나는 것도 월면에게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못했다. 월면의 더운 가슴은 진리를 깨우치고 말겠다는 구도자로서의 사명감만으로 벅차올랐다.

어두컴컴한 새벽, 바랑 하나를 어깨에 걸머진 월면이 걸어 도착한 곳은 온양 봉곡사였다. 월면은 봉곡사 법당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노전을 맡았다. 월면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화두 타파를 위해 용맹정진했다. 그러나 화두는 진전이 없었다. 그럴수록 월면의 수행은 더욱 철저해졌다.

봉곡사에 온 지 두 해째 되던 해 초가을 새벽이었다. 면벽하고 있는 월면의 눈앞에 갑자기 벽이 무너져 내리며 찬란한 빛과 함께 큰 일원상 하나가 나타났다.

순간 월면은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했다. 천장암을 떠난 2년 동안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화두가 월면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용솟음쳐 올라와 타파된 것이다. 깨달음의 기쁨에 찬 월면은 다음날 아침 대중들에게 밤새 자신이 겪은 것을 말했다.

“여보게, 내가 어제 갑자기 벽이 무너져 내리며 눈앞에 큰 일원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네.”

그러나 월면의 말을 아무도 곧이듣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미친 놈 취급을 할 뿐이었다.

더 이상 봉곡사에 있을 수 없게 된 월면은 떠날 결심을 했다. 월면이 닿은 곳은 공주 마곡사였다. 마곡사에서 만난 보경 스님은 월면의 법기를 알아보았는지 행장을 꾸리던 월면에게 자신이 공부하던 토굴을 선뜻 내주었다.

월면의 정진은 마곡사에서 계속 됐다. 보임을 위해 토굴로 들어간 월면은 다시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잡고 공부했다.

마곡사 토굴에서의 보임 생활이 2년이 되던 해, 경허 스님이 월면을 찾아왔다. 그동안의 공부 얘기를 들은 경허 스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공부를 많이 했구나. 화중생련(火中生蓮)이라, 불속에서 연꽃이 피었구나”

말을 마친 경허 스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등토시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고?”

당시 무더운 여름이었다. 경허 스님은 옷 속에 등나무로 만든 등토시를 입고 있었다. 경허 스님이 등토시를 가리키며 물었다.

“등토시입니다”

경허 스님이 이번에는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더냐?”

“예, 그 것은 부채이옵니다”

“그럼 여기 등토시 하나와 부채 하나가 있는데 토시를 부채라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부채를 토시라고 하는 게 옳겠느냐?”

“토시를 부채라 하여도 옳고 부채를 토시라 하여도 옳습니다”

경허 스님은 다시 물었다.

“그럼, 다비문(茶毘文)을 본 적이 있던가?”

“예, 본 적이 있사옵니다. 스님”

“그 다비문에 유안석인 제하루(有眼石人 齊下淚),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구절이 있거늘 이 무슨 뜻인고?”

월면은 그 구절을 알고 있었으나 뜻을 새기지는 못하였다.

“잘 모르겠사옵니다” 순간 경허 스님의 주장자가 사정없이 월면을 내려쳤다.

“네 이놈! 그것도 모르면서 어찌 부채를 토시라 하고 토시를 부채라 할 수 있단 말인고?”

경허 스님은 당시 만공 스님의 깨달음이 활연대오(豁然大悟)에 미치지 못했음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경허 스님은 월면에게 ‘무(無)’자 화두를 주었다.

월면은 경허 스님이 떠난 후 토굴에 들어가 용맹정진에 들었다. 그러나 월면의 화두참구는 진전이 없었다.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것을 중단한 월면은 경허 스님이 있는 부석사로 향했다. 월면은 1897년 범어사로 떠나는 경허 스님을 쫓았으며 이어 양산 통도사 백운암에서 정진을 계속했다. 어느 날 새벽, 월면은 범종소리와 함께 사방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다.

월면은 두 손을 모아 합장 배례했다. 오랜 참구 끝에 얻은 깨달음이었다. 월면은 경허 스님이 있는 방향을 향해 세 번 절을 올렸다. 수년 후 월면을 만난 경허 스님은 월면이 활연 대오했음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만공(滿空)이라는 법호와 전법게를 내렸다. 제자 만공을 바라보는 경허의 마음은 흐뭇하게 그지없었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원효종 종도여러분께 알립니다.

저희는 대한불교 원효종 종단에서 오랫동안 수행정진을 해왔으며, 지금은 종단의 임원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단의 임원으로 일하는 동안 종단의 책임자이신 총무원장께서 종단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추락해가는 종단을 바로 세우고자 저희들이 종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히 장군죽비를 들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총무원장의 비위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 종단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인내해 왔습니다만 지난날의 잘못된 과오를 참회해야 할 총무원장께서 적반하장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파사현정의 자세로 다음과 같이 총무원장의 비위 사실을 알리고 종도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고왕사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에 고왕사 창건주의 뜻에 반하여 K스님을 주지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은 K스님 으로부터 일금 일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바 종도들의 고소로 인해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혐의로 재판계류 중이며 검사구형(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재판은 2012년 5월 10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본래 원효종단의 사찰이었으나 본 종단의 관리 소홀로 인해 타종단에 소속되어 있던 원주 소림사는 본 종단 종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본 종단의 소유로 귀속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총무원장은 위 소림사가 본 종단으로 귀속 되자마자 소림사를 담보로 해서 24억 원이라는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종단의 재산을 지키려는 종도스님 몇 분이 원효종단의 구종 차원에서 본 종단의 총무원장을 고소하였으며 현재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3. 울산광역시 소재 남산사에 주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여 종도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현재 울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4.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대전리 소재 보문사에서는 지난 2010년 주지로 계시던 강설스님께서 입적을 했습니다.

그 후 종단에서는 새로운 주지스님을 발령해서 보문사를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급기야 본 종단과 전혀 무관한 속인이 보문사를 점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종도들이 현재 보문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해서 보문사를 되찾자고 총무원장께 여러 차례 건의 했으나 총무원장은 이를 묵살함으로써 현재 보문사를 점유하고 있는 자와의 담합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5. 2008년 7월. 당시 분열된 종단의 임시종정 소임을 맡고 있었던 김순석(용일)과 임시총무원장을 맡고 있던 김윤철(향운) 등은 전국각지에 산재한 원효종단의 재산을 처분하여 양자가 25억 원씩 분배하기로 합의를 하여 인증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6. 이처럼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리들을 저질러놓고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염려한 총무원장이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종단 감사를 회피해오고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단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종단 감사권을 갖고 있는 규정원장을 수년째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와 같은 총무원장의 비리를 척결하고 종단을 바로 세우고져 저희는 원효종단의 종도 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종도여러분들은 흐트러져 가는 본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바로 세우고 종단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불기 2556년 5월 11일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경주 망월사

불기 2556년 4월 28일

알리는 이 – 대한불교 원효종 소청심사위원장 한 상 렬(심상)
총 무 부 원 장 이 종 도(명운) 합장

나의 서원 나의 신행 〈8〉

한 땀 한 땀 10년 '부처님 생애' 완성

자수 불사 펼쳐온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장



남상민 원장은 … 1935년 서울에서 출생, 1980년도 세종대 생활과학대학원 의상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신라호텔에서 부처님 일대기를 자수로 표현한 불교자수연구발표전을 열었고 이후 30년 동안 전국을 돌며 전시를 열었다. 88년 (사)한국예절문화원을 열고 현재는 가정의례 관혼상제 식문화 예절 다도 등의 강의를 통해 한국의 전통 알리기에 매진하면서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다.

1979년 신라호텔에서는 불교자수연구발표전이 열렸다.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장겸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78)이 10여 년 세월동안 밤잠을 설쳐 완성한 부처님 일대기 자수 91점이 세상에 선보여 졌다. 남 원장의 혼신이 그들 안에 있었다. 모든 게 자신의 과업이라고 생각한 남 원장의 작품은 탄생부터 열반까지 부처님 일대기로 표현돼 새로운 불교예술을 펼쳐냈고 전국을 돌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그의 작품은 당시 남편을 월남전에서 잃은 아내, 아들의 지병으로 고심하던 어머니 등 인간사 고통에 빠져 있던 중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

피난 중에도 사찰 들러 삼 배 올려

4월 23일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한국예절문화원을 찾았다. 그 곳에 남상민 원장이 있었다. 오랜 시간 학교 강단에 섰고 지금까지 한국 예절 등 전통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온 남 원장.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녀는 부처님 일대기를 한 땀 한 땀의 자수로 펼쳐내고자 하는 서원을 세우고 젊은 시절부터 매진해온 돈독한 불자였다. 우선 그녀를 오늘에 이르게 한 큰 서원이 궁금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의지해 온 불가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물었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라 늘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어요. 그때는 법당 가서 절하고 스님 뵙는 게 좋았어요. 또 절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6.25 전쟁 때에요. 당시 중3이던 저는 언니와 다섯살된 남동생과 함께 피난을 갔어요. 지병으로 누워 있던 아버지와 간호를 해야 했던 어머니만 결국 서울에 남고 저희 남매 셋이서 청평으로 또 계룡산으로 피난을 갔죠"

세 남매는 그렇게 한 달 넘게 서울서 걸어서 청평 유명산까지 피난을 갔다. 배가 고팠고 다리는 끊어질 듯했고 무간지옥의 전쟁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려움도 배고픔도 물리칠 수 있는 큰 묘약이 있었다. 그건 바로 어디에 가도 항상 그녀를 자애롭게 내려다보며 웃고 계신 부처님이었다. 그녀는 지나는 곳마다 사찰이 있으면 들어가 3배를 올렸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부모를 두고 온 서러움도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절만 보면 들어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절이 있으면 혼자 들어가 삼 배를 했어요. 부처님전에 삼 배를 올리면 이상하게도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끼 먹을 밥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가난했던 피난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부처님한테 위안을 받았죠"라며 당시의 힘들었던 상황을 회고하며 상념에 젖는다.

평생의 도반 남편을 만나다

이후 남 원장은 동명여고에 진학하면서 그녀 일생의 업으로 삼아온 자수를 만나게 된다. 전쟁 후 모두가 가난해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그때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미국인 잠옷을 대량으로 가져와 자수 놓는 일을 시킨다. 당시 학생들은 그렇게 자수로 돈 벌어 집안 생활비에 보탰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 그녀 역시 생계 때문에 자수를 배웠다. 그렇게 숙련된 실력을 차곡차곡 쌓던 중 남 원장은 고3이 됐고 자수기능대회에도 나가게 됐다. 여기서 최우수상을 타면서 그녀는 당시 교장 선생님의 눈에 들었다. 선생님은 낮 12시까지만 학교 공부를 하고 오후 부터는 교장실서 자수만 놓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그 덕분에 남 원장의 자수 실력은 나날이 향상돼 갔다.

이후 남 원장은 수도사범대(현 세종대) 가정학과에 입학 하게 되고 졸업식날 꽃다발을 덜렁 안겨준 남자 한 명을 만난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자 평생 도반이 된 전종식(대승기신론연구회장)씨다.

"남편은 저희 과 친구 오빠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오랜 시간 올케감으로 점 찍어 놓았다고 해요. 그렇게 한 번도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남자가 저한테 졸업식날 덜렁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죠. 이게 저희 친정집에서 가족회의를 열 만큼 큰 문제가 됐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반대를 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부부의 인연이었든지 몇 달 후 한 식당에서 우연히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됐죠"

팔상도 회화 자수 91점 제작 '화제'
견사값만 1억5천만원 …대작불사

불교 학자 남편 전종식씨 해설 붙여
30여년 동안 전국 전시 대중 감동
부부함께 '경전독송' 하루 열고 닫아

현재 불교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 전종식 씨는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교통부와 철도청 공무원으로 일해 왔다. 남 원장도 동명여고 교사를 거쳐 세종대 인하대 동덕여대 한양대 등의 가정학과에 자수 강사로 활동했다. 그녀는 또한 한 집안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는 꿈을 꾸게 된다. 자신의 주변에 빛이 찬란하게 발현하신 부처님이 지나가는 신기한 꿈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신기한 꿈이라 생각했고 이를 당시 흥법사 주지인 최일현 스님에게 털어놨다.

"당시 스님은 서울로 올라와 홍은동에 터를 잡고 불사 하던 시절이었죠. 그날 스님을 찾아가 꿈 얘기를 해줬더니 불교계에 장엄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팔상도 책을 한 권 건네주었어요. 남편도 부처님 일대기를 담은 이 책을 갖고 수를 놓자고 했어요"

이후 남 원장은 해인사 송광사 등 전국 사찰을 돌며 부처님 일대기 고증 작업을 거쳐 이를 회화 자수로 표현하게 된다. 힘겹고도 어려운 고행이었다. 자수만 잘 놓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었다. 바탕서부터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자수를 놓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고난위도의 작업이었다.

우선 바탕으로 사용할 천부터 결정 해야 했다. 견면 인조 합성섬유 등 다양한 소재의 바탕천에 커피 진흙 산성염료 백반 등을 활용해 물감으로 사용해 바탕화면을 칠했다. 이 바탕천들이 잘 마르기 위해서는 습도 햇빛 바람 등 모든 환경이 잘 맞아야 했다. 여기에 도안을 뜨고 10가지 이상의 견사로 원근법 등이 다양한 자수기법을 활용해 작품을 마무리 했다.

"당시 창경궁 같은 넓은 공간을 찾아가 거기에서 천을 말렸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생활비의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쏟아 부었죠. 당시 견사값만 1억 5000만원이 들어갈 만큼 큰 불사였지요.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더 최선을 다하라고 항상 저를 격려해줬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격려한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는 왜 부처님 얼굴에 바늘을 찔러 자수를 놓냐는 비난도 많이 했어요. 이게 옳은 일인가를 고민 했고 굳이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사명이고 꼭 해내야 할 업(業)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죠"

부처님 일대기 자수 완성은 나의 '서원'

이렇게 남 원장이 갖은 고생을 하며 작품 스무 점을 완성할 무렵 남편과 함께 당시 송광사 방장 스님 구산 스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일생일대의 큰 변혁을 준 중요한 만남이었다.

"스님이 당시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련사에 잠시 머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스님을 찾아가 그동안 만든 자수를 보여드렸죠. 스님께서 작품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셨죠.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해서 작품을 불교적으로 한층 더 승화시켜보라고 격려와 당부까지 해주셨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백련 거사, 저에게는 해인광이라는 법명을 내려 주셨어요. 이후 남편은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게 됐고 저는 부처님 일대기를 자수로 완성하는 일이 제 일생의 큰 서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렵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었죠"

이후 남편 전 씨는 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에 입학해 공부하며 그동안 〈대승기신론을 통해 본 원각경〉 〈대승기신론을 통해 본 금강경〉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또한 지금까지 대승기신론연구회의 회장직도 맡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사비까지 들여 번역한 〈종밀의 선원제전집도서〉와 〈금강경의 세계〉 등 불서 600권을 전국 승가대학 학인들에게 무주상 보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남편은 사실 구산 스님을 뵙기 전에는 불교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산 스님을 뵙고 발심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불교적 지식과 불심이 많았기에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남편은 교리를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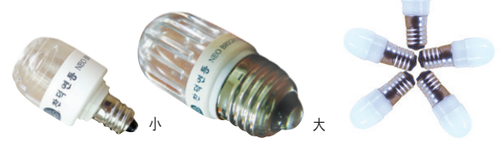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이제 불교박물관 건립 '발원'



자수로 표현된 부처님 '열반상' . 남상민 원장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91점의 작품으로 표현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전국을 돌며 전시를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공부하는 학자로서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줬고, 저는 자수를 통해 불교를 홍포하는 포교사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후 남 원장은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부처님 일대기를 91점의 자수로 완성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남편 전 씨가 해설을 붙여 1979년 신라호텔에서 첫 전시를 열었다. 그녀의 작품은 30여년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런 진심이 그녀에게 전해졌을까? 그녀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팸플릿에 들어갈 작품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거사, 전시장을 빌려주는 전시 관계자, 또 정성들여 밥을 싸오던 관람객도 있었다.

"이중 제일 기억에 남는 보살이 있어요. 명문대생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장롱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몇 달을 누워 있어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분께서 제 작품에 감명 받았다며 전시 기간 내내 그렇게 밥을 싸오셨어요. 또 한 분은 남편을 월남전에서 잃은 여자 분이었어요. 죽은 남편의 옷을 걸어놓고 매일 말을 걸 정도로 남편을 그리워했죠. 그분도 제 작품을 보고 많은 위안을 받고 간다고 했어요. 그 동안의 고생과 애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게 30여년 전국을 돌며 부처님 탄생과 열반까지의 일대기를 작품으로 알리는 불교 전법사 역할을 톡톡해 해낸 것이다. "최근 전시는 3년 전 길상사에서 있었어요. 그때도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관람을 하러 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또 어떤 교포 분은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오던 중에 저의 전시 소식을 들었대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을 취소하고 전시장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동안 공들여 만든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뿌듯했죠"

새로운 서원이 생기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수를 놓지는 않는다. 7·8여년 전 건강상의 문제로 자수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88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예절문화원 운영에만 매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예절의식, 관혼상제, 다도, 복식예절 등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남 원장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한국예절문화원과 자수박물관을 겸해 운영 하고 있다. 사진은 남원장의 자수 작품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예절 교육을 매우 중요시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여자가 밥상에서 입 벌려 쌈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예절을 중요시 여겼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줘야 한다고 할 만큼 가족 간의 예절을 철저히 하셨죠. 그렇게 한국식 예절이 제 생활에 배였고 이제는 그 전통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불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반야심경〉과 〈천수경〉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 한다는 남 원장. 차를 마시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하루하루 일상을 곧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제 그녀의 서원은 불교박물관을 만드는 것이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리이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 것만 챙겨 살기보다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내 것을 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여유롭고 즐겁잖아요. 마지막 남은 서원이 있다면 불교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제가 만든 작품을 전시해 사람들에게 부처님 일대기를 알리고 불법을 홍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병환으로 걷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수 작품을 손수 펼쳐 보여주던 남 원장.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고통이나 짜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부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온화한 평정심을 지켜주며 그녀의 새로운 서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해 찰



동국대 명예교수

이따금 골목에서 만나는 어린이가 있다. 그는 참 인사성이 밝기도 했다. 만나는 족족 어김없이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어디가' 가 인사이다. 어느 때는 맞닥뜨리지 않았어도 소리만 듣고도 쉬 알 수가 있다. 참 친숙하고 밝은 어린이 소리다. 체구를 보면 6학년쯤 되어 보인다. 하기야 요사이 어린이들은 발육이 좋으니까 4~5학년 인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 같이 삭막한 세상에 다정다감한 인사를 받고 나면 가정교육이 남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음이 분명하다. 흡사 어리장수 마냥 축 늘어지게 맨 가방에다 한 손에는 신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양이 전형적인 예전 초등학생의 모습이다.

부모가 보는 날이면 해찰하고 걷는다고 마음을 많이 쓸 것만 같다. 근심이나 걱정거리 없는 초탈한 은자와 같이 소년이 한가롭게 길을 걷는 모습에서 여유가 무엇인지 느끼게 한다. 그와 눈을 마주치다 보면 영롱한 눈에는 눈부처가 선연하다. 분명 아기 부처님이다.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 일상 부연하는 말이 있다. 해찰하지 말고 곧장 다녀오라고 한다. '해찰' 이라는 말은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하다' 는 뜻이다. '해찰하다' , '해찰스럽다' , '해찰부리다' 로도 쓰인다. 앞만 보고 매진해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들 한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끔은 '해찰질' 을 해보는 여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해찰 하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다. 그리되면 무릎이 까지고 선혈이 흘러 여러 날 욱신거리기 일쑤다. 혹은 행인과 마주쳐 넘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혼잡한 시대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일이다. 신호등을 잘 지켜야 하고, 설령 지켰다 해도 운전자의 부주의가 야기하는 일이란 상상을 뛰어넘기도 한다.

메숲진 산길을 걷다 보면 일상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일이 벌어진다. 내가 나무에 말을 걸기도 하고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어쩌랴.

한적한 길에서 서로 말동무가 되어 주거니 받거니 말품을 팔다보면 그 내용에는 이미 피안의 일을 얘기하고 있음을 느낄 때 생활의 가득 찬 충만을 맛본다. 이 때 해찰은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목화송이마냥 해맑고 포근하다. 해찰이란 경우에 따라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량없는 여유를 주기도 하는 것이다. 무공해 산나물이 좋다고 덤비지만 파리한 새순에도 독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문명에 찌들려 있는 현대인에게도 독소가 있어 해독제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해독제의 처방전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얻을 수 없는 일이다. 주변에 산재해 있다. 울타리 밑에서 우주를 밀고 올라 온 금낭화를 보는 것으로도 처방전이 되기도 하고, 고요를 깨는 지지랑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에서도 해독제를 얻을 수 있다. 그뿐이랴. 사철 푸르른 자태를 지니고 있는 소나무의 송화 가루에서도, 나무 밑에 초연히 얼굴을 드러낸 쑥부쟁이에서도 해독제 내음이 물씬 풍긴다.

해찰을 경계하는 인간, 해찰이 생활 깊이 배어있는 자연. 엄청난 격차가 있다. 욕심에 찬 인간이 쌓는 성곽은 높이가 낮다. 경계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자연은 허공까지도 안고,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광대무변이란 이 자연이 지닌 속성이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은 말로야 그런 엄청난 말을 쓰고 있지만 옹색하기로 치면 송곳 하나 세울 틈이 없다.

마치 곡식을 심은 이랑 사이에서 부룩을 밖아 놓은 농작물 마냥 간간이 여유가 생기고 예지가 터득되는 것이 야리한 인간의 모습인 듯하다.

본업보다는 다른짓 하는게 '해찰'
경우에 따라 위험이 여유 주기도
바쁜 삶 속에서 가끔 '해찰' 필요

우리는 사위어 가는 것에서 애잔함을 느끼기도 한다. 화롯불이 사위어 가는 모습, 수기를 잃어 쭈글쭈글 골이 생긴 철지난 과일에서 사위어 가는 모습은 더욱 그렇다. 사위어가는 화롯불의 전생은 잉걸불이다. 한 때 그 불은 찬란하여 눈이 부시기도 했다.

세월이 망각의 깊은 늪을 건너게 하듯이 잉걸불은 세월을 삼켰던 것이다. 역시 생성과 소멸의 법칙은 어디에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듯하다.

지나 온 날의 추억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미래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일이다.

게[蟹]는 옆걸음질을 치면서도 자기 새끼들에게는 바로 걸으라고 야단을 친단다. 정작 바로 걸어야 하는 것은 어미 게이다. 사람의 경우도 매 일반이다. 자식에 대한 가르침보다 부모의 가치관이 전도되지 않았나 재고 해 볼 일이다. 부모의 행동이 바른지 바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과거의 내 모습으로 미래를 살아갈 후손의 앞날을 가늠한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을 것 같다.

해찰하는 어린이의 모습은 기실 더 넓은 세계를 꿈꾸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3층 목각탑
높이 85cm
가로, 세로 35cm
가격 5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세로 20cm
가격 35만원



침향 大



침향 小

▣ 침향(沈香) (원산지 : 라오스)
세계 3대향의 향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침향은 공기를 정화시키고 정신을 맑게해 집중력을 좋게 해 줍니다.
• 침향小 50,000원
• 침향大 100,000원

불기 2556(2012)년 봉축 특별 할인 판매

> 연꽃 차걸이 특별판매 <

봉축을 맞아 불자님들 선물용으로 더욱 좋습니다





▪ 연꽃 차걸이1 / 가격 3,000원
100개 이상 구매시
특별 할인합니다



▪ 오색 매듭팔찌 / 가격 2,500원
윤달이 드는 해에 다섯가지 실로 매듭한 팔찌를 합장하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 연꽃 차걸이2 (4색)
가격 2,500원

주문 문의

고 전 상 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지에 법향法香을 피우다

美 포틀랜드 시스키유, 日 묵조선계 선 센터 들어선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법향(法香)이 퍼지고 있다.

미국 오리곤 주 포틀랜드 시의 대표적인 쓰레기 매립지였던 시스키유(Siskiyou). 지금은 매탄가스관만 여기 저기 보일 뿐, 넓은 초원으로 변모한 이곳에서 일본 묵조선(Soto Zen)계 눈푸른 납자들이 수행센터 건축에 나섰다.

온라인 매체 디제이씨 오리곤(DAILY JOURNAL OF COMMERCE, djcoregon.com)은 20일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시스키유 북동쪽에 위치한 27에이커의 대지에 달마 레인 젠 센터(Dharma Rain Zen Center)가 들어선다"며 "현재 매탄가스관이 매설된 곳이기는 하지만, 넓은 초원지대로 변모한 만큼 그 대지의 잠재성은 높다"고 보고했다.

시스키유(Siskiyou) 북동 지역은 초원지대가 들어설 정도로 쓰레기 매립지라는 오명을 벗은 지는 오래됐다. 그러나 매탄가스관이 지층에 매설되어 있고,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넓은 공간과 푸른 녹지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셀리 지코 티스데일(Sallie Jiko Tisdale · 공동체 개발위원회 위원) 스님은 "달마 레인 젠 센터는 이곳에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춘 수행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며 "수행과 신행의 공간만을 허락한, 자연 친화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전제한 카쿠묘 로 첼드(Kakumyo Lowe-Charde · 공동체 개발위원회 위원장) 스님은 "적은 비용으로 작은 센터를 짓을 것"이라며 "고(高)비용 재단은 필연적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길 바라지만, 우리는 지금 펼쳐진 자연을 최대한 보존해 쓰레기 매립지였던 대지의 흔적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부처님의 공간'을 짓고자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센터의 지반에는 가스 장벽을, 그리고 건축 부지에는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자연환경 보존의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스님은 "이곳이 지진 발생 지역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진 설계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새롭게 새워질 센터가 이곳의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달마 레인 젠 센터는 사우스 매디슨 주민회(South Madison Neighborhood Association)와 연계, 지역 주민과의 정례 모임을 갖고 있다. 사우스 매디슨 주민회는 2006년 시스키유 지역에 월마트의 입주 철회를 이끌어낸 주민 자치 조직이다.


카쿠묘 로 첼드(Kakumyo Lowe-Charde · 공동체 개발위원회 위원장 · 사진 오른쪽) 스님과 셀리 지코 티스데일(Sallie Jiko Tisdale · 공동체 개발위원회 위원) 스님. 그 뒤로 달마 레인 젠 센터(Dharma Rain Zen Center)의 시스키유(Siskiyou) 건설 부지가 보인다.

"우리는 달마 레인 젠 센터의 계획이 지역 발전에 단단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이브 스미스(Dave Smith) 회장은 "적은 비용으로 작은 센터를 세우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고 텃밭을 가꾸며 인근 마을까지 오솔길을 만드는 것 등의 계획이 지역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됐다"고 말하고, "아시아 종교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은 지역 주민의 호기심도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매디슨 거리 남동쪽에 소규모로 건립될 것"이라고 설명한 티스데일 스님은 "센터 내에는 수행 공간뿐만 아니라 아이들만 문화 공간과 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한층 강화시켜주는 것은 물론 시스키유 달마 레인 젠 센터가 포틀랜드 전법에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泰 단기출가 비구니…송크란 축제 탁발 나서

5~63세 137명 삭발 여성불자, 불교 개혁 희망

태국 송크란 축제의 시작은 스님의 탁발이다. 이날 탁발에는 스님뿐만 아니라 아이에서 어른까지 남성 단기출가자도 참여한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송크란 축제 기간의 탁발에 여성 단기출가자도 참여해, 태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지난 13일 방콕의 사티라-담마사탄(Sathira-Dhammasathan) 불교명상센터는 송크란 축제 기간에 137명의 여성 단기출가자의 탁발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지의 여성들은 결코 단기출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태국의 사티라-담마사탄(Sathira-Dhammasathan) 불교명상센터가 3년 전부터 '남성 불자만'이라는 금기를 깨기 시작했다. 올해 단기출가자 여성들은 6세부터 63세까지 137명. 이들은 20일간 스님과 똑같이 생활한다.

사티라 담마사탄 불교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산사니 스투라트수타(Sansanee Sthuratsuta) 스님은 "태국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스님은 3년 전부터 여성 불자의 수계를 시작하며, 태국불교계에서 여성불자와 비구니 스님의 역할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 방콕의 거리에서 송크란 축제 탁발을 하고 있는 사티라-담마사탄(Sathira-Dhammasathan) 불교명상센터의 여성 단기출가자들. 올해에는 5세부터 63세까지 모두 137명이 단기출가에 나섰다.

"태국 승단이 비구니 스님의 역할을 수용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교육"이라는 스님은 "태국 사회가 비구니 스님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멀지 않아 비구니 스님 중에서 정신적 지도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일련종계 일본불교, 인도 전법에 적극

청장년층 포교 청신호…뭄바이에만 7천400여 명 추산

일본 불교계가 인도의 청장년 불심을 다잡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디엔에이(Daily News & Analysis, www.dnaindia.com)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련종 등 일본 불교계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도의 청장년들에게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에 힘을 실어 포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데비카 푼자비(Devika Punjabi · 27)는 일본 일련종(Nichiren Buddhism)의 상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인도의 반드라(Bandra), 칼(Khar), 사나타크루즈(Santacruz) 등지의 불자들과 교류하며 실직에서부터 건강이나 행복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극인이다 보니 사람의 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상담을 제신행으로 삼았을 뿐"이라는 데비카 푼자비는 "사찰에서 상당 교육 과정에 매달릴 때보다 더욱 신심아 난다"고 말했다.

에이제이 두다니(Ajay Dudani · 45)는 뭄바이(Mumbai)에서 '젠 아이(Zen Eye)'라는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15년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련종계 사찰에서에서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신행의 시작"이라는 그는 "지역 불교계에서 도반을 만나고 함께 무료진료 등과 같은 신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도심의 생업을 불교 신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련종계 모리타(Morita · 64) 스님은 "우리는 그들(인도의 청장년)에게 우선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나아가 선한 사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기에 주변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며 해쳐가는 신심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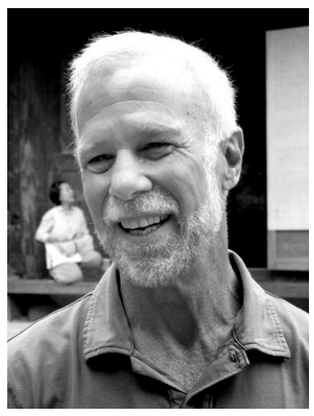
현재 인도 뭄바이의 일련종계 불자는 76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만 5만5천여 명의 일련종계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종욱 편집위원

돈점론에 관한 영어권 연구 집대성

세계의 불교학자(16)

피터 엔 그레고리 美 스미스대 교수



1980년대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를 통해 돈오점수를 이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때부터 한국 불교학계에서는 돈점논쟁으로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불교사적 기원을 밝히려 했고, 돈점논쟁에 관한 학술서적들과 연구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돈점논쟁에 대한 이해와 쟁점을 정리해 모은 책을 꼽으라면 〈깨달음, 돈오점수인가 돈오돈수인가〉(민족사 刊)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돈점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때 서구권에서도 돈점론에 관한 책이 나왔다. 바로 피터 엔 그레고리(Peter N. Gregory · 美 스미스대 종교학과)교수의 〈돈점(頓漸)- 중국사상의 깨달음에 대한 접근(Sudden and Gradual: Approaches to Enlightenment in Chinese Thought, 1987)〉이라는 책이다.

돈점론에 관한 영어권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물로 평가 받는 이 책에서 그레고리 교수는 반복돼온 중국불교 돈점논쟁과 돈점을 통한 깨달음에 대해 조명했다.

그는 〈돈점〉에서 규봉종밀과 간화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종밀은 공안과 간화 수행이 중국선 전통에 활용되기 이전에 살았다.

선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간화선이 발전한 당시 선풍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한 그는 "종밀의 돈오점수 접근 방식은 공안의 화두 참구에 초점을 두는 간화선 접근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밀은 돈오점수 최상승선의 특징인 수행과 깨달음의 일치에 이른다. 바로 처음부터 궁극적 목표를 겨냥한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그레고리 교수는 책에서 "'돈(頓)'의 주된 의미는 직접적이고 불이(不二)이고 매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오돈수의 경우에 있어 수행은 무상인 무념과 동일시된다. 깨달음과 수행이 일치하므로 수단과 결과가 일치 한다"고 덧붙였다.

그레고리 교수는 중세 중국불교 가운데서 당송시대 선과 남종, 화엄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았다.

특히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 사상을 집중 연구한 그는 〈규봉종밀과 불교의 중국화(Tsung-Mi and the Sinification of Buddhism)〉〈중국 송시대의 불교(Buddhism In The Sung)〉을 저술했으며 규봉종밀이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구한 문헌인 〈화엄원인론(華嚴原人論)〉을 영문 번역했다.

최근에 그는 19세기 중국불교 선종의 역사와 교리 기원에 관한 문헌을 완역했다.

그레고리 교수는 1981년 하버드대 동아시아어 문명학 박사로 졸업한 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15년간 종교학을, 1999년 스미스대 종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동아시아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1984년부터 불교학과 인간가치를 연구하는 구로다 학회 회장직을 맡아 〈동아시아 불교학〉와 〈동아시아 불교 고전〉시리즈를 주도해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불교에만 관심 갖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동아시아 · 중국불교 연구에 매진 해오다 현재는 스미스 대학에서 미국불교에 중점을 두고 연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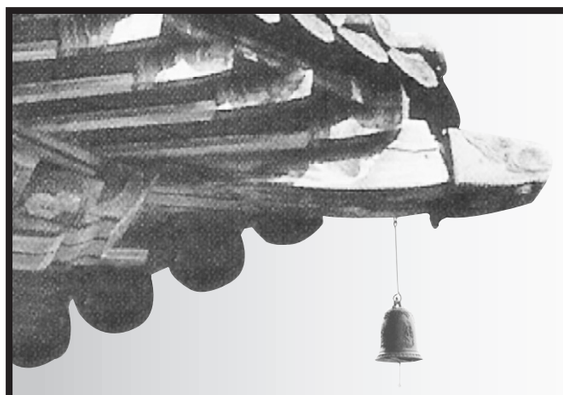
중국 당송 불교 · 규봉종밀 연구
돈점논쟁 관해 영어권 연구 집대성
최근엔 미국불교에 대해 연구중
40년간 선수행 · 불교영화에 참여

미국불교 연구의 일환으로 영화 '감로문: 미국선공동체의 굶주린 영혼들에 양식을 주다(The Gate of Sweet Nectar: Feeding Hungry Spirits in an American Zen Community(2004)'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여성의 불교수행: 미국인들의 체험(Women Practicing Buddhism: American Experiences(2007)〉을 공동 저술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미국불교의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40여 년간 일본식 선 수행을 해왔다는 그레고리 교수는 지난해 8월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가 백담사에서 개최한 간화선 실참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40년이 넘는 수행 경험 중 화두 참선은 처음이다. 일본에서 초기 3년간 했던 공안 참구와 비슷했다"고 소감을 밝히며 "화두를 물지 못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고, 향후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컷 마하연투어

성 지 순 례

출발 확정 상품

■ **미얀마 성지순례**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요금문의

출발일 :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 일, 6월21일, 6월 23일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핀)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6월 1일, 6월 9일 — 7일 129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5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요금문의
◎ 백두산 I 연길	5,6일 요금문의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각 사찰에 불사포교에 도움이되도록 액자용. 족자용.
부처님 점안시 복장용. 부처님오신날 선물용.
특별히 제작 원가 보급합니다.

화엄진리의 세계를 함축한 대승경지의 정수. 법성도.

삼라만상의 진리와 영원한 대승법이 담겨 있는 법성도는 수지독송함은 물론 가까이 두고 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이며. 무장무애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장애와 걸림을 없게 합니다.



일체 번뇌망상, 괴로움과 슬픔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법성도!

수승한 영험과 공덕.기와 법이 살아있는 화엄 일승 법성도의 바다에서 일체만법과 지혜공덕을 구족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법 성 원** ☎ 전화 1688-7671

홈페이지 www.bswon.com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대 구 연락처 — **대구 (지장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053)632-0078
010-9243-0113 **범성스님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당뇨가 있으십니까 ?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가요? 부인병이 걱정되시나요?



홍삼좋은것은 아는데, 체질에 안맞아서,,'
'산삼 좋은 것은 아는데, 비싸고 산삼이 맞는지 의심이 들고'
'한약(보약)을 지어먹자니 중국산 약재들이라...'

산삼을 능가하는 효능의 연삼(軟蔘)

약명으로 전호(前胡)라 하여 약재로 쓰입니다. 미나리과의 약초라 체질에 상관없이 효능을 발휘하고 최근 당뇨병을 근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삼의 뿌리에서 산삼보다 높은 사포닌이 검출되었으며 항암작용, 암, 당뇨 같은 만성 질병으로 기력이 몹시 쇠약해 졌을 때 뿌리를 달여?복용하면 기력을 회복하며 혈당을 현저히 내리며 또 항암 작용도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합니다. 연삼에는 자궁 기능 조절 및 진정, 진통, 항균, 설사 및 비타민 E 결핍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노다케닌(nodakenin)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기관지염, 관절염, 혈액순환,빈혈, 각종 부인병, 생리불순, 두통에도 특효입니다. 또한 마음을 진정 시키는 효과도 있어 신경쇠약 치료약으로도 쓸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인삼이나 산삼을 훨씬 능가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귀한 약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항산화성분으로 암을 유발하고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피부노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모세혈관에 직접 작용하여 수많은 약리작용을 합니다. 특히 암세포 증진 중단과 죽이는 작용을 하게 되고 혈액이 맑지 못한 당뇨병을 근치합니다.



맑고 깨끗한 깊은 산에서 정기를 받고 자란 연삼 (軟蔘)을 직접 캐고 말리며 정성들여 달였습니다. 휴대하여 드시기 좋도록 연삼액을 레토르트파우치에 밀봉하였으며 향이 좋아 음용하기도 좋습니다. 연삼액을 꾸준히 드시면 하루하루 건강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이 정성을 가득 담아 귀하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구입문의 : 산약연삼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24-8 2F
담당 : 김종관 **051)741-3312, 010-8440-1096**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438-427755 김태우(**010-4759-5152**)

국내산 100% 연삼액
30개입 14만원 → 12만원
60개입 28만원 → 23만원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상담 |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구갑문 배경에 무병장수 기원"

원력수생 해동불일 보조국사 진영


동화사성보박물관 보조국사 진영

전남 순천 송광사(松廣寺)에는 불교사(佛教史)를 빛낸 보물 제 1043호로 지정된 십육조사진영(十六祖師眞影)의 진영이 있다. 이 고승들의 진영은 가로 77.4㎝, 세로 134.8㎝ 로 제작기법이나 크기가 같아서 어떤 한 금어(金魚, 승려 불화승)스님의 작품들로 보여진다.

이들 중 특히 보조국사의 진영은 녹색 장삼에 붉은 가사를 입고, 오른 손에 길고 가는 석장(錫杖)을 쥐고, 날카로운 선기(禪氣)를 지닌 눈매로 전면(前面)을 바라보고 있다. 이 16점의 진영(眞影)들은 모두 정조(正祖) 4년(1780년)에 안치되었다고 전한다. 모두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조선중기의 고승영정들의 기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보물들이다.

팔공산 동화사(桐華寺)에도 역시 보조국사 지눌(知訥)큰스님의 영정이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한 동안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53호로 지정되어

송광사 진영과 복식 '차이'
당초화문으로 정교함 더해

있다가, 2010년에 보물 제1639호로 지정되었다. 비단에 석채와 당채로 그려진 이 진영은 크기가 147.5㎝×79.3㎝ 로 송광사의 보조국사진영보다 약간 더 큰 영정이다.

송광사의 진영과 특히 의상(衣裳)의 복식(服飾)채색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동일한 초본(抄本)을 기본으로 제작되었지만 매우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필치의 인물묘사와 담담한 채색의 옷의 색깔 등을 볼 때 훨씬 연대가 올라가는 시기의 작품으로 보조국사 진영들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오랜 것이다. 특히 채색의 질감(質感)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특히 동화사 사명당대장 진영(보물 제1505호)과 세부적인 표현감각과 필치가 가장 유사하여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고승들의 영정들과는 다르게 보조국사가 앉아계신 의자는 나전칠기(螺鈿漆器) 공예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의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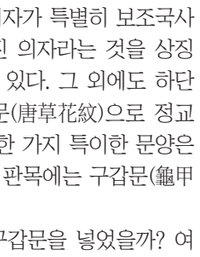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다른 영정들이나 고승진영들을 찾아봐도 나전칠기의자에 앉은 분은 보조국사가 거의 유일하다. 송광사 영정의 나전칠기 의자가 오로지 의자 판목(板木)의 넓은 부분에만 대충 목단문(牧丹紋)이 묘사되어 있는 것에 비해 동화사 영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모란문이 판목전체를 꽉 채운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업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의자가 특별히 보조국사를 위해 만들어진 의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하단에 다시 당초화문(唐草花紋)으로 정교함을 더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문양은 앉아계신 등쪽의 판목에는 구갑문(龜甲紋)을 넣었다.

그렇다면 왜 구갑문을 넣었을까? 여기에서 의자를 만든 장인이 보조국사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보조국사 주변의 사람들이 보조국사께서 오래 오래 사셔서 불일(佛日)을 증휘(增輝)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조국사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고 병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약을 썼으나 낫지 않아, 부친은 부처님 전에 기도했다. "병만 나으면 자식을 부처님께 바치겠사오니 제발 병만 낫게 해주소서" 라고 말이다. 이후 국사의 병이 깨끗이 낫자 겨우 여덟 살에 종휘(宗暉)선사에게 출가하신 분이 바로 목우자(牧牛子) 지눌 스님인 것이다.

왜소한 모습의 보조 국사께서 커다란 나전칠기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의 배경 구갑문에서 스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빌었던 제자들과 불자들의 간곡한 기원(祈願)을 본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50년 양공 수행 가사에 펼쳐져"

지상 스님 가사 모음전 5월 16일부터
9품계 홍가사 등 30여 점 전시




50여년 동안 손바느질로 가사를 만들어 온 지상 스님이 5월 16일부터 전시회를 연다. 사진은 삼보를 자수로 놓아 만든 홍가사

50년 동안 가사 불사에 매진해온 지상 스님(전통가사연구원장)이 전통 가사 모음전을 펼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6일~21일 종로구 관훈동 이형아트갤러리전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태고종의 홍가사 등 30여 점이 선을 보인다.

지상 스님은 자신이 소속된 태고종을 비롯한 수많은 가사를 제작해 왔다. 특히 스님은 가사의 통문을 유지하기 위해 재봉틀에 의뢰하지 않고 손바느질 제작만 고집해온 장인정신의 소유자다. 스님은 "1962년 11세 때 김을용 스님의 제자로 출가해 출가하여 전통가사의 제작 기법을 9년간 사사하여 양공(良工 · 가사를 제작하는 스님)이 되었다. 이후 가사 제작을 총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도편수로 인정받아 전국 태고종 사찰 스님의 가사를 제작해왔다"고 전한다.

가사는 부처님이 수행할 때 몸에 걸치기 시작한 이래로 제자들이 이교도들과 구분할 필요성이 생겨 불교적 의미를 함축한 형태로 제작했다. 이후 가사는 발우와 함께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법맥상속의 신표로서 승가의 전통적 상징물이 되었다.

지상 스님은 "작은 혈흔에도 개인 고유의 DNA가 들어 있듯, 전통가사인 홍가사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유감없이 들어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교리 사상 문화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어느 불교국가의 그것과 비교해도 단연 우위에 있음을 단언할 수 있다"고 전한다.

스님 작품의 특징은 통문을 유지하기 위해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한 손바느질 가사라는 것이다. 스님은 회갑을 맞아 양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불설가사 공덕경의 홍가사를 중심으로 보라색 괴색 등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삼보명(三寶名) 자수가사는 불 · 보살 · 경전 · 존자의 상호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어 눈길을 끈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는 가사의 9품계(9조, 11조, 13조, 15조, 17조,19조, 21조, 23조, 25조) 대의(大衣)를 비롯해서 마니가사, 5조(안타회), 7조(울타리)의 중 · 하의(中 · 下衣) 등을 종류별 제작하였다. 또한 색상과 소재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전시한다. 또한 전시 기간에는 가사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니 관심 있는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오셔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02)736-480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젊은이와 소통하는 혜민 스님 광고 '화제'

광고료 전액 4천만원 '동행' 보시
6월 포교원과 마음치유 콘서트





혜민 스님은 LG U+ LTE 광고에 출연해 젊은이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광고료 전액은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3월의 봄날 전남 담양의 고즈넉한 대나무밭을 걸어가는 한 승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다. 어떤 문명의 힘도 닿을 거 같지 않은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호탕하게 웃는 스님의 모습은 유머러스 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다. LG U+ LTE광고의 주인공은 바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젊은층과의 소통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고 있는 미국 햄프셔대 종교학과 교수 혜민 스님이다.

스님은 지난 3월 30일 광고비 전액인 4천만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고즈넉한 산 속에 앉아 수행을 해야 할 거 같은 스님이 이렇게 세상으로 나온 이유는 뭘까? 스님이 광고를 찍게 된 배경과 그 과정 앞으로 스님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혜민 스님은 처음 광고 제의를 거절했지만 주변의 설득 끝에 전액 기부를 목적으로 광고를 촬영하게 됐다고 한다. "출판사 측에서 광고 에이전시(엘비스트)에서 출연 제의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려가 무슨 광고에 나가냐고 단번에 거절 했죠. 하지만 스님의 책을 펴낸 출판사 쪽으로(광고 에이전시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해 달라는 연락을 해 온 모양입니다. 어차피 제가 나가지 않으면 스님처럼 분장을 한 배우를 기용하게 되는데 스님이 나가서 제대로 출연료 받고 또 그 금액을 전액 사회에 기부하면 좋은 일 아니겠다고 설득을 하더군요"

결국 스님은 기부라고 하는 보시행에 마음이 가벼워졌고 광고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광고를 제작한 엘비스트 신혁 차장은 "이번 광고는 깊은 산 속 대나무 숲에서 LTE를 즐기는 스님의 모습을 통해 유플러스의 앞선 LTE네트워크를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하고자 했다"며 "트위터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혜민 스님이 출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해 스님을 섭외하게 됐다"며 기획의도를 전했다.

연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스님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런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니 감독이 오케이 싸인을 빨리 내려줘 촬영이 예정보다 빨리 끝날 수 있었다"며 뒷이야기를 전한다.

엘비스트 신혁 차장은 "스님으로서는 드문 TV광고 촬영이라 촬영 전 제작진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본 촬영에서는 전문 모델 못지않은 자연스러운 연기와 애드리브 등 탁월한 현장 적응력을 보여줘 역시 신세대와 교감하는 혜민스님의 젊은 감각을 엿볼 수 있었던 촬영"이었다며 현장 얘기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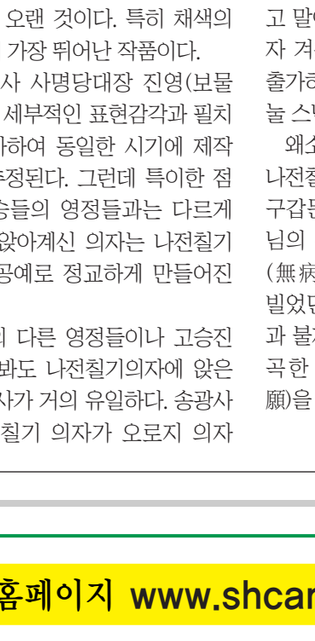
요즘 인생잠언을 담은 혜민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쌤앤파커스)은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SNS로 꾸준히 대중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과 소통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무언가 큰 진리의 문을 열어야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포교죠"

스님은 6월과 7월에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마음 치유 콘서트를 개최 전국 대도시를 순회한다. 스님은 "대중들을 직접 뵙는 시간인 만큼 오시는 분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 되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New 신제품 흑룡초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크기 ∮7.5 × 29c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27cm
④ 약쑥초 밀대 4.7∮×25cm
⑤ 약쑥초 1호 5.9∮×18cm
⑥ 약쑥초 2호 5.9∮×14cm
⑦ 약쑥초 3호 4.7∮×13cm
⑧ 약쑥초 4호 4.7∮×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27cm
④ 밀납초 밀대 4.7∮×25cm
⑤ 밀납초 1호 5.9∮×18cm
⑥ 밀납초 2호 5.9∮×14cm
⑦ 밀납초 3호 4.7∮×13cm
⑧ 밀납초 4호 4.7∮×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산골법당에 詩·音·茶·墨香 가득

양평 정곡사, 통방축전 눈길
4월 22일 출판기념법회 개최


정곡사 주지 정곡 스님이 아비라떼 앙상블 불자합창단과 함께 '알아차림' 찬불가를 함께 부르고 있다.

"알아차림~나눠볼라~ 알아차림~알아차림~나눠볼라~ 우주공간 하늘아래 오직 참나 주인공아! 무지에서 깨어나고 앎에서도 벗어나세~!"

한적한 계곡의 작은 산사에서 구성진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가건물로 지은 법당 안에서는 80여 명 남짓한 신도들 앞에서 한 스님과 파란 옷을 입은 10여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4월 22일 양평 정곡사(正谷寺)에서 펼쳐진 통방산 통방축전의 모습이다.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하는 스님은 정곡사 주지 정곡 스님. 수좌로 알려진 스님은 2006년부터 통방산 계곡 안에 정곡사를 짓고 머물며 좌선 틈틈이 통방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수행현장과 자연의 단상을 글로 적었다. 이날 정곡사에 모인 사람들은 평소 스님의 홈페이지(http://jeonggok.org)에 소개된 스님의 사진과 글을 보고 공감한 신도와 지인들이었다.

행사는 스님이 그동안 써온 글을 모은 책 〈날 사랑하여요〉의 출판기념법회를 겸한 산사음악회로 열렸다. 최정희 BBS초대석 진행자(본지 편집이사)의 사회로 문을 연 행사는 책 봉정식에 이어 축하 음성공양, 설호정 보살의 시낭송, 저자 사인회, 서예나눔 순으로 개최됐다.

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로 삼삼오오 장비를 법당으로 옮겨 열린 축전에서는 '정신차려' '오늘오늘오늘' '알아차림' 등 스님의 글 다섯 편이 서수일 불교음악 작곡가와 아비라떼 앙상블 불자합창단에 의해 노래로 선보였다. 허름한 사찰에 비가 내려 축전이 무산될 위기에도 모인 이들의 얼굴에는 환희심이 가득했다.

정곡 스님은 "책제목을 〈날 사랑하여요〉라고 붙인 것은 자신마저 사랑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저마다 조금만 더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도 사랑하자는 마음에서였다"며 "부처님 법이 통방산 자락에 가득하도록 원을 세우고 함께 정진해가자"고 말했다.

강수길 정곡사 신도회장은 "불교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스님은 인터넷을 보라고 하셨다. 스님을 만나고 때론 인터넷으로 스님의 글을 보며 매일 행복했다"며 "책을 통해 스님과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귀로 듣고, 같은 마음으로 느끼며 행복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경 박영재 선도성찰나눔실천회 지도법사(서강대 교수)는 "〈날 사랑하여요〉는 스님이 쓴 책이지만 정곡 스님과 인연을 맺어 수행정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모인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정곡 스님은 찬불가 '알아차림'에서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그동안 법회로, 또 인터넷으로, 보고 듣던 스님의 시를 노래로 함께 불렀다.

서수일 작곡가는 "처음 스님의 시를 접하는 순간 '맑다'는 느낌이 들어 노래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서 작곡가는 2년간 틈틈이 스님의 글로 8곡을 만들었고 두달 가량의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이날 노래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십시일반 재능을 기부해 행사를 함께 꾸려갔다. 연기자 최낙천 씨의 시낭송, 미국 애리조나에서 온 〈간송 전형필〉 저자 이충렬 씨의 인사, KBS그래픽 디자이너 장천 김성태 씨의 서예나눔 등이 이어졌다.

선시와 법어, 음성공양, 사찰음식과 연꽃차, 서예나눔 등이 어우러진 통방축전은 작은산사가 보여준 새로운 문화포교의 현장이었다.

봄을 알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축전은 끝이 났다. 봄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통방산의 신록은 더욱 짙어 졌다. 잠시 비가 옅어진 산 자락에 법당 안 작은 부처님의 미소가 번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곡 스님은 …

정곡 스님은 18세에 공주 마곡사로 출가해 예산 수덕사에서 혜가 스님을 은사로 득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1984년 봉암사에서 용맹정진결사 수행 후 서암 스님으로부터 '망명(亡名)'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정곡(正谷)'으로 아호(雅號)를 정하고 서울 명일동에서 수년간 포교활동으로 펼친 스님은 2006년부터 경기도 양평 통방산 자락에 정곡사(正谷寺)를 짓고 수행정진 해왔다.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석양



석양을 바라본 적이 있는 사람은 석양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 안다. 지는 꽃을 바라본 적이 있는 사람은 꽃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 안다. 이별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 안다. 죽음을 바라본 적이 있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 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석양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석양을 바라보면, 석양이 얼마나 기다려 줬는지 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꽃을 바라보면 꽃이 얼마나 기다려 줬는지 안다. 순식간에 이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안다. 언젠가 미황사 만세루 앞에서 석양을 본적이 있다. 〈끝〉


편집국 사진부 차장

사명대사 가사와 장삼 완형 최초 공개

밀양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음악회 · 특별강연도 펼쳐져

승병장이자 탁월한 외교가였던 사명 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가 마련됐다. 밀양시립박물관은 '호국의 대성, 사명당 송운대사' 특별기획전을 4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연다.

밀양시립박물관은 "사명대사의 유품과 당시 외교활동과 관련된 유물을 통해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특히 사명 대사의 가사와 장삼 완형을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외에도 사명대사의 진영과 발우 등 25점의 다양한 유물이 전시된다"고 밝혔다.

사명대사 가사와 장삼은 1973년도 중요민속자료 제29호로 지정됐다. 가사는 선조임금이 하사한 것으로 황금색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가로 270㎝, 세로 80㎝이다. 장삼은 흰색 무명으로 만들어 길이 144㎝, 품 55㎝, 등솔에서 소매끝까지 길이는 143㎝이다. 이는 16세말에서 17세기초 승려들의 법복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사명대사의 가사와 장삼은 밀양 표충사에 보관 중이다.

또한 개막식 당일일 4월 29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박물관 야외무대에서 기획전을 기념하는 '제8회 밀양시민음악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는 오정해(국악인) 김종환(가수) 개그콘서트 '감사합니다' 팀, 성악가 이윤경 씨 등이 출연한다. 6월 16일 밀양시립박물관 강당에서는 특별강연도 펼쳐진다. 주제는 ▷충사와 사명당 송운대사 관련 문화재 ▷표충사 소장 사명대사 가사와 장삼의 특징 고찰 ▷임진왜란과 그 이후 사명대사의 구국활동과 외교 활약상 등이다. (055)359-5589 **정혜숙 기자**


밀양시립박물관은 7월1일까지 '호국의 대성, 사명당 송운대사' 특별기획전을 펼친다.

외규장각 의궤 광주 나들이

6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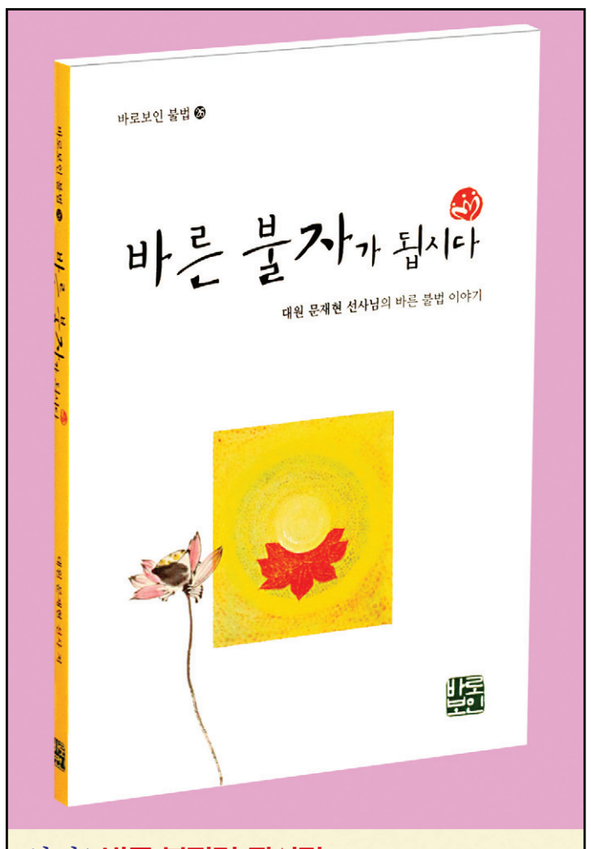
145년만에 돌아온 조선왕조 기록인 '외규장각 의궤'가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는 4월 24일~6월 24일 특별전시실을 마련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외규장각 의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규장각의궤는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된 뒤 지난 2011년에 반환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어 지방에서 최초로 열리는 전시회다.

전시회에는 헌종국장도감의궤, 선의왕후혼전도감의계 등 외규장각 의궤 51점과 헌종금보 등 조선왕실유물을 포함하여 총 109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크게 '조선의 기록문화와 외규장각 의궤', '왕실 중요행사의 세밀한 기록-의궤',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오기까지'의 3부로 구성된다.

'조선의 기록문화와 외규장각 의궤'에서는 조선시대 다양한 기록문화와 유교적 통치이념으로 바라본 의궤의 가치 · 의궤의 변화와 제작방법 등을 살펴보고, '왕실 중요행사의 세밀한 기록-의궤'에서는 의궤에 담겨진 조선왕실의 중요행사를 살펴볼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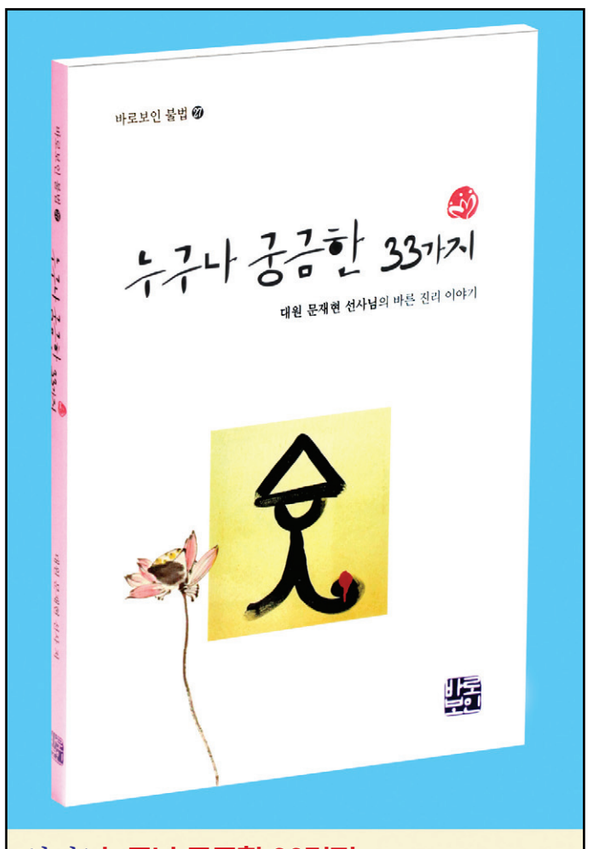


신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불법 이야기

요즘 불자님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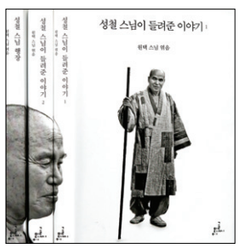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권 10,000원
☏ 031-534-3373



다시 듣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2〉
〈성철 스님 행장〉 세트
원택 스님 엮음
글씨미디어 펴냄
4만5천원

책 표지의 흑백 사진 속엔 누더기 두루마기에 지팡이를 짚은 한 노장이 세상으로 걸어 나올 것처럼 서있다. 그리고 성성한 두 눈동자가 말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 시대를 흔들었던 법문. 그 법문을 책으로 다시 듣는다. 원택 스님의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2〉, 〈성철 스님 행장〉이다.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이번 책은 큰스님을 20여 년간 시봉했던 상좌 원택 스님이 스승과 일상 속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들려준다. 법문과 법문 사이에 스님의 흑백사진들이 실려 있고, 각 권 말미에는 발표되지 않은 스님의 돈오돈수 요점 육필원고가 실려 있다.

성철 스님이 병풍을 두르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1955년경의 사진이다. 1권에서는 스님의 법어들 중 불교의 근본 교리인 중도이론을 비롯해 마음의 눈 뜨기, 본래불, 불공 등에 얽힌 이야기들을 실었다. 이 번 책의 백미는 법문도 법문이지만 격면으로 실린 큰스님의 흑백사진들이다. 특히 2권에는 백련암 은거 30여년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실려 있는데, 한 장 한 장 책을 넘길 때마다 깊어가는 스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진흥왕 순수비에 기대어 세상을 굽어보는 모습, 나옹 선사 부도 앞에 청담 스님과 나란히 앉은 모습, 은진미륵 부처님 앞에 선 모습, 해인사 선방에 들러 용맹정진하고 있는 대중들을 둘러보는 모습 등 법문과 법문 사이에 배치된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책 속에 찍혀 있던 활자들이 육성으로 들려온다. "흔들리는건 바로 너그들 마음이야" "중간이나 중용은 중도 아이대이" "서로가 부처님이니까 우리 서로 섬기자, 이말이다" "황금사슬도 사슬이지" "방장 스님은 법정 수좌를 좋아해" "목탁 두드려 장사하는 건 부처님 팔아묵는기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공부도 안 한 것들이 법문은 무슨 법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샘물 같은 법문들과 청담, 자운, 지관, 법정, 서옹, 보성 스님 등 동시대를 살았던 도반과의 일화들, 한국불교를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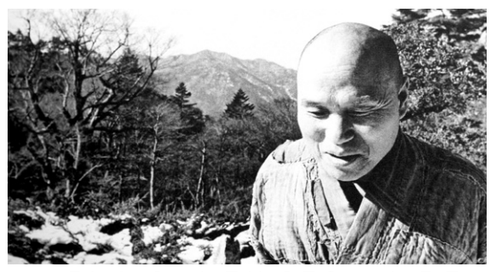
한 시대를 흔들었던 법문
20년 시봉 상좌의 결집
성철 스님의 생애 한 눈에

"막상 일을 당하고 보니 어디서부터 무얼 해야 좋을지 막막했습니다." 2권 후반부에서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이 입적했을 때를 회상한다. "가야산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1993년 11월 10일, 40년간 누더기만 입었던 성철 스님은 노란 국화꽃으로 뒤덮인 법구차에 모셔져 10만에 이르는 애도인파의 행렬을 헤치고 다비장인 연화대로 향했습니다. 주변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를 꽉 막히게 하고서 걸어오는 인파까지 하면 30만에 이른다니, 가히 해인사 창건 이래 최대의 인파였다고 합니다. 평생 산에 머문 산승 성철 큰스님은 세상을 크게 울리시면서 58년간 지킨 산문을 그렇게 떠나셨고, 남은 저의 마음엔 '살아 계시는 동안 왜 좀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라는 뉘우침이 가득했습니다." 이어 스님의 다비식 사진이 실려 있다. '연화대에서 거화하는 모습. 1993년 11월 10일 오후 1시 쯤' 이란 캡션이 달린 스님의 마지막 사진으로 제자의 결집은 끝난다.

〈성철 스님 행장〉은 1912년 성철 스님 출생부터 1993년 입적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연령순으로 기록된 스님의 행적과 더불어 그 시기의 불교계 정황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불교보다 더 나은 진리가 있다면 또 찾아 나서야제!" 그렇게 진리를 찾아 구도의 길을 걸어갔던 수행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 민족의 역사와 왜색불교 털어내기, 불교정화운동, 10·27 법난, 돈오돈수 논쟁, 실천불교의 등장 등 한국불교 백여 년의 역사를 성철 스님의 생애와 함께 만날 수 있다.

책을 엮은 원택 스님은 "만고의 진리를 향하여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련다는 원을 세우고, 그 진리를 불교의 중도사상에서 찾아내신 성철 큰스님. 중도의 깨달음을 보다 쉽게 일러주시기 위해 여러 학문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드심으로써 한국불교의 품을 한껏 넓혀주신 큰스님. 성철 큰스님의 탄신 백주년을 맞이하여 그 크신 가르침과 은혜를 우리 모두 골고루 누려보았으면 합니다."고 책을 엮은 소회를 서문에서 밝혔다. 〈성철 스님 행장〉은 사라진 '성철' 이란 삶의 중창불사다. 사라진 절터에 다시 당우를 세우는 심정으로 더듬어간 한 순간 한 순간이 이제 낙성식을 가졌다. 정성 담긴 결집과 중창에 두 손 모은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o@hyunbul.com



누더기 장삼, 인자한 미소, 큰스님 얼굴 위에 바스러질 듯 내려앉은 가을 가야산의 햇살. 정겨운 산중 수행승의 오후 한나절 모습이 이 사진에 잘 담겼다 싶다. 큰스님의 음성이 금세라도 들려올 것 같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의 나옹 선사 부도탑에서 청담, 성철 두 스님의 모습이다. 천보산 끝자락에 자리한 회암사 터는 1997년부터 옛 절터에 대한 발굴 및 종합정비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고려 및 조선으로 이어진 국찰답게 일반 유물과 더불어 경복궁에 사용되는 봉황과 용이 그려진 기와, 백자접시, 잡상 등 일반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다.



제1회 전국선원 선화자 대회에 참석한 서암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은 당시 봉암사 조실이셨고, 성철 스님(사진 중앙)이 입적하신 후 그 뒤를 이어 종정으로 추대된 어른이시다.

마음공부 길 안내하는 법문집

있는 그대로 보아라

허정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3천원



"삼학산에 봄이 왔습니다. 매년 오는 봄이지만 올 때마다 반갑고 새로운 것이 봄입니다. 어느 계절인들 신선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봄은 다른 계절에 비해 반가움이 큽니다. 기다림이 길어서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라〉는 파주 심학산 약천사 주지 허정 스님이 수행과정에서 틈틈이 기록한 법문집이자 불자들의 마음공부 길을 안내하고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에세이집이다. 책에 실은 법문은 저자가 여러 해 동안 법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 한 권의 책이 됐다. 부처님 최후의 진실한 가르침인 법화경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담고있는 보왕삼매론의 법문들을 수험생의 참고서처럼 생활법문으로 풀어놓았다. '있는 그대로 보아라' 가장 쉬운 주문이고 가장 어려운 실천이 아닐까. 그래서일까. 스님은 책 표지에 '조고각하(照顧脚下)' 라고 당부하고 있다. 댓돌 위의 신발 한 켤레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르침의 첫 걸음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지금 여기가 극락이고 지옥입니다. 오늘도 부처가 부처를 만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평등이고 보이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느끼는 그대로가 불성이어서 덧칠하지 않은 그 순일무잡(純一無雜)이 정토요 극락입니다."

서문엔 글과 함께 스님이 봄볕의 마당을 사뿐히 걷고 있다. 정말 봄을 기다렸던 것 같다. 어느 법문인들 봄처럼 반갑고 새롭지 않은 것이 있을까. 역시 미망의 중생에게는 법문처럼 반갑고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다렸던 봄처럼 반가운 법문집이 봄바람처럼 다가왔다. 봄바람 부는 마당으로 나가볼 일이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 불교의 '도에 이르는 말' 이라 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과 보살행을 겸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생활수행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재완 기자**



허정 스님은
1965년 동화사로 출가. 의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6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2년 뒤 법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제10대 중앙종회의원, 대구 용연사 주지, 서울 북아현동 금륜사 주지(창건), 조계종포교원 연수부장, 경찰청 경승 등을 지냈다. 1995년부터 파주 심학산에 약천사를 창건, 도량불사를 하며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조선 명의 사암도인 삶 소설로

침객 1,2,3

박광수 지음 | 정신세계사 펴냄 | 각권 1만3천원



'침구요결' 이라는 책 한 권만을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져 간 조선의 명의, 사암도인의 삶을 재구성한 소설이다. 사암도인은 사암오행침이라는 독특한 침술을 창안해낸 전대미문의 의학자였음에도 그 행적은 물론이고 본명과 생몰연대조차 기록이 없다. 알려진 것은 〈침구요결〉에 적힌 '사암도인' 이라는 이름뿐이다. 아마도 그는 가난한 백성들 틈에서 '의술은 곧 인술' 이라는 참된 의원의 도리를 실천하다가 홀연히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침구요결〉의 행간에서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불교와 도교를 넘나드는 정신적 사유를 읽어낸 저자는 소설 속의 사암도인을 '대동세상' 을 꿈꾸다 역모로 몰려 참수당한 정여립의 외손자로 설정했다.

"굳이 저를 기억해주시겠다면, 침이나 놓고 다니는 떠돌이일 뿐이니 그저 침객(針客)이라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침객 잘 가시오."

그는 언제 어디로 간 걸까. 역사적 사료가 전무한 한 사람의 삶이 소설로 복원된 이유는 그의 삶에 무언가 들여다볼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빈부를 따지지 않고 인술을 실천한 한 침객의 이야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인간성에 따뜻한 바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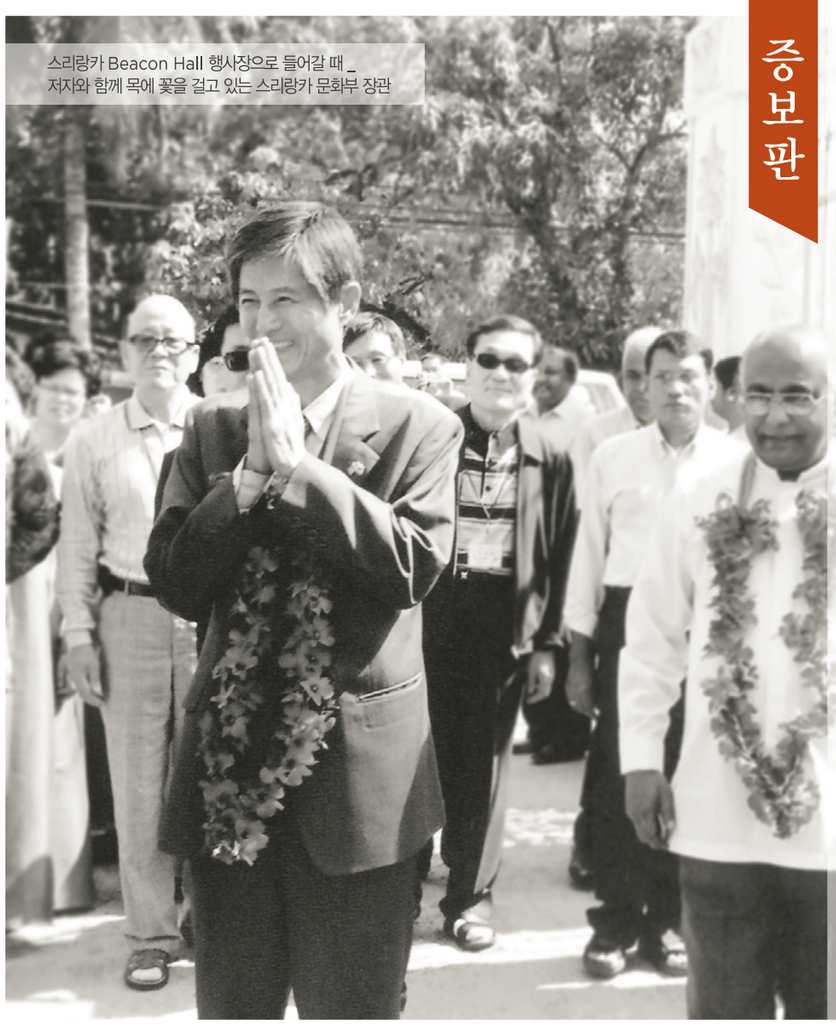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8~4/2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탄허록	탄허	휴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친절한 간화선	월암	담앤북스
6	원하고 행하니 이루어지더라	보경	불교시대사
7	걱정말고 기도하라	법안	은행나무
8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글씨미디어
9	당신은 행복한가	달라이 라마	문학의숲
10	경허	일지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시인, 선승으로서 경허 궤적 쫓아



경허
일지 지음
민족사 펴냄
1만3천원

"선함과 악함이 부처와 호랑이보다 더하신 분 / 바로 경허선사이시다 / 돌아가셨으니 어느 곳을 향해 떠나셨는가 / 술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만공 월면)"

만공 스님이 스승의 입적 소식을 듣고 〈경허법사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聞鏡虛法師遷化吟)라는 시를 읊었다. 만공 스님이 써 내려간 시에서 '술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는 구절에는 제자 만공이 파악한 스승 경허의 고독했던 일생을 함축하고 있다. 술은 세속의 술이 아니다. 꽃밭은 세속의 꽃밭이 아니다. 경허 스님의 술은 자신을 이류중행(異類中行, 중생 속으로 들어가다)에 몰아넣기 위한 미망의 술이며, 꽃밭은 경허 스님 자신이 선택한 가시밭이다. 경허 스님은 삼수갑산에서 쓸쓸히 입적했다. 당시 경허 스님의 저고리 속에는 다음의 게송이 들어 있었다.

"삼수갑산 깊은 골에/ 속인도 아니요 중도 아닌 송경허라/천리 고향 인편이 없어 /세상 떠난 슬픈 소식은 흰 구름에 부치노라"

경허선사가 열반한지 100년이 되었다. 곳곳에서는 선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경허 스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느닷없이 제자와 길을 가다가 아낙에게 입맞춤을 하고 줄행랑을 치고, 술이 좋아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승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비도(非道)적인 모습이 그의 전부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불결한 피가 흐르는 한 선조의 존재를 감추려는

한국불교의 전통 복원한 선승
체류지 답사 통해 禪세계 조명

후손들처럼 쉬쉬하며 경허스님의 삶과 선(禪)을 묻어버리려 했다. 그러나 경허 스님의 존재는 거대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아직도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 현재 한국선이 경허 스님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음에도 정작 경허 스님은 막행막식의 기행을 일삼은 파계승, 선문의 이단자로 외면당하고 있다.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미치광이' 쯤으로 여기는 이도 있다.

경허 스님은 봉건적 잔재를 깨부수고 오염된 조선불교를 깨끗이 씻어냈다. 경허 스님을 통해 한국불교는 다시 생성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허 스님 문하에서 배출된 고승들이 주도한 1954년 이후 불교정화 운동에 의해 현대 한국불교가 그 목소리를 가진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불교는 경허 스님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허 스님은 잿밥에만 골몰하며 목탁을 두드리던 구한말 불교계에 선의 정신과 선종교단으로서 한국불교가 지녀야 할 전통의 복원을 이룬 인물이다.

만공이 스승 경허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술이 있으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합니다만, 스님은 왜 그렇게 술을 드시는 겁니까?" 경허는 만공의 말꼬리를 끊으며 말했다.

"허 참, 자네는 아주 도가 높네 그려. 나 같으면 술을 먹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밀씨를 구해서 잘 키워 술을 빚어서 마시고 또 마시겠네. 또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파씨를 구해다가 잘 가꾸어서 파전을 먹고 또 먹겠네."

경허는 무너져 가는 조선을 걱정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누어도 편치 않구나' 라고 노래한 우국(憂國)의 선승이었다. 경허는 한국선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이기도 했다. 그리고 경허는 실종자이기도 하다. 경허의 실종과 불귀(不歸)는 망국(亡國)의 조선, 식민지 대한제국의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도 조선적인 비극이 응축되어 있다.

경허의 생애가 후대에 전해지고 검토되는 기준에는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는 전

경허의 실종과 불귀 조선비극 응축
기행 일삼은 이단자 오명 변호 노력

승과 기록으로 전해지는 전기(傳記)가 있다. 기록으로 남겨진 전기는 연대(年代)와 그 인물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장치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구전된 이야기들은 선사로서의 엄숙함은 찾아볼 수 없고 때로는 엉뚱하기조차 하다.

이 책은 현대 한국선의 달마, 경허에 관한 필자의 오랜 그리고 절실한 사랑의 기록이다. 저자는 이 평전을 쓰기 위해서 수년간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의 체류지를 답사했다. 또한 경허선(鏡虛禪)의 세계를 축약해 전하는 1943년판 원본 〈경허집(鏡虛集)〉을 몇 번이고 숙고하며 읽었다.

특히 저자는 경허의 길을 추적했으며, 왜 경허 스스로 이단자라는 운명을 감수하고 저 북방고원에서 방랑자로 쓸쓸히 소멸했는지 변호하고자 노력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자르고 버리면 모든 것 가지런해져"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스님 지음 | 공감 펴냄 | 1만4천원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듣는 음악'에 정목입니다."

주말 저녁 FM 불교방송.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음성이 귓가에 내려앉는가 싶더니 마음에 젖어든다. 어머니 손길 같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음성에 먼저 반하고,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말씀의 내용에 다시 반한다.

그렇게 스님의 팬이 된 사람들은, 마음공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유나방송'과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정각사 법회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트위터에 올라오는 스님의 글에 다시 매료된다. 이 책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 삶

정목 스님 트위터 글 한데 묶어
특유의 맑음, 서정성 향수 불러
22편의 에세이…마음 평화 전해
상처입은 이들에게 글로 위로

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글과 말씀에 의해 저절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오게 되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에게 스님의 말씀은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의 음성처럼, 때로는 세상 먼지에 찌든 심신을 깨워놓는 죽비소리처럼 청정하게 울려 퍼진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핀 나팔꽃이나 채송화 같이 맑은 비구니 스님 특유의 깨끗한 서정은 잊고 있던 동심을 일깨우며 우리 마음에 아련한 향수를 불러오기도 한다.

책은 '처음 만난 별에서' '세상에 꽃이 필 때' '내 마음의 리모컨',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만난 별에서'는 서문을 대신해 책 전체의 주제가 될 만큼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투명한 언어로 들려주는 삶과 죽음, 존재에 대한 각성은 낯선 것을 친근하게, 익숙한 것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커다란 힘이 있다.

"풀잎 위 죽은 잠자리/살아서도 가볍고 /죽어서도 가볍네.
살아서도 아름답고/죽어서도 아름답네.
악취도 없고/땅을 더럽히지도 않네.
사람의 시신도/저렇듯/가볍고 아름다울 순 없을까?" (처음만난 별에서 중에서)

'세상에 꽃이 필 때'는 표제작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비롯한 스물두 편의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다.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에서는 장 루슬로의 시를 소재로, 우리의 욕망을 돌아보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들려준다. 이 밖에도 두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틀에 맞춰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세상의 기본', 고양이 이야기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오해에서 벗어나는 법을 들려주는 '꼬리의 미학' 등 에세이마다 수십 년간의 봉사 활동과 상담을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을 다독이고 위로해 온 스님의 경험과 지혜가 넉넉히 녹아들어 있다.

'내 마음의 리모컨'은 감사, 고통, 분노, 사랑, 성장, 자비, 집착, 화해, 건강, 평화, 행복 등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 따라 나눠지며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소개된다. 어떻게 하면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지, 집착과 미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짧지만 마음을 울리는 경구와 일화 중심의 이야기는 유익하며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정목 스님은 말한다. "나를 소모시키는 일은 하지 마세요. 자르고 버리고 하다보면 모든 것이 가지런해집니다. 인생 그 자체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의미는 나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라고.

김주일 기자

정목스님 약력

1976년 출가한 정목 스님은 1990년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첫 비구니 MC'로 활동했다.
이후 1991년 한국방송대상 사회상을 수상, 1992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진행자상을 수상했다. 1995년부터는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 '작은 사랑'을 시작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불교방송 FM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진행중이다.
2006년 2월부터는 현대인들에게 명상을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2007년 인터넷 사이트 유나방송(una.or.kr)을 개국했으며, 현재 34개국 4만5천 회원들에게 마음공부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정각사 주지로 있다.

무상, 마조, 구산선문 발자취 소개

동아시아 선의 르네상스를 찾아서

정운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8천원



무상 대사는 신라 때 왕자로서 44세에 당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입적한 선사이다. 무상 대사에 관해 표출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무상이 왕실에서의 보이지 않는 암투와 절망에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무상 대사가 느낀 인간에 대한 비애와 무상함이 일반 평민보다 뼈저리게 절실했던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을 구하고자 하는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리라 짐작된다. 저자는 왜 무상 스님이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세속 나이로도 적지 않은 40대에 타국에 들어가 이국땅에 유골을 묻어야 했는지 저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화두였다.

이 책서 소개된 또 하나의 선지식 마조도일은 당나라 최고의 선사이자 조사선의 개조라 칭한다.

한국불교와도 연관이 깊다. 조계종의 근원이 되는 나말여초의 구산선문 가운데 7산문과 뭇 승려들이 마조계 법을 받아와 신라 땅 곳곳에 산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무상 대사와 나말여초의 구법승들 사이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끊을 수 없는 한국인의 연이 맞닿아 있다.

이 책 구성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무상 대사와 마조 스님의 행적지 순례이고, 2부는 구산선문 사찰 순례이다.

김주일 기자

산에서 맺은 인연들이 내 평생 멘토

내 가슴에 묻은 별

엄홍길 지음 | 중앙북스 펴냄 | 1만2800원



엄홍길 대장은 이 책을 통해 2010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해발 8091m) 남벽에 코리안 루트를 내기 위해 올랐다가 실종된 박영석 대장과의 인연을 책에서 처음 공개한다. 저자는 박영석 대장은 오랫동안 그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이자 사랑하는 후배였음을 전한다. 1989년 겨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박영석 대장을 처음 만난 순간, 박영석 대장이 랑탕리 등정에 성공하기까지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지낸 특별한 추억, 1992년 여름 엄홍길 대장이 낭가파르바트(해발 8126m)에 도전하다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일부를 잘라냈을 때 겪었던 큰 좌절을 박영석 대장이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워준 이야기까지. 때론 친형제처럼, 때론 둘도 없는 등반 파트너로 지냈던 산사나이들의 우정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또한 함께 산을 오르다 목숨을 잃은 여성 산악인 지현옥, 그의 소중한 후배이자 분신으로 여긴 박무택, 동상으로 잃은 엄지 발가락만큼 아픈 후배 박병태 등 엄홍길 대장의 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들과의 이야기도 소개됐다.

이 책에는 엄홍길 대장 인생에서 많은 도움과 사랑, 힘을 준 또 다른 멘토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용국사
● 주 소 : 경남 의령시 의령읍 하리 840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대한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법하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5월 6일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합반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특 혜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존된 까닭은?

삼국통일 공로 인정 사후 '武' 존재감 부각

1. '삼국통일' 의 주역

우리 민족은 자나 깨나 '남북통일' 이란 화두를 들고 있다. 이 화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또렷또렸[惺惺]하고 고요고요[寂寂]해야만 타파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북 분열로 가라앉아[昏沈] 있고 남남 분열로 들떠(悼擧] 있다. 과연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통합하고 통일해야 할 것인가. 신라는 과거 사국 혹은 삼국의 분립시대에서 가야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여 '한민족의 원형' 을 열었다. 그리하여 고조선 해체 이래 신라의 삼국 통일을 통해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연대감을 최초로 확보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국 또는 삼국이 통일되던 역순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지 반문해 보게 된다. 단지 '총선' 과 '대선'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립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저 고대의 사국 또는 삼국의 분립시대 이래 그렇게 되어온 것일까.

우리는 일제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자력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었고 6.25가 일어났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분열의 시대를 경험해 오고 있다. 과연 이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앞당길 수는 없을까.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야 민족의 통합을 앞당길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김유신과 같은 통일의 주인공이 필요하고, 원효와 같은 통합의 사상가가 필요하며. 김춘추와 같은 외교가와 문무왕과 같은 지혜로운 군주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왕건과 같은 통치자, 도선과 같은 사상가, 일연과 같은 역사가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들 같은 지도자와 사상가가와 역사가가 우리에게는 준비되고 있는가 되묻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야출신이었던 김유신의 증조부(仇亥)가 사국 중 가장 약소국이었던 신라에 귀부한 이래 그 증손인 김유신이 삼국통합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남북 통일 과정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과연 우리는 남북의 분단을 겪고 있는 지금 '삼국통일' 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워올 수 있을까.

삼국 분열의 시대에선 '통합' 이 제일 의제

〈삼국사기〉 김유신 어떤 제왕보다 자세히 기술

분열의 시대에는 '통합' 이 제일 의제(擬制)가 된다. 통합은 물리적인 통일과 달리 화학적인 융섭을 의미한다. 해서 물리적 '통일' 과 화학적 '통합' 은 우리 민족의 제1의 화두라 할 수 있다. 남북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물리적 통일이 요청된다. 그리고 '한민족' 이라는 정신적 화학적 통합이 요망된다. 정신적 화학적 통합은 두 개 이상의 정치적 물리적 분리의 일통을 의미하는 '통일' 과는 변별된다. 문제는 물리적 통일 이후에 화학적 통합을 해야하는가. 아니면 화학적 통합 이후에 물리적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면 통합과 통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가. 통일과 통합을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살아서는 삼한 일통을, 죽어서는 삼한 통합을 위해 헌신한 김유신(595)에게서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일 당시의 백제가 일본이고 고구려가 중국이고 러시아가 가야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또다시 바다 건너 미국의 힘을 빌어야 될 것인가.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주역이다. 중국 정사인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에는 조조와 제갈량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다. 진수는 조조(曹操)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정밀하고 자세하게 기술했다. 반면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와 조조가 주인공이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김유신 전(傳)에 많은 부분(41~50권)을 할애했다. 그는 삼국시대 인물 51인을 다룬 전(傳)에서 김유신의 '열전' (列傳)을 상중하의 3권(열전 1~3)에 걸쳐 싣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인물들(50인)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이며 또 어떤 제왕보다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경주 김씨인 김부식은 김해 김씨인 김유신을 특별히 높여야 할 까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국사기』에서 김유신을 '주인공' 으로 삼고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대국(중국)과 유교사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김유신에 대한 기록 등에서처럼 자주적 사관을 견지하려고 애쓴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점이다.

2. 토착신앙에서 불교신앙으로

김유신 제사 지내며 토착신앙과 관계

천관녀 기리기 위해 천관사 지어줘

진흥왕은 청소년 수양단체인 원화(源花)를 두어 국가의 미래를 기약했다. 하지만 아름다운[美] 소녀들 30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주로 '제사' 를 담당했다. 하루는 원화 교/준정낭이 남모(南毛)낭을 시샘하여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왕은 교정을 죽이고 원화제를 폐지해 버렸다. 여러 해 뒤 진흥왕은 나라를 흥성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고 결심하고 '오리지날 화랑' 인 '원화' 에 이어 미(美)소년으로 구성된 풍월도를 시설했고 여기에 소속된 화랑들은 심신 수양을 목표로 했으나 점차 '전쟁' 을 담당했다. 이들은 시조묘(始祖廟)에 사철마다 제사를 지내고[四時祭之] 하늘과 땅 및 산과 물[龍] 등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며 토착신앙을 이어나갔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고 17세는 용화향도가 된 뒤 단석산 석굴 속에 들어가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토착신앙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불교의 난승(難勝)노인(보살)을 만나 비법(秘法)을 전수받은 뒤 18세에는 국선(國仙)이 되어 용화향도를 이끌었다. 당시 신라 왕궁인 월성 남쪽의 도당산(陶堂山) 주위에는 사령지(四靈地)가 있었다. 신라 왕들은 즉위한 다음 해에 이곳 영지의 신궁(神宮)에서 즉위의례(即位儀禮)를 거행하였다. 귀족들은 이곳에서 정사를 논의하면서 도당정치를 펼쳤다. 김유신이 국선(國仙)이었을 때 화랑도에 속해 있던 고구려 첩자 백석(白石)이 그를 고구려 정세를 살펴본다며 유인해가자 내림(奈林, 경주 남산)과 혈례(穴禮. 영천 금강산)와 골화(骨火, 경주 烏山) 등 세 곳의 호국신들이 나타나 위급을 알려주었다.

이들 호국신의 도움에 의해 사로잡은 백석은 김유신의 전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백석은 고구려 국경에 물이 역류하는 까닭은 고구려 선비 추남(楸南)이 고구려 대왕의 부인이 음양의 도[陰陽之道]를 역행한 징조 때문이라고 점을 쳤다. 이 때문에 그는 왕비의 노여움을 샀다. 왕비가 함 속에 쥐 한 마리를 감추고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를 물으며 틀리면 중형을 가하겠다고 하였다. 추남이 '쥐 여덟 마리가 있다' 고 맞추자 말이 틀린다' 며 그를 죽이려 하자 그가 '내가 죽은 뒤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 이라 맹세하였다. 왕의 꿈에 그가 신라의 서현공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군신들에게 알리자 '과연 그렇게 되었다' 고 하였다. 이에 김유신은 백석을 을 죽인 뒤 온갖 음식을 갖추고 세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신들이 모습을 드러내 제사를 받았다. 이 일화는 김유신이 토착신앙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젊은 시절 토착신앙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김유신은 도당산 주위의 영지에 드나들면서 제사를 담당하던 한 여사제[天官女]를 사랑하게 되었다. 중국 주나라의 6관(天 · 地 · 春 · 夏 · 秋 · 冬官)제 의하면 천관은 하늘에 제사를 주관하는 부서였고 그녀는 여사제(女司祭)였다. 하지만 가야계 후예로서 공을 세워 진골 귀족에 새로 편입된 아버지(서현)와 결혼(김부식은 '野合' 이라 기록)하여 갖은 어려움을 겪은 어머니 만명(萬明)의 간청으로 김유신은 천관녀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였다. 어느 날 잠든 사이에 애마가 성지(聖地) 도당산의 천관녀 처소에 이르자 그는 말의 목을 베고 그녀와의 인연을 끊었다. 결국 토착신앙을 담지하는 여사제[天官]란 신분 때문에 김유신에게 버림을 받은 천관녀는 머리를 깎고 김유신을 위해 평생 기도를 하며 삶을 마감하였다. 훗날 김유신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그녀가 머물던 곳에 천관사(天官寺)를 지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라의 대들보이자 수호신이 된 김유신을 신라왕실은 사후에 흥무대왕으로 추대했다. 사진은 김유신 영정

3. '흥무대왕' 의 추존

사후 162년 흥덕왕에 의해 '흥무대왕' 추대

왕 아닌 이 '대왕' 으로 추존된 유일한 예

선덕여왕 재위 16년에 일어난 비담(毗曇)과 염종(廉宗) 등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 하여 반역을 도모하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큰 별이 떨어지자 비담 등이 병사들에게 여왕이 패할 징조라고 병졸들에게 알렸다. 이에 김유신은 허수아비 속에 불씨를 넣어 풍연(風鳶)을 만들어 하늘에 올라가게 하였다. 이튿날 사람을 시켜 '어젯밤에 떨어진 별이 도로 올라갔다' 고 퍼트리게 하였다. 결국 적군으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게 하여 위기를 역전시킨 뒤 난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김춘추와 연합하여 진덕여왕을 세운 뒤 다시 알천 등과 타협하여 김춘추를 무열왕에 옹립하였다. 김춘추가 '태종' 이라 일컬은 것을 당 고종이 문제를 삼자 신라왕은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이나 성스러운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태종이라 봉하였다' 고 표문을 보냈다. 당 고종이 태자시절에 하늘에서 "33천의 한 사람으로 신라에 내려왔으니 그가 바로 유신이다"고 들었던 노래가 생각나 태종 칭호를 고치지 말도록 허락을 받기까지 하였다.

또 소정방이 신라 독군(督軍) 김문영(金文潁)이 늦게 왔다는 이유를 들어 군문 앞에서 목을 베려 하자 김유신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대장군이 황산의 싸움을 보지 못하고 늦게 왔다고 죄를 주려는 모양이나, 나는 결코 죄없이 욕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당군과 먼저 싸움을 결정한 다음에 백제를 부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자 소정방이 마침내 김문영의 죄를 묻지 않게 되었다. 일찍이 화랑이 된 뒤 용화향도로 편입되어 국선에 올랐던 그는 여러 전장에서 공을 세워 높은 자리에 나아갔다. 진평왕과 선덕여왕을 거쳐 진덕왕 때에는 최초이자 최후인 '태대각간' 에 올랐으며, 뒤에는 상대등에까지 올랐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정치적 동반자가 되어 평생을 신라의 통일대업에 헌신하였다.

금관가야의 말왕이었던 그의 증조부 구해(仇亥)는 신라에 나라를 바치고 귀부하였다. 그의 아들 무력(武力)과 그 아들 서현(舒玄)은 큰 공을 세워 어렵게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었고 김유신은 신라 중심의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그의 둘째 누이인 문희와 첫째 누이 보희는 모두 태종 무열왕에게 시집을 갔으므로 왕에게 그는 처남이 되었다. 그리고 태종왕의 셋째 딸인 지소(智炤)와 결혼함으로써 왕의 사위가 되었다. 이처럼 김춘추와 피로 맺은 혈맹에 의해 가야계인 김유신은 온전한 가야계 '신라인' 이 되었다. 그의 동생인 흠순(欽純)과 그의 사위인 인문도 신라의 통일대업에 동참했으며 그의 아들 다섯 형제와 딸 넷 모두 헌신하였다. 김유신이 죽자 그의 아내 지소부인은 머리를 깎고 베옷을 입고 비구니가 되었다.

김유신은 보통사람과 달리 살아서는 하늘과 신령과 교통하면서 삼국 통일을 위해 헌신하였고 죽어서는 신라의 호국 신령이 되었다. 김유신이 '흥무대왕' 으로 추존된 까닭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기록하고 있다.

김유신 사후 100년 쯤인 신라 혜공왕 때 한반중에 괴성이 울려 퍼졌다. "내가 삼국을 통일하고 신라에 온갖 충성을 다 바쳤는데 신라 왕가는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며 그는 신라를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신라 왕실은 제사를 올려 김유신을 위로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는데 쓰이는 토지를 열배 가까이 늘렸다. 그 때문일까. 김유신은 신라를 떠나지 않았다. 김유신은 사후 162년이 지난 흥덕왕[興德王, 835; 일연은 景明王(914~923)대로 기록]에 의해 '흥무대왕' (興武大王)으로 추존되었다.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은 흥덕왕 때 '흥무대왕' 으로 추존되었다. 그는 왕이 아닌 이가 '대왕' 으로 추존된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야의 왕족 출신의 후예로서 사후에 왕위에 추존된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라의 대들보이자 수호신이 된 그를 신라 왕실은 '무(武)의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킨 위대한 왕' [興武大王]으로 추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역사스페셜, 「김유신은 왜 천관녀를 버렸나」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180 (6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금강호신경
600조 @20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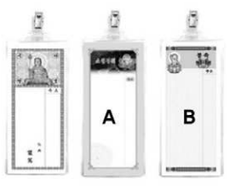
막대제등램프(분홍/연두)
100개이상 @4,500원
정가 6,000원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영가 /방수등표大
판매가 35,000원
• 비닐+등표+집게
• 9.6㎝×22㎝
• 100매 • 250SW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공단등(6㎝)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 @3,3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2,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 @3,3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2,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9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비 단 접 등(10.5㎝) 340,000원(100개)
• 비 단 접 등(12㎝) 350,000원(100개)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방수전선(한줄50구)
23㎝ / 25㎝ / 30㎝ 5줄이상@ 65,000원
50㎝ 1m / 2m 기타주문생산



LED전구
105,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초불색/주광색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봉투 : 19×13cm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500원/ 7,000원/ 25,000원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121068-56-042256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상을 살면서 다음 네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둘째, 지금은 부귀하더라도
곧 가난하고 천해질 수 있다. 셋째, 무엇이든 모이든 반드시 흩어진다
넷째, 아무리 건강한 육신을 가진 이도 죽는다.
– 출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증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파동에너지 양생기공
1. 파동술로 만성질병을 고치는 법
2. 파동술로 가위눌림,빙의,불면증을 고치는 법
3. 파동술로 장시간 병명없이 시달림의 고통을 퇴치하는 법
현재 명리나,풍수,지압,침,활법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권장합니다
051)722-6426 / 011-9785-6426
부산 태백정사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사찰 유,무선 마이크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중고고가 매입
대전 100km 이내지역
한성음향
010-4440-8687

한국불교태고종 범패학인모집
천수바라. 사다라니
복청게. 도량게작법
태징.북.사물다루는법
6개월내 전문가처럼
필요한작법만지도전수
예수재.49재.점안의식
010-3809-4373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범 송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금강송 안내
• 11년생 금강송(3m ~ 3.5m)
• 10그루 이상 분양(선착순 분양)
• 1그루당 15~20만원
• 경북 봉화지역
• 당일 현지 선별 채목
016-573-2032

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천도재,49재 및
각종 불공
바라작법
스님이 직접 만든 은행 엑기스 판매합니다
011-628-1156

상 담 안 내
천도재 최고로 잘 모시는 절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예견
고민 완전해결
대구은행 087-13-035968
010-2125-4684

무료 이름 감정
평생 불리울 이름,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명, 개명, 무료상담
010-4063-0087
지리산 부성사
주지 금봉 합장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심 와 기 도
• 업장이 소멸되면서 운도 바뀌게 되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010-2563-5550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30~50대)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찰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010-9416-7743

대중 불자 스님께!
도현 스님의 기통(氣通)찬
① 심신 병고 (비만, 혈압, 당뇨, 암 · · 고민) 근본 치유 예방
② 염불 · 간화선 · 수행 성취
③ 신속 정확한 운신수 철학
묘법 전수 불사 해결 바람
신불산 불국토 건강도량
心佛정사 道炫 합장
011-855-8180

신심있는 사무장 모십니다
(경기 안성)
010-8954-8033

공양주 구합니다
(강원 양양군 동해사)
033)672-2900
010-4573-8316

행자(출가비구니) 모집
본 사찰에서는 출가수행의 뜻이 있는
신심깊은 불자 행자(비구니) 를 모집합니다.
학력, 나이 무관하고 오직 올바른 수행을 원하는 분을 모집합니다.
(심심해서 하는 전화는 사절)
지장기도 성지 제왕산 지장사 010-6429-5076

햇 차(茶) 주문판매
●특우전 80g 20만원
●우 전 80g 10만원 ●세 작 100g 5만원
●중 작 100g 3만5천원 ●발효차 100g 3만5천원
스님이 만든 지리산야생수제차입니다
도솔암 010-2075-3513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세수 70세 비구스님입니다.
건강이 많이 안좋아
불사하는 마음으로
치료(도움주실)해
주실분을 기다립니다
017-257-6795

기도정진 하시면서 작은암자 맡아 운영하실 분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하신 분
011-688-6622

병 에 서 해 방
그 어떤 병도 원인을 알면 치유할 수 있다.
스님의 신통력과 법력으로 치유한다.
범 용 사 대원스님 합장
연락처 : 055)352-8045 / 010-5453-8611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극락사 사찰 운영 하실 분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노스님 시봉하실분
전북 김제 극락사 납골공원
010-4427-2256

조용한 산사에서 비구니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지리산)
017-569-3722

불사에 동참하실 비구니 스님, 행자,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2)584-8844
010-5354-8484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국내 유일하게 성명만을 강의하는 좋은이름연구원 에서
15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5월 3일(목)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이름에 관한 모든 것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완벽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
· 역학을 5 ~ 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원형이정이나 수리 성명학이 아닌, 사주의 용신을 보안하고 공망과 태과한 오행을 피하며 납갑을 붙여 운의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성명학을 강의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서울에서 유명한 작명소 ▼ goodname114.com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
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위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 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홍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요사 : 33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35평
- 요사 : 85평
- 부지 : 2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14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 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7억 5천

♣ 사무실 이전 안내 ♣

연산부동산 사무실을 3월 중순 만덕동 지하철 1번출구 부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금와산방이라는 조그만 방도 마련하였으니 마음 편히 오셔서 하룻밤(숙박은 무료)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및 부전스님안내

- 사찰 또는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 부전 생활이 필요한 스님
- 사찰만을 전문으로 안내하며 부전스님 안내드립니다.

♣ 부전생활에 필요한 덕목 및 사시예불. 목탁. 전문의식 단기교육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8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방)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5511-7000 / 070-4128-8975

(부산푸른부동산) 혜화. 보현 합장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삼천포 남해안 바닷가
- 전망최고, 위치 최고의 부지
- 토목공사완료, 즉시건축가능
- 4차선국도인접, 진주에서 15~20분 거리
- 1천평에서 2천평
- 가액: 전화상담

010-6776-3308

사찰(급)안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IC 5분거리
- 부지 527평
-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단청
-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 요사채: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실 2)
- 기타: 10평(차고,창고,야외화장실,CCTV)
- 가액: 2억8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54)336-4848
080-048-484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시내 5분 거리 위치)
- 법당 22평, 요사채 (방4,주방2,거실1)
- 은행 융자금 있음
- 부지 740평

010-9056-26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 2층 30평가량, 시설완벽
- 삼존불, 맞춤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600만원

055)277-014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한번 가보고 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 좌향)
- 가액 : 8억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5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 중구 대흥동
- 도심 포교원 최적입지
- 대전역 도보 7분, 중앙시장 4분
- 건평 70평. 3층
- 법당 25평, 방사 4, 차실
- 제반시설 완벽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 42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622-967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울주군
- 면적: 약 500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주차장, 텃밭
- 고속도IC 인근 교통편리
- 해운대 30분 울산 20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

010-5346-4138

건 물 안 내

- 포교원하면 정말 좋습니다
- 부산 송도 최고의 바다 조망권
- 주거밀집지역
- 대지 107평
- 건물 370평
- 가액: 11억

010-8676-277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실버타운, 요양시설, 적지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 모두 갖춘(명당), 식수1급수
- 현, 전원주택(옛날 학교터)
- 554평
- 가액 : 1억 8천만원

011-9517-85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집기일체완비
- 몸만오시면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P계패라시설, 사찰경내지 제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 지리산
- 평수 : 2100평
- 대웅전 30평, 요사채 80평
- 황토한옥 30평
- 용왕각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2리 240번지
- 평수 : 54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각 13평, 5평
- 가액: 1억7천만원

011-571-8961
010-2739-3816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IC 인접 1분거리
- 부지 : 988평
- 청룡 백호 정남향
- 법당1, 요사채2, 심야전기
- 가액: 5억 5천만원
- 현지 답사후 조절가능

010-9417-6633
043)275-0667

대구최고포교원

시작하는스님, 보살, 불사하고싶은분

- 법당15평, 삼존불(금.동불) 후불도, 각단탱화
- 신중, 칠성, 극락, 방2개, 공양간, 상담실, 욕실
- 50평, 옥상50평, 소각장1 (최고시설)뒷산
- 앞 큰대로 전철 3분시장 3분

010-6892-3999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372평, 건평 60평
- 목조 임법당
- 큰방포함 5개
- 주방, 목욕탕 2개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807-570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 (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7억(현지 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청도면
- 대지 150평
- 2층건물
- 1층 요사채 32평, 2층 법당 30평
- 산세수려함
- 가액: 3억 5천만원

010-9058-5353

포교원 안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 1, 방 3, 공양간 1, 창고방 1, 화장실 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명곡동
- 전 1,200평, 2500평, 3600평
- 평당 65만원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통합시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포교원 안내

- 위치: 안양 명학시장 2층
- 안양역. 명학역 도보 10분
- 평수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주방, 침실, 삼존불 모심
- 시설비 없음(시설비 3500만원 이상이나 사정상 임대함)
- 신용과 능력있는 스님 원함

010-549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지하철 2분거리
- 요사채 25평, 공양간 15평 법당 30평
- 작은암자
- 전세 5천에 월세 70만원
- 가액: 5억

011-574-3303
010-2728-1114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 사찰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1-282-6098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검단 신도시
- 2층건물에 2층(기와기붕)
- 법당: 50평
- 요사채: 38평(방3, 거실2,공양간, 욕실2)
- 삼존불, 신중, 소불, 영단(만년위패), 인등
- 보증금 : 5천만원에 월 60만원
- 4차선대로변,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5282-355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7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9억 9천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80평
- 법당 : 27평
- 요사 : 60평
- 가액 : 8억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역 3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7십만원
- 평수 약 60평
- 3층건물에 2층
- 법당, 시설완벽, 살림가능
- 큰방2, 주방, 화장실 2개
- 가액: 4천 9백만원

010-9939-6966
010-4031-6643

사찰(급)안내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근처
- 대지 224평
- 법당 30평, 산신각, 옥외화장실2개, 하우스 1동
- 주차장, 텃밭, 천연염색 가능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1-9588-592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500평, 임법당30평, 요사40평,
-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도량기운 좋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452-8374
010-7164-713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읍 위치 아주 좋음. 대도로 코너집, 뒤에는 산
- 지붕 개량 올수리
- 현재 암자
- 64평 한옥
- 가액 : 8천 3백만원

011-9566-881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사봉면
- 대지 123평
- 건평 20평
- 법당, 산신각
- 가액: 6500만원

010-8829-397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사봉면
- 대지 123평
- 건평 20평
- 법당, 산신각
- 가액: 6500만원

010-8829-3973

사찰(급)안내

- 경북 영천시에서 부석사 중간(산 100~200m 고지)
- 독립구역 5,300평 (관리지역)
- 진입도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인입 완료
- 4개 계단형 부지 토목공사 완료, 바로 건축 가능
- 백두대간이 보이며, 경치가 좋고, 아늑함
- 가액 : 3.3억원

016 - 573 - 2032

포교원 안내

포교원을 개원하실 비구니 스님 보살님 도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위치: 대구시내 • 2층 건물 중 2층 (약 40평)
- 법당, 공양간, 다용도실, 욕실, 시설완벽
- CCTV등 보안 시설 갖춤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2017)
- 시설비 2천 1백만원(답사 후 상의 절충)

053)526-0108/010-3693-5543

농가주택안내

경북 영양군 입암면 마을에서 산쪽으로 외딴곳 남향 대지 124평 내 앞에 건물 18평 뒤에 건물 18평 전부 차진입 급수 전기 즉시 입주 가능함 주소 미공개 주인직 가액 : 4800만원 반값

010-8899-889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구 지하철역 바로 앞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석가관음, 지장, 삼존불, 호신불 약 300불
- 주방, 방2, 화장실 별도
- 보증금 6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A급

051)632-593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3억8천5백만원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 법구경 -

긍정의 뇌 - 뇌졸중이 내게 안겨준 통찰

질 볼트 테일러 (하버드대 뇌과학자)

㈜ 뇌를 다스리는 법

자동회로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삶의 운전대를 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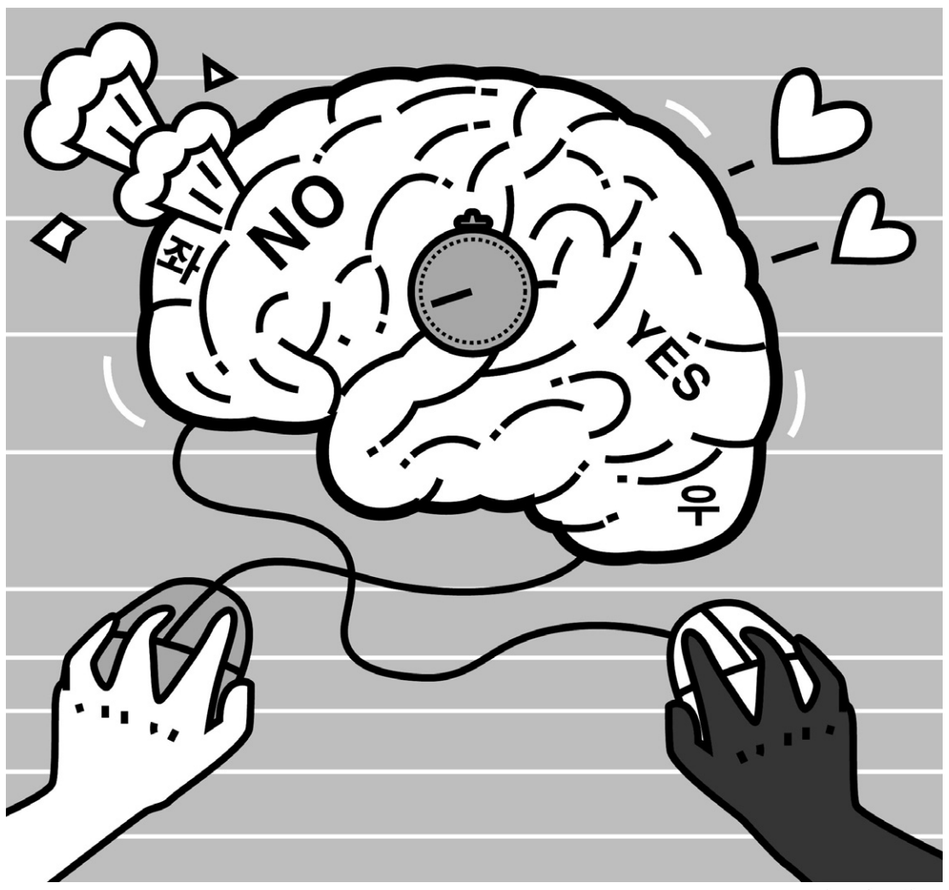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

나는 책임감이란 '특정 순간 감각계로 들어오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영어로 책임감을 뜻하는 'responsibility'는 반응response하는 능력ablility 이다).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변연계 감정 프로그램도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됐다가 완전히 멈추는 데 90초 정도가 걸린다. 가령 분노라는 감정은 자동적으로 유발되도록 설계된 반응이다.

어떤 계기로 인해 뇌가 분비한 화학 물질이 몸에 차오르고, 우리는 생리적 반응을 겪게 된다. 최초의 자극이 있고 90초 안에 분노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의 자동 반응은 끝이 난다.

그런데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그 회로가 계속해서 돌도록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신경회로에 다시 접속할지, 아니면 감정을 스쳐지나가는 단순한 생리현상으로 사라지게 할 지 선택하는 것이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성격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어떤 상황이든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양의 물이 든 컵을 보고도 물이 겨우 반밖에 안 찼다고 할 수도 있고, 반이나 찼다고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이 분노와 좌절로 나를 대할 때, 나는 여러분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 싸움을 걸 수도 있고(좌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에 공감해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다(우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매순간 어떻게 반응할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이때 미리 프로그래밍된 반응의 패턴(변연계)에 익숙해져 자동조정 장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가 쉽다.

나는 고차적 피질세포가 변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더 많이 주목할수록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동회로가 선택을 내리는지 주시하면서 힘을 기르고 의식적으로 더 많은 선택을 내린다. 장기적으로는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책임지려는 것이다.

어떤 고통스런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그 감정 회로에 접속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괜찮아진다. 결국 그 생각을 멈출 의식적인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몸 상태나 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언제든 오른쪽 의식으로 넘어가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우뇌)을 선택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해야

뇌량으로 양측반구가 정교하게 얽혀 있는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를 단일한 개인으로 지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각자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예상외의 큰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아찔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제정신(평화로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나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건강하게 조화시키려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우주만큼 거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주위의 에너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자각할수록 내 생각과 감정에 더 큰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설령 부정적인 사건에 맞닥뜨리더라도 내가 기꺼이 오른쪽 의식으로 넘어가 포용력을 발휘해 상황을 헤쳐나간다면, 그것은 귀중한 삶의 교훈이 될 것이다.

왼쪽 뇌의 언어 중추와 이야기꾼 기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자 내 마음은 무모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부정적 사고나 감정의 순환 회로에서 빠져나오는 첫 단계는 이런 회로에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이다.

공평한 증인의 입장에서 뇌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려면 연습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이 기술을 터득하고 나면 이야기꾼이 만들어내는 귀찮은 극적 사건과 정신적 외상을 자유자재로 넘어설 수 있다.

뇌가 지금 어떤 인지적 회로를 가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나면, 이제 이런 회로가 내 몸안에 생리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집중한다. 가슴이 답답한가? 머리가 멍한가? 속이 불편한가? 안절부절못하거나 불안한 기분인가? 공포, 불안, 분노의 신경회로를 가동시키는 자극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회로가 가동되면 일관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므로 여러분은 이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다.

뇌가 아주 단정적이거나 비생산적이거나 통제 불능으로 느껴지는 회로를 가동할 때면, 나는 정서적 · 생리적 반응이 사라질때 까지 90초를 기다린다. 이어 아이를 대하듯 뇌에게 차분하고 거짓없이 말한다.

'생각하고 느끼는 네 능력은 높이 사지만 나는 더 이상 이런 생각이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지 마.'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진실 어린 목소리로 생각만 해서는 제 기능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이야기꾼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다. 내가 알아낸 바로는 여기에 적절한 감정을 덧붙여 진심인 것처럼 생각해야 이야기꾼이 더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뇌와 몸의 세포 가운데 99.999퍼센트가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되기를 바란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머지의 작은 일부가 문제다. 이는 내 기쁨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 패턴을 탐구하기 좋아한다.

나는 이런 세포 집단들을 훼방꾼, 말 많은 이사회 임원 등으로 부른다. 언어 중추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숙명과 우울의 고리를 능수능란하게 가동하는 장본인들이다. 이런 세포들이 질투, 공포,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활성화시킨다.

감정은 자동유발 되도록 설계된 반응
90초안에 화학성분 혈류서 빠지면 멈춰
신경회로에 재접속 하면 감정 지속

뇌의 소리 듣는법 연습 · 기술 터득해야
부정적 회로 주시… '마음의 정원' 가꾸자
생리적 감정에 굴복 90초 주기 기다리자
하루에도 수천번 긍정적 결정 내리자

뇌의 부정적 이야기꾼은 고작 땅콩 크기

나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믿는다. 내부의 언어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마음의 깊은 평화를 발견하는 첫걸음이다.

나는 뇌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꾼의 비중이 고작 땅콩 크기밖에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힘을 얻었다. 이런 짓궂은 세포들이 침묵한다면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

한편 몸이 피곤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 긴장을 놓고 있을 때도 이런 부정적 회로가 불현듯 작동한다. 따라서 계속 주시해야 한다. 그래야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싶은 감정을 느끼며 살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려면 순간순간 마음의 정원을 착실하게 가꾸고, 하루에도 수천 번 긍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격렬한 사고와 감정은 곧장 내 마음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90초 후 내가 접속하고 싶은 감정적 · 생리적 고리를 선택하면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분노 회로에 접속하거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보내는지 관찰해보면 정신적으로 튼튼해질 것이다. 예민한 감정의 고리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것은 감정적 · 생리적 회로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몸과 마음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감정이 우리 몸에 찾아왔을 때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그럴 때면 세포들에게 그 감정을 경험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뒤 지금 이 순간으로 의식을 되돌리려 애쓴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넘어서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생리적 반응이 밀어닥칠 때는 그 감정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신경 회로가 나를 휘어잡도록 내버려두고 90초의 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아이들이 그러하듯 감정도 사람들이 들어주고 인정해야 정화된다. 시간이 지나면 이 회로의 강도와 빈도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어떤 사고가 강력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여러 감정 회로와 생리적 회로를 동시에 가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보는 사고는 복잡한 회로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결국 동시에 돌아가는 회로의 배열에 주목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배선되어 있는지 통찰할 수 있고, 그래야 마음의 정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꿀 수 있다.

집중하는 인간의 뇌보다 더 막강한 것은 세상에 없다. 언어를 통해 우리의 왼쪽 뇌는 몸의 치료와 회복을 지시(혹은 방해)할 수 있다. 언어와 자아를 담당하는 왼쪽 뇌는 50조 개의 분자적 지성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응원단장과도 같다. 내가 세포들에게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를 보내면, 세포들은 치료 환경을 강화하는 진동을 몸속에서 만들어낸다. 세포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긍정의 뇌〉(윌북 刊) 중에서 '뇌졸중이 내게 안겨준 지혜'와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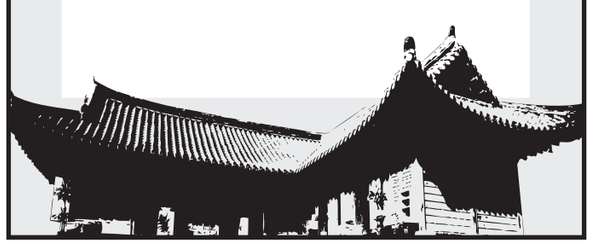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 차량운행 : 조계사앞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차량기사 : 010-4941-5713 예약 필수)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1차 백일기도 (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재 봉행)
■ 기 간 : 2012년 3월 25일 ~ 7월 2일
■ 내 용 :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② 법화경 사경 ③ 염불 ④ 108배 (동참 불자님은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동 참 금 : 10만원 (전화접수 가능)
■ 전 화 : 032) 932-3525 / 010-5282-3550
※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 개금불사 동참자(접수중)는 천일동안 축원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현우경' 이야기 (18)

비구가 된 원숭이

발우에 늘 꿀물이 가득한 스님의 사연

어떤 부자가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다. 부자는 고민 끝에 점쟁이를 찾아가 자식이 없는 이유를 물었다. 점쟁이가 말했다.

"당신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운명입니다."

부자는 이 말을 듣고 근심에 잠겼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아가야 한다니….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준단 말인가."

이런 모습을 지켜본 아내 역시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부자의 집에 들르게 됐다. 스님은 근심에 잠긴 부부에게 이유를 물었다.

"왜 이렇게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부부는 스님에게 말했다. "점쟁이가 말하길 우리들에겐 아이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점쟁이는 사람의 인연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부처님을 찾아가 그 연유에 대해 여쭤 보십시오."

부부는 스님의 말을 듣고 곧장 부처님을 찾아갔다.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아이가 생길 것이나 자라면 출가할 것이다."

"아이가 커서 도를 깨친다면 그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는 부처님의 답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부부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공양을 올리고자 했다. 부처님은 이를 승낙하고 부부의 집에 들러 스님들과 함께 공양을 했다.

절로 돌아오는길 공양을 마친 부처님은 스님들과 개울가에 들르게 됐다. 그때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나 물 마시며 쉬고 있는 부처님과 스님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한 스님이 갖고 있던 발우를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지켜본 부처님이 원숭이에게 발우를 건네주라고 하자, 원숭이는 발우를 들고 어디론가 달려갔다.



삽화 · 강병호

잠시 후, 원숭이는 발우에 꿀을 한 가득 담아와 부처님에게 공양으로 올렸다. 부처님이 말했다.

"물을 타 오거라."

원숭이는 부처님 말씀대로 물을 타와 다시 올렸다. 부처님은 원숭이가 공양으로 올린 꿀물을 스님들과 함께 골고루 나눠 마셨다. 이 모습을 지켜본 원숭이는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표했다. 원숭이는 매우 기뻐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 구덩이에 빠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는 총명하고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 부부는 아이의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는 점차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다. 어느 날 아이가 부부에게 간청했다.

"이제 집을 떠나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과거에 부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을 떠올리며 아들의 출가를 허락하기로 했다.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청했다. 부처님은 아들의 출가를 흔쾌히 허락했다.

비구가 된 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이 됐다. 그는 늘 여러 비구들과 함께 수행 했는데, 항상 그의 발우에만 꿀물이 가득했다. 그는 꿀물을 매일 같이 다른 비구들과 나눠 마시며 생활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다.

"어째서 저 비구의 발우에만 꿀물이 항상 담겨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과거에 공양을 하고 개울가에 들렀을 때, 한 원숭이가 나에게 꿀물을 준 적이 있다. 내가 그 꿀물을 받아먹자 너무 기뻐 춤을 추다 그만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그때 원숭이가 지금 저 비구이다. 그는 과거 아라한에게 '원숭이 같다' 고 말해 그 업으로 원숭이로 태어났다. 하지만 일찍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 지금의 비구가 된 것이다. 그러니 모든 법을 알고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 각색으로 인한 왜곡이 있음을 양해 구합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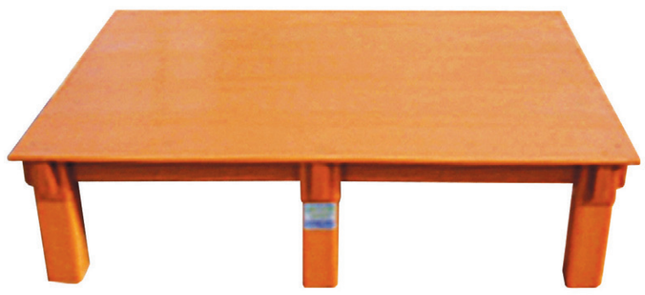
교육상담 (교무실) 054)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 3칸겹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함안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달전사)
◐ 문의전화 : 055) 58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뽑히지 않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큰스님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의 답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원에 나온 지는 한 15년 됩니다. 처음에 나올 때 큰스님의 책을 밤을 새워서 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스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큰스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관하라는 말씀과 또 놓고 가라는 말씀, 주인공에게 맡기라는 말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서 언제나 그걸 실천에 옮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또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또 동생 형도 될 수 있고, 산천초목 물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선이라는 것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느끼고 참나를 찾기 위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들의 수행하는 과정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깊은 산에 가서 며칠이고 참선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때 그때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참진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며,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주인공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선을 해야 되는지, 또는 깊은 산중에 가서 망상을 떨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지, 아니면 그냥 저희들처럼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꾸 갈구하고 참나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실천을 해 가도 되는지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큰스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사람들이 참선을 한다 하면 그저 몸을 조아리고 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몸을 수행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수행시키는 공부를 합니다. 딴 데서 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법사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스님네들이 좌선, 참선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좌선을, 앉아서 하는 걸 가르치고 가는 것만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앉았다가 일어나면 선(禪)은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이란 앉아 있는 것도 아니요,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앉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마조(馬祖)가 앉아 있으니까 회양(懷讓)은 기왓장을 갈았다 하지 않습니까? "넌 뭐를 하려고 그렇게 앉았느냐?"고 묻자 "나는 부처를 이루려고 이렇게 앉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일어나지도 먹지도 누지도 말아야지 선이 끊어지지 않지, 그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거기에서 그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앉았다 하면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게 목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해 보시고 '아, 이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수행이로구나.' 해서 그 후로는 마음의 수행을 중시하셨고 힌두교도에게 수행하는 방법도 일러 주셨죠. 우리가 지금 망상이 일어난다 이러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망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망상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생각 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이런 게 안 난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룹니까. 그러니 부처 가운데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었다 했습니다. 어찌 그것이 둘이라고 봅니까.

그런 반면에 참선이라는 이 자체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죠. 첫째,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다. 둘째, 증명을 해 줌으로써 둘이 아니게 돌아감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이고 내는 그 능한 도리를 알게 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렇게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그것을 아는 까닭에, 세 번째는 바로, 둘이 아니게 이 모든 일체 생명과 더불어 같이 나툰다고 하는 도리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 놔라 하는 겁니다. 선으로 돌아간다면 악이 붙고, 악으로 돌아간다면 선이 붙으니 어찌 벗어날 길을 찾으랴. 악도 놓고 선도 놔라, 그런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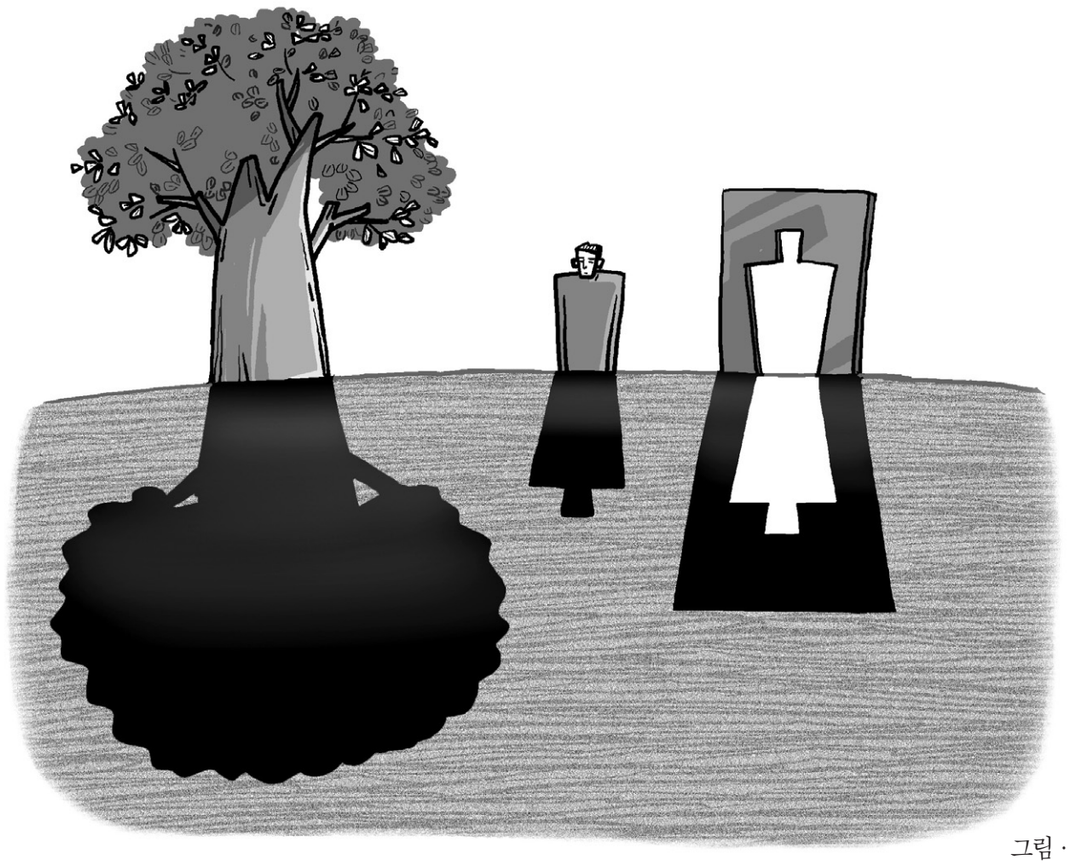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 자체에서 그대로 묘하게, 인간을 첨단으로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용솟음치고 나옵니다. 그 마음을 좀더 넓혀서 생각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묘합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의 보배인 것입니다. 즐거운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슬픔도 미움도, 또 선의적인 마음도 악한 마음도 듣고 보는 대로 생기니 그 얼마나 묘합니까.

그것을 망상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하, 이런 것이 전부 죽 솥에서 끓는 죽방울 나오듯이 그 많은 생명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거기 말리랴.' 라고 해야죠. 죽방울이 '그냥 그렇게 해!' 해도, '그래,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나와도, '네가 했으니까 네가 모든 것을 그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하면 '야, 내가 네 속을 썩이려고 그냥 막 이랬는데 너는 유유하게 말이야, 내가 그러는지 벌써 알고 있으니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만,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 터지던 것도 그만 가라앉는 겁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니 눈물만이, 아무 상관 없이 눈물만 흐르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이지 앞으로 머지않아서 정말 우죽 쏟아지듯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보세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칡뿌리라면 하여튼 굵고 깊이 박혔어야 그 가지마다 굵게 뻗어 나가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 되나 사철 그 칡꽃은 어김없이 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꽃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궁무진하며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그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이깊이 뻗어 나감으로써 위로는 부모의 은혜도 갚고…. 일체 조상이 둘이 아닙니다. 본래의 부모죠. 거미도 자식을 뒀고 부모를 뒀습니다. 하다못해 개구리도 개구리 부모를 뒀고 자식을 뒀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부모가 다르고 자식이 다르겠습니까. 그 벌레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게 인간으로 화(化)했기에 각자 자기가 광대무변하고,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등 동물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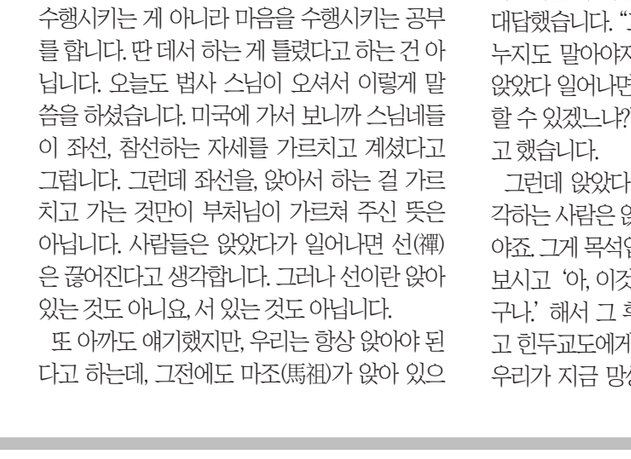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몸 안에서 마음이 벗어나야 할 텐데요, 첫째는 몸 안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몸 안에서 나오는 그 모두를 다스릴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지요. 내 몸이 있으니까 그 중생들이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없다면 그 중생도 없고 바로 상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내 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내 몸의 중생들이 어떻게 놀든지 모든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는, 들으면서도 행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자기 그 많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지배인이 된단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의식 속에서 지배인이 되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 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자신부터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을 통달한다

☞ 29면에서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무슨 말을 물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갑니다. 그래 그 지배인이 돼야만이 그 모두를 이끌고 나가는 선두자가 되죠. 그럼으로써 그것이 직접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한다 하면서 진짜 참선은 못 하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이 있는데, 주인공을 용광로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 넣어라. 이건 자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그 작업만 한다면, 놓기만 하면 거기서 새 쇠로 재생이 돼서 나간다.' 는 거죠. 그럼 그게 거죽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믿고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해 보시지만, 여기 이 도량은 말하자면 백 리 안팎으로는, 아니, 그냥 아주 줄여서 말하죠. 3킬로미터라고 해도 되고 또 100미터라고 해도 됩니다. 조그맣게 생각해도 좋고 크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백 리 안팎으로는 광력과 전력과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작용이 됩니다. 교리로 배운 것은 말만 하기 때문에 말로 땅에 떨어지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심전심으로써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선 그만큼 되고도 남음이 있죠. 여러분이 없다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 생각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묘한 거죠. 그래서 거지가 밥을 얻으러 올 때 반드시 깡통을 가지고 와야만이 담아 줄 수 있다 이거지, 마음을 안 가져오는데 어떻게 담아집니까? 이심전심인데요. 몸뚱이를 보고 안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세입니다. 집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생각만 해도 벌써 이심전심으로 한 찰나에 들었다가 한 찰나에 좋은 뜻을 전하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기가 그런 경험을 못 했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 말을 들어 보고 그러면 아실 텐데요? 3미터니 100미터니 백 리니 이런 것을 떠나서, 미국에서 여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심전심으로 딱 한 찰나에 묘한 법을 전달하고 가더랍니다. 내 모습으로 보였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자부처가 바로 내 모습으로 보인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둘로, 너는 너고 나는 나이면서도 하나로, 두 다리 쭉 내뻗어서 보인 것처럼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두 발은 두 발인데 한 발이죠. 한 발은 한 발인데 둘이 아니죠. 네 발 내 발 둘이 아니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참선? 산골에 들어가서 참선? 아니, 산골에 들어가면 거기 부처가 있고 산골에 안 들어가면 부처가 없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즉, 여러분부터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모르는데 어찌 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자기 마음부터 알아야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도 알고 이 머저리 같은 내 마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혼자 중얼거릴 때도 많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말입니다. 야, 테레비를 보고도 그렇고, 세상을 보고도 그렇고, 사람들 그 울부짖는 거를 보고도 그렇고, "스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그냥 울 때도 그렇고 이거는 뭐,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머물렀던 40일 동안에 몇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걸 수효를 따진다면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걸 남으로 안다면 한 사람에게도 이익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저 높이 보지도 말고 낮추어 보지도 말고 자기같이만, 못난 자기같이만 보면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래야만이 공덕이 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가셔서 안방에 앉아 보세요. 자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부처가 거기 있지 아, 자기가 없는데 무슨 부처가 있습니까. 자기가 없는데 부처가 어딨으며, 또는 내 몸뚱이를 끌고 저 산골로 들어가 본다 하더라도…. 나도 한바탕 웃었습니다마는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도 끌고 다닌 자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좌선은 마음 편안한 걸 말하고 참선이라는 거는 마음 편안한 데서 참진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좌선과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용광로에 넣고 내가 편안하게 '아, 내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하고선 관할 때, 마음이 한군데로 몰아져 편안할 때, 그 진리가 거기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이 집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아하, 내 주인공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주인공 심부름꾼인데 그저 당신만이 해 줄 수 있어.' 하고선 거기다 놓아야 편안하게 앉아서 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나오는 대로 일일이 생각하고, 몸뚱인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온통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좌선이며 참선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안정됐을 때, 가게에서 장사를 해도 그건 꿈쩍 안 합니다. 여전히 웃고 부드럽게, 장사하면서도 그 심봉은 꿈쩍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전에 제가 그렇게 산골로 다녀도, 목신도 있고…, 뭐 없는 게 있습니까, 어디? 다 있지.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친구가 되고 벗이 되니까 무서운 게 어딨습니까? 아, 보세요. 모두가 친구인데 어떻게 무서울 게 있습니까? 너 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머저리 같아도 좋다 하는 겁니다. 좀 모르는 듯한 것이 그럴 땐 조금 낫더라 하는 거죠. 내가 약았으면 그렇게 못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세계는 전파를 통해서 두루 하는데, 앞으로 마음공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겁니다. 물질은 무상(無常)하다 이 소립니다. 그 질문하신 게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하하. 다 됐습니까?

> 좌선과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 모든 걸 마음의 용광로에 넣고 내가 편안하게
> '아, 내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지.'
> 하고선 관할 때,
> 마음이 한군데로 몰아져 편안할 때,
> 그 진리가 거기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질문자2(남): 예, 저 실은 질문을 용지에다 써 가지고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스님께서 바로 그 법문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게 한마음이구나.' 이렇게….

큰스님: 하하하…. 그래서요, 지금 질문하신 분도 그 도리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보시하기 위해서죠. 이 마음이 갸륵한 겁니다. 그 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배우자 하는 뜻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법우님들 형제님들과 높고 낮음이 없이 같이 하자는 뜻이죠. 내가 그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하죠. 허허허…. 하여튼 셋째 일요일도 질문을 하는 데에 역점을 두십시오. 만날 나만 혼자 말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니 어떡합니까. 질문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게끔요. 괴상한 거라도 좋으니까요, 네. 하하하.

질문자3(남): 저, 다름이 아니고 마음이 참 묘한데, 저는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없이 깊고 한없이 연구해야 되는데 저희 중생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남과 남이 서로 만나서 살다 보니까, 사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드는데 미운 사람에게는 '아, 저놈이 사업이 좀 안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마음을 많이 내다 보면 그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 이런 경우에 이게 보살행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허허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참,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더라? 그 말끝에 내가 얘길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으니 그만두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하도 못살게 하고 회사를 망하게 해 놓고 돈도 한푼 안 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거리로 나앉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주 너도 거리로 나앉아 봐라. 거리로 나앉아 봐라." 그러고 한바탕 주워섬기면서 원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사글세를 사는데, 아, 글쎄 그 사글세도 내놓으라고 그러더랍니다. 허허허…. 그래 가지고는 "야, 이거 나쁜 사람은 오히려 살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그러기에, 내가 그랬습니다.

"야! 이심전심이야. 당신의 마음이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 남을 원망하지 마. 말하자면 사인을 받지 않고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 똑똑히 하라는 거지, 부처님 법이 그렇게 잘못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랬죠. 그러구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잘돼서 참, 그 뜻을 알아서 날 좀 도와주게 하는 것도 주인공밖에 없겠지.' 하고 거길 믿어라." 그랬는데, 그 해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하루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는 조금 나아졌으니, 전세 든 내 집을 당신 명의로 해서 들라." 그러더랍니다. 그게 4000만 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아, 그거라도 받았으니 얼맙니까? 그 뒤에 또 쌀도 들여보내 주고 이러니 돈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더욱더 친절해지고 더욱더 서로를 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되찾고도, 거기 같이 일을 하게 됐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남을 원망하기보다도 나부터 돌아다볼 줄 알아야 되죠. 지금 그 말도 그 뜻이에요. 그저 남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마세요. 나는 나를 버리고…, 갔다든가 온다든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세상에는 그거보다도 더한 것도 다 버리고 가고, 내 몸도 이젠 벗어야 할 그런 처지에 구태여 무슨 뭐, 누가 어쩌니…. 아니, 씻고 닦고 하던 것도 다 버리고 떠나는데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서 안 되느니, 저렇게 해서 안 되느니….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려걸랑 그저 '네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하고 스위치를 탁 올리면 거기에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한 방이니까, 한 식구들은 한 방이거든요. 한 방의 스위치가 다 한 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고, 요놈 조놈 하고 그럭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저 위로도 아래로도 전부 한마음이 돼서,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서나, 위로 조상들이 나를 돕고 아래로 자식들이 따라서 또 도와 간다면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자식들이 어디 가도 잘 살죠. 자기 2세거든.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모습을 바꾼 거지. 그런 것뿐이니까, 자기가 잘 살도록 자기가 해야죠. 그러니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질문한 분, 원망하지 않는다면 올 1년 안으로도 좋은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신도회장: 어느덧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큰스님: 아,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뭐. 하하. 아이, 단군할아버지께선….

신도회장: 질문 준비하신 분들은 요다음 셋째 법회 때 또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야, 총무 스님 있을 때에는 총무 스님이 그러고, 또 우리 회장님 있을 땐 회장님이 그러고, 아이, 우리 저 수좌들 데리고 가면요, 또 수좌들이 탁탁 막아요. 허허허…. 그런 걸 보면 참….

신도회장: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허허허…,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1년 4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응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불자 세상보기

재래시장 고객 교류 장소돼야 회생



박 경 배
상지대 경영학과 교수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도 한때는 낡은 산업을 대체하며 나타난 신산업이었다. 원래 이 땅의 유통업은 5일장과 장을 돌아다니는 봇짐장수가 전부였다. 소득이 늘면서 상설시장이 커졌고 그곳의 상인들이 결국 5일장과 장돌뱅이 봇짐장수들을 대체했다. 1960년대부터는 점방들이 골목으로 들어와 재래시장의 몫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 구멍가게들이 지금과 같은 동네슈퍼로 변한 것이다.

유통업이 다시 진화하며 빈익빈 부익부의 경쟁이 심화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단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다. 즉,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은 소비자들이 결정한다. 아궁이 불에 의존하던 난방방식이 연탄난방을 거쳐 보일러나 지역난방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연탄공장과 탄광들이 문을 닫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일자리 보호에만 열중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연탄만 때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재래시장이 그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재래시장의 문제를 단순히 상업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대형 유통점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재래시장을 결코 활성화 시킬 수 없다. 4월 22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전국 39개 기초자치단체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일제히 강제휴무에 들어갔다. 실질적인 법 시행 첫날 재래시장, 그러나 소매상을 살리자는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인근 재래시장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휴점일 하루 전인 토요일에 신선식품 떨이 및 각종 프로모션을 펼치며 전주 대비 매출이 크게 뛰는 기 현상까지 벌어졌다.

또 대형마트 및 SSM이 휴점한다고만 했지 어디인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문 닫은 대형마트를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전국 빅4 대형할인점 365개점중 3분의 1인 115개 점포가 문 닫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역시 영업하지 않았다. 서울은 12개 대형할인점이 문을 닫았다. 아울러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등 빅4 SSM 전국 1066개 점포 중 3분의 1인 345개 점포가 휴무를 단행했으며, 서울에서는 84개 SSM이 휴점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대형마트들의 일요일 휴점을 앞두고 하루전일인 토요일, 신선식품 떨이 행사 및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한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주 토요일 대비 40% 가까이 뛰었다는 것이다. 지방권역도 이마트의 경우 분당점, 문현점, 광주점 모두 20~30% 가까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서울과 다르지 않았다.

대형마트 휴무 효율성 떨어져
재래시장에 복지시설 등 유치 필요
시장의 다양한 인증제 대안 대두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대형마트를 강제적으로 휴무에 들어가게 했지만 재래시장은 여전히 썰렁했으며,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손님이 없는 텅빈 매대를 지켜봐야만 했다. 소비자들은 장 보는 것을 하루 미루더라도 대형할인점을 찾으려고 했지 재래시장은 찾지 않았던 것이다. 재래시장을 고객이 교류하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시설 등을 유치해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도록 하고 아이들과 주부들을 위한 식문화를 전파하는 평생학습시설이 함께 해야 한다. 단지, 재래시장 근처의 길가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현대식 주차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재래시장이 아직 대형할인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강점인 야채류 등 신선 식품 관련 경쟁력이 좀 더 보완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야채류 등 신선 식품의 경우 현재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격경쟁력외에도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인증제가 필요하며 이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용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법 규정만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대형마트도 재래시장도 서로 상생하며 잘 살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할때다.

사부대중 칼럼

육군훈련소 법당 완공에 부쳐



자광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인 호국연무사가 드디어 낙성됐다. 호국연무사는 국내 최대 규모 법당으로, 한번에 3500명이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 불교계는 문을 연 호국연무사에서 청년포교의 새 장을 열어갈 것이다.

호국연무사는 계단식 의자배치, 자체 발전시설과 냉난방 및 먼지제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군장병 불자들을 위해 젊은 감각의 장엄물과 조명시설 등에 정성을 기울였다.

논산훈련소는 전국서 모인 장병의 반수 이상이 군사교육을 받는 곳이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젊은 시기에 성찰의 시간이 되는 군 생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중 고된 훈련을 벗어나 잠시 주어지는 종교 활동은 그들에게 감로수 같이 소중한 시간이다. 종교 활동 시간은 속된 말로 배고픔을 잊고 외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대부분 종교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때론 상처도 받으면서 서서히 나이가 들면 종교를 갖게 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은 그 시점을 군대생활이라고 흔히 말한다. 처음 그들이 종교를 접하는 것은 단순한데서부터 비롯된다.

군 생활의 피곤함에 지쳐서 좀 더 많은 간식과 편안한 휴식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곳에 자주 문을 두드린다. 그 곳이 바로 종교 활동 행사장이다.

이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에서도 청년 포교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포교의 황금어장인 셈이다. 반면 불교계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열악하다. 하지만 이번 호국연무사 완공은 청년포교 현장에서 충분히 일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된다. 훈련소 내 최고 시설에 걸맞게 최고의 포교 프로그램을 신설해 10만 군불자 수계 목표를 달성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참불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호국연무사 불사를 진행하며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정부 지원금 없이, 순수하게 전국 사부대중의 모연을 통해 이뤄진 불사라는 점이다.

군불교는 포교의 황금어장지대
정부 지원금 일체없이 불사 완성
25억원 모연 과제, 동참 호소

그동안 1만 3000여 명에 달하는 불자들이 십시일반 불사에 동참했다. 이 대작불사에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모아 낸 불자부터 군 생활 동안 월급을 모아 낸 불자들까지 다양한 불자들이 힘을 보탰다. 지면을 빌어 정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지난 2009년 11월 불사를 선포한 이후 불과 2년 6개월 만에 이뤄낸 이 대작불사에 법열을 느낀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전체 130여 억 원 불사금 중 25억 원이 더 모연돼야 한다. 건설사에서는 낙성 때까지 대금을 지급 못하면 법당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군종교구에서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남은 불사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 대작불사 완성을 위해 사부대중의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청년 불자 양성소다. 수계받고, 법회에 참가한 인연으로 전역 후 이들은 전국 곳곳 사찰을 찾아 불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등을 호국연무사에 밝혀주길 바란다. 군종교구서는 삼존불 좌우로 모셔지는 1500분 원불 조성을 모연하고 있다.

동참 인연공덕으로 불법이 융성하고 우리의 많은 후손들이 불교와 큰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사부대중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社說

세계불교포럼, 외형보다 내실을

중국불교협회 · 홍콩불교연합회 ·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3차 세계불교포럼이 4월 26일부터 홍콩 홍콩체육관과 리갈공항호텔 일원에서 개막됐다. 전세계 40여개국 불교지도자와 학자, 전문가 1천여 명이 모여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야단법석이다.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화합의 세계로 같이 나아가길 발원한다'이다.

들리는 소리로는 지난대회 보다 10여 개국이 불참하고 참가인원도 대폭 줄어드는 등 세계 불교계의 관심이 다소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야 어쨌든 처음 개최때보다 다소 관심이 떨어진 듯 하다.

하지만 대회의 외형적 이벤트나 볼거리 및 규모는 여전히 화려했다. 세계불교포럼 개최를 기념해 25일 홍콩체육관에서 개막한 '부처님 두정골 사리 이운 행사'는 생방송으로 중계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10여 스님들과 진행 요원들은 황금빛 지게차를 이용해 화려하게 장엄된 트럭에서 두정골 사리를 행사장 특설무대로 이운했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불자들도 합장한 채 두정골 사리의 이운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반겼다. 이어 26일 열린 한중일 불교계 대표(한국-영담 스님, 중국-쉐청 · 學成 스님, 일본-고바야시 류쇼 스님)들이 '황금유대에 관하여'란 주제로 벌인 TV토론도 큰 관심을 끌었다.

무릇 종교 행사는 외형적 규모나 화려함보다는 진정한 내실 다지기가 더 중요하다. 3차 대회까지 치루는 동안 세계불교포럼은 충분히 외형적으로는 큰 규모로 성장했다. 이제부터 차기 대회때부터는 불교가 세계일화를 이루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내실 다지기에 더 힘을 쏟아야 명실공히 큰 행사로 거듭날 것이다.

새싹포교,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이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포교원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청소년법회 운영사찰은 304곳으로 조사됐다. 2008년 5월 조사 당시 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미등록 사찰이 포함하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9년부터 도입한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도량제도와 직할교구 사찰 인사고과제도 정착이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꾸준히 양적 증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정책이 일관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꾸준한 양적 증가에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여전하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확보다. 특히 주5일제 시행이 본격화 된 지금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찰에 잠시 보낸다는 개념이 아닌 고정적으로 맡긴다는 개념으로 변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영어법회인 달마스쿨, 명상 프로그램 등 일선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법회를 여는 것이 주지스님에게 달려 있다면 아이들을 오게끔 하는 것은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역량"이라는 일선 실무자의 말은 뼈 아픈 지적이다.

새싹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대한 불사다. 사찰의 스님들이나 재가불자들이 어린이들의 스승이 돼 주고 함께 공부하고 지도할 때 어린이 포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종단 역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전문가 양성 교육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옻가네 お金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 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사단법인 한국대체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ISO 9001 인증서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ID제조업체등록, 공정개정등록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봄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멸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부터 변이 원활하게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또한 좋아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히 없어지고 3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꺽인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아래는 고기나 멸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피로도 확 풀려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와 좋은제품은 안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여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몸이 돌고 서서히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과연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아직 정액이 있어 좋은 정액이 튀어 나왔고 심폐기능이 소생게 여겨졌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카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고급형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옻가네 お金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